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사



칼럼 옛 제주대학본관의 추억
시론 당대 건축의 비극 모델화와 복제화
변화에의 웨이크업 콜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2
<http://www.kira.or.kr>
201004

옛 제주대학본관의 추억

A Memory about old main building of Jeju national university



김도균(Kim Do-kyun), m.kju8909, 94x120cm, C-Print, mounted on plexiglas, wooden framed, 2009

우리나라의 현대건축 논의에는 자주 김중업 선생의 제주대학본관이 등장한다. 이 건축이 사라져 버린지 십 오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 우리들 기억에서 희미해졌어도 불쑥 불쑥 그 모습이 되살아난다. 가까이, 지난 이 월 한 달 동안 건축저널 「공간」이 지령500호를 기념하여 기획하였던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있었다. 이 전시회의 메인 이미지가 또 이 「제주대학본관」이다.

김중업 선생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설계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현대건축 원리와 한국의 서정을 혼용시켜 한국모더니즘 건축의 새장을 열었다고 칭송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후속작이 「제주대학 본관(1964년 설계)」인데, 설계 당시의 명칭은 「제주대학 법문학부 도서관 및 교수연구실」이었다. 전면보다 낮은 지면 층에 학생 회의실과 가정학과의 실습실, 학생식당, 주 층에 도서관과 행정실, 3층에 교수연구실, 옥상 층에 대학박물관과 윤의 강의실이 있는 다종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이었다.

이 건축은 그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자면 「21세기의 건축」이다. 시대를 한 세기나 앞서 갔노라는 일같이다. 전작이자 대표작으로 보는 프랑스 대사관에 비하면 이 건축은 모더니즘의 전범에서 큰 일탈을 보여주었다. 모더니티의 특징인 기하학적 추상과 합리적 성향, 기능적인 요구에서 벗어져있는 것이다. 분명한 곡선 표현이 주조가 되어 유기적이고 관능적이다. 특히 각층으로 오르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경사로들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어우러져 여유가 넘친다. 작가는 이 대목을 낭만이라 설명하였다. 제주도의 낭만이라고….

다수의 비평가들이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미술평론가이셨던 고 이경성 선생은 구체 언급이 없이 프랑스 대사관 이후 작업들에 별다른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김 원 선생도 그리고 김봉렬 교수도 이 건축은 “과다한 표현 욕구와 개인적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평하였다.

그러나 작가가 21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건축은 후기모더니즘을 예감한 선진적 징후를 이미 반세기 앞서 보여준 역작임이 들어나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서 우리들 건축에는 감성 우위 그리고 표현과잉이 만연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정형 건축으로 불리는 동대문역사 공원의 디자인 센터가, 한강의 인공섬 후로라와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가 이 건축에 주어졌던 ‘과다하다’와 ‘과시’라는 평가를 무색하게하고 있다. 저들에 비하면 이쪽은 오히려 절제를 보여주었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3년 2월 5일에 한국건축가협회가 이 건축 보존을 위한 행사를 벌였었다. 건축계의 고 김희준 교수, 이광노, 엄여문 노교수와 고 한창진, 강병기 교수를 위시한 원로 분들, 4.3그룹 그리고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주축들이 대거 제주로 출동하여 이 건축의 수명연장 대책을 제시하고 이곳의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함께 이 건축이 건강하게 재생되어 한국현대건축사의 중대한 자산으로 남아야 마땅하다는 성명을 채택하였던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1995년 5월에 철거되어 버려서 한국건축 역사의 한편도, 제주대학교 역사의 상당 부분도 지워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 건축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루어 내지 못할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참 귀중한 건축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 건축을 이따금 한 번씩 전시회에서 혹은 책 속에서 가신 분의 영정처럼 흐린 모습으로 만난다. 나는 별 나게 이 건축에 얹힌 추억이 많다. 이집의 출생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전 생애의 애환을 목격하였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처럼 기억이 되살아 날 때마다 가슴앓이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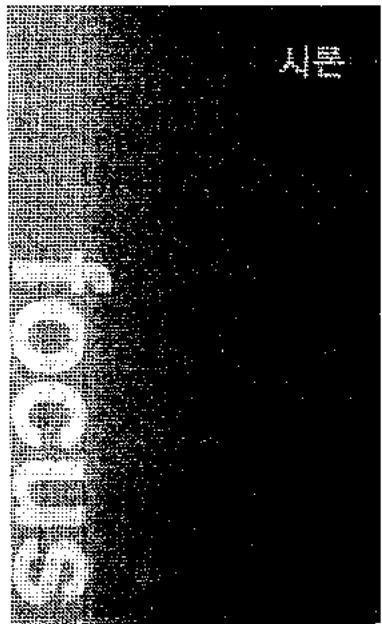


김석윤 / Kim, Seok-young, KIRA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 흥익대학, 국민대학 대학원
-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협회상 수상
- 제주도 문화상(예술부문) 수상

당대 건축의 비극 모델화와 복제화

A tragedy of architecture in the present age:
imitation and reproduction



건축은 도시를 대표하는 미적 장치이자 오브제이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맥락을 담는 기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네 건축물들의 적지 않은 수는 그것과 다소 거리를 둔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합리성과 실용성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일한 콘텐츠를 양산해 변별력을 잃어내지 못하도록 하며,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 아래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한 아파트나 공공건축물은 예술적 미감을 음미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특히 내용보다는 형식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때개로 이해되기 보단 경제적 가치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건축물을 유기적인 소통의 알고리즘(Algorithm)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속화 달리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유속이나 감성적인 편란을 담보하는 기의까지 헤아리기란 여러 면에서 무리에 가깝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조성된 포스트모던 양식이 비판 없이 이입돼 단순 복제, 모델 지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의 건축물들은 우리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식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상하이나 서울에서 만나 고층건물과 뉴욕 마천루 간 양자 차이란 희박하며 이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창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건축물들에서 공통되게 목도되는 현상이랄 수 있다.

가설 회화나 조각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많은 건축가들은 잡지의 모델이든, 건축회사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을 거리낌 없이 모방(模倣)내지는 차용(借用)한다. 여기에 고유한 색깔과 독창성이 녹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마치 엉터리 고대양식에 어설픈 청직이 뒤섞였던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유럽을 접하는 듯 정체불명, 국적불명이기 일쑤다. 모네(Claude Oscar Monet)가 사랑해 마지 않았던 영국 국회의사당과 같이 르네상스의 미와 고딕의 정신을 절묘하게 승화시킨 명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 누벨(Jean nouvel)이 지적한 지리적 상황, 도시적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적 상황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대 건축 양식의 특성까지 발견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모델화와 복제화는 창의를 생명으로 하는 이들에겐 예술적 비극의 단초이자 절망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그러나 그 비극은 하다못해 문화적 이상성이 배어 있다는 미술관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대표작이자 작은 마을에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부여한 빌바오 구겐하임을 두고 고고미술사학자인 할 포스터(Hal Foster)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전 세계의 당대 건축가들에게 유사한 위업을 달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고집했듯 우리나라 100여개가 넘는 미술관 중 근지에 세워진 다수는 엇비슷한 모양새와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그것은 대개 미니멀(Minimal)하거나 다분히 주지주의(Intellectualism)적이다. 흡사 성형미인처럼 어디선 본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감성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차갑고 인공적이다.

물론 독특한 미감을 발산하며 시공을 넘어 현대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문화요람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일례로 풍수-토라는 자연성을 미적 테마와 자연스럽게 접목시킨 제주 두손미술관을 비롯해, 우리의 전통 보자기에서 차용한 색유리를 통해 내부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일품인 프랑스 건축가 뱅상 코르뉘(Vincent Cornu)가 설계한 대립미술관, 인간의 인위성을 극도로 배제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허락하고 있는 경남 바람흔적미술관 등은 그나마 독자성을 유지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다만 수용의 범위가 아직 지나칠 정도로 넉넉하다는 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뉴과 정신을 회화로 기록하는 미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가들 역시 건축물을 일정한 거푸집으로 보고 그것에 당대의 표정을 담으려 노력하며 나름의 개념을 그리드(Grid)처럼 얹으려 한다. 그러나 대개 이상(理想)과 표장만 그럴싸할 뿐 그 근간이 되는 창의력에 대한 수고는 모델화와 복제화를 의식 없이 추종하는 경우 보다 적다. 적어도 지금엔 그렇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건 그게 어쩐 장르로 피어나든 대책 없는 결과물들을 매일 목도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괴로움을 그들은 잘 헤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홍경한 / Hong, Kyung-han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 주계예술대학교, 총의대학교 대학원
- 월간 '미술세계' 편집장 역임
- Fashion Design Management Institute Italy 교수
- 문화비평서 「고향」 발간

변화에의 웨이크-업 콜

Call for Change

한국의 건축과 '디자인 수도'로서의 서울이 세계적인 잡지에 소개 될 기회가 있다면 나는 한국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싶다. 이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최근 유럽, 미국, 아시아 내의 크고 작은 유, 무명 건축회사들과 함께 복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자로서 일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나의 평가는 솔직한 편이지만, 한국의 건축회사들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건축사나 부동산 회사들은 한국 건축사사무소들이 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한다: 그들은 왜 충분한 재능과 창의력, 국제적 경험을 갖춘 건축사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컨셉과 아이디어를 내놓는 데는 그토록 주저하는 것일까? 왜 대부분의 한국 건축사사무소들(특히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포함하여)은 이 분야에서 여전히 리더가 아닌 따르는 자(followers)인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 스스로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그 주된 이유로 한국 기업 조직 문화의 경직성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과 기타 소프트 스킬, 매니지먼트 기술의 부족을 꼽을 것이다. (이 지적들은 저자의 책 '다이아몬드 달레마'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자리하고 있다: 강력한 건설회사들과 마주한 건축회사의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 건설사들(갑)이 우위를 점하고 파워를 행사하게 되면서 이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면에 치중하여 건축회사(을)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창의성 발휘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건축사사무소들이 그저 지금까지처럼 계속 갈 수만은 없다. 주거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건설회사의 주 이익창구가 사라져가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축사사무소들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심한 압박을 줄 것이다. 한 줄기 희망은 멀티너더블 부자들과 다벨로퍼들이 건축사사무소들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건축사사무소는 이를 보다 적어도 동등하거나, 고부가 가치를 가진 파트너로 대우하는 데 있다.

또 다른 변화의 원천은 아마도 건설회사 스스로가 건축사들을 지금까지처럼 막이사슬의 제일 하위 요소로 대우하는 것이 단지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건축사들 스스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들의 국내 보호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여러 다른 부동산 관련 기관이나 조직들과의 확고한 인맥을 구축하는 등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계획' 소립 작업에 임하는 것이다.

나의 논지를 잘 보여주는 최근의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몇 달 전 나는 중국에 있는 캐나다 건축사사무소가 대도시의 정당 비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자에게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목격했다. 실제로 인상적이었다. 자신에 차있으면서도 동시에 고객 중심적이었고(그들은 중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노력을 잘 반영한 '고객님이 무언가가 내일 되어 있기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다), 실제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오랜 동안 같이 일해 온 중국인 팀 멤버의 완벽한 내용 이해에 기반한 훌륭한 공조로 그들의 핵심적인 내용(대규모 주택 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아주 명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 회사의 CEO는 적극적으로 그의 시간의 60%를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써서 실제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 잘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건축적인 능력 뿐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과 안목'도 요구한다. 한국의 건축사들도 서구의 평균적인 건축사들만큼 일을 갈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며 해외로 나갈 만큼 대담한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매우 소수만이 간신히 기존의 한정된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그 '비즈니스 통찰력'을 해외 시장에서 발휘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기술과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즉, 건축사들은 국제적인 고객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단순히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의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야 하며 건축사들이 결정적으로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고객, 정부기관, 건설회사, 현지의 건축사들, 그 외에 모든 관련된 파트너들과 win-win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고객과 프로젝트에 접근 시 엄마나 아빠를 전략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것이다.



타리크 후세인 / Tariq Hussain
Maxmakers 동부아시아 대표

- 독일 출생
- 영국 청년정경대 경영학과 졸업,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 부즈艾普제일민 한국사무소 이사
- 저서 : 다이아몬드 달레마; *칼럼니스트: "Outsider's Insight"* (Korea Herald, 신동아)

두 번째 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와 관련이 있다. 많은 이들이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이라는 아젠다에 고무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한국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사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작년에 Maxmakers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막강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 제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공동연구를 했었다. 결정적으로 그 연구는 전략과 컨셉트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가정 아래, 지속가능한 건물은 공사비를 아주 근소하게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략과 컨셉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 특히 계획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긴밀하게 코퍼레이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지속가능한 건물의 비용과 이익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깊이 있게 평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지속가능성 P&L'이라고 부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기존에 가진 믿음을 깨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며 디자인을 조정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며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물의 전 라이프 사이클 비용에 대한 원칙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의 공적 가치를 잘 설명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속가능성의 정의가 단지 '에너지 절감' 예산 내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서구의 건축사들(특히, 유럽의 건축사들)은 10년 이상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일해 온 결과 현재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경험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지속가능성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의 건축사들은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고 건설회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이 마땅히 했어야/夙願이어야 할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해낼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있으면 한다면 말이다. ■

서울 스퀘어

Seoul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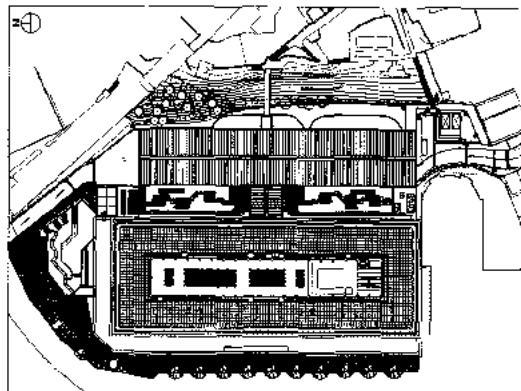
이필훈 / 정회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l-hoon, KIRA

김정임 /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by Kim, Jeong-im

재지면적	서울시 종로 내부면적 5가	THICK LOW-E INSULITY GLASS
제작년도	도심재개발구역, 중심마천지 해부이강	FLOOR GRANITE(ST.LOUIS)/CARPET
구조	구조설계: 구조설계: 구조설계: 구조설계:	TILE/MILLEN
주제	인력시설	WALL/LIMESTONE/STAINLESS STEEL
면적면적	103,841.00m ²	SATIN VIBRATION
건축면적	8,026.94m ²	C5 STRUCTURE
연면적	102,806.06m ²	설비설계: SAHM OHN ENGINEERS INC / SAM-OO
기획	0.8%	현기설계: YOUNG ONE INC.
총 체적률	1.13(0.94%)	시공자: DAEWOO INC.
구조	지상 2층, 지하 3층	설계감수: 경희대학교, 배승용, 김진인, 박정호, 전우선,
구조	설계감수: 경희대학교, 배승용, 김진인, 박정호, 전우선,	김명숙, 허민호, 전상일, 나수영, 윤정문,
외부마감	제작: COTTA ITALIA(MARBLE)	아이아크, 오사람, 초광일, 이문주, 이우미, 미상필,
		김태수, 이성미, 투자연, 박상구, 박상국, 이성우



배치도



The Humanity Landmark

한국 현대사에서 (구)대우센터 빌딩만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은 찾기 쉽지 않다.

2007년 현상설계로 시작된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이러한 역사성을 고려하고 도심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건축철학'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심 속에서 건축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서울스퀘어 리모델링은 입지적 조건, 역사성, 건물의 규모, 그리고 서울이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그 포인트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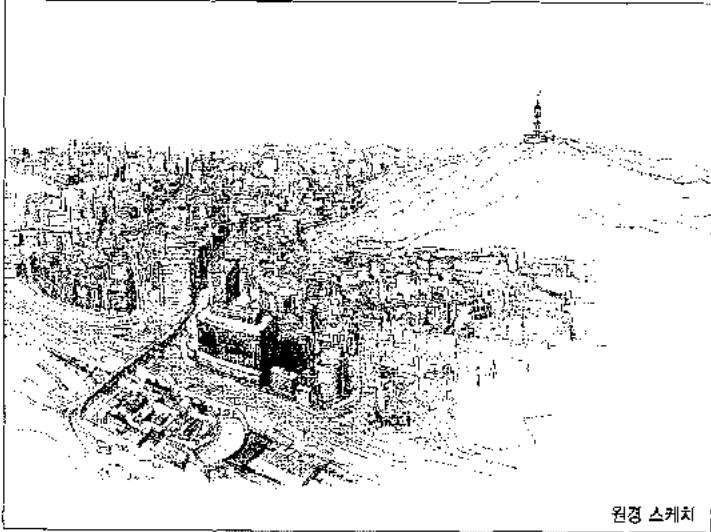
경제개발의 역사성을 내포한 고유한 외관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재료·상세 등을 현대화시키고 가로 99m, 세로 78m의 입면을 LED를 이용한 미디어 캔버스로 변화시켜 새로운 감성을 도시에 전해주도록 하였다.

외관에서 대우빌딩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과 높은 인지도를 강점으로 가져 간다고 했을 때 내부공간에서는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뚜렷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의 전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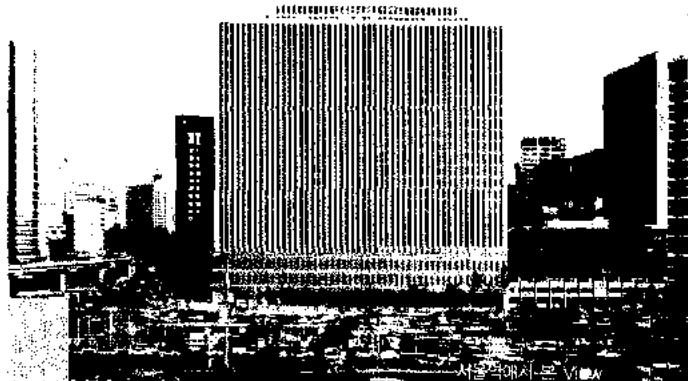
기존의 대우빌딩이 크고, 무겁고, 딱딱하고, 군림하는 이미지였다면 리모델링 디자인에서는 가볍고 유연하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대비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저층부 리테일과 고층부 오피스 모두의 공간적 구성이나 재료 및 색채의 사용, 조명환경 등에 일관되게 표현되며, 최종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상적인 예술품들을 배치함으로서 통일된 전체상으로서의 서울스퀘어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로비공간은 전면이 100m, 측면이 36m로 웅만한 오피스 빌딩 3개를 합쳐 놓은, 도시스케일의 규모이다. 이러한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세 덩어리의 엘리베이터 코아를 상부 오피스 부분의 또 하나의 로비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간을 빌딩과 빌딩 사이의 도시 공간으로 해석, 하나의 징소성을 획득하도록 의도하였다. 새로운 Geometry의 구현,内外부 재료의 연속성, 공간을 하나로 묶는 장치로서의 천장 디자인 등을 통해 로비공간을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시켜 보여줌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드라마틱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 오피스 디자인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곡면의 벽과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기존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친근하면서도 철학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건축과 예술, 실용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서울스퀘어는 식약한 도시 속에서 건축사와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오피스로서 앞으로 오피스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서울스퀘어가 도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길 바란다.



원경 스케치



서울 야경 사진





NEOLIS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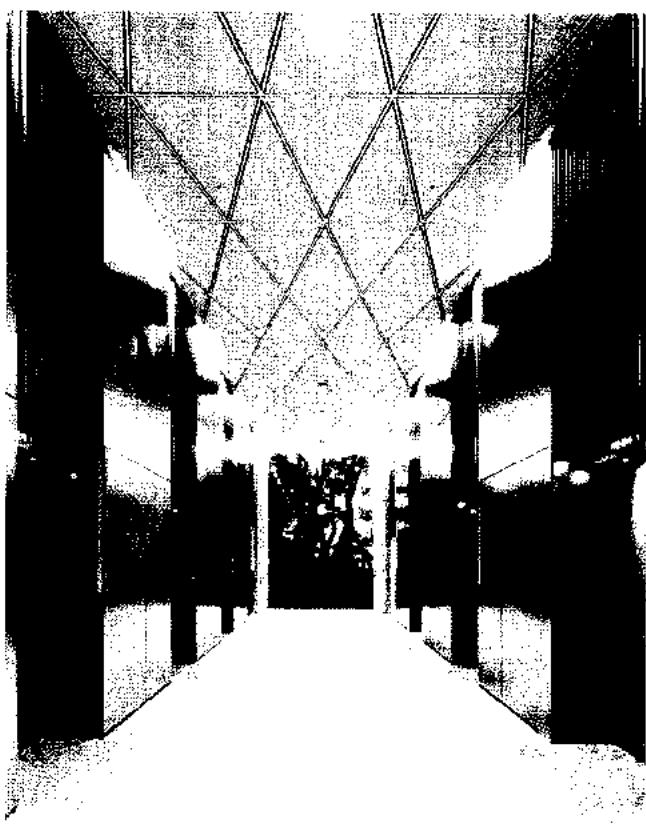
한강로에서 바라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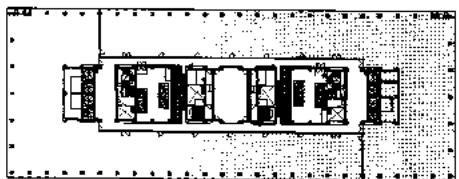
1층 를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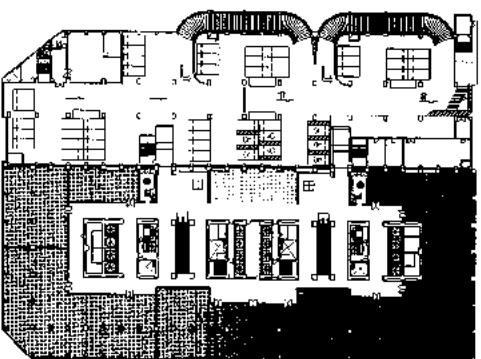
점면 일면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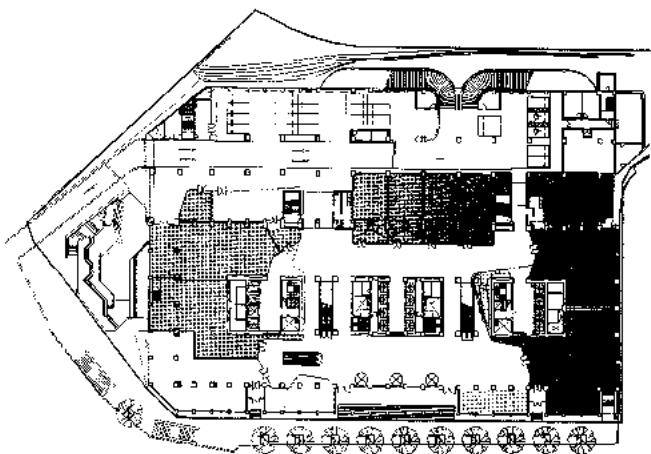
1층 ELEV. 'Hall'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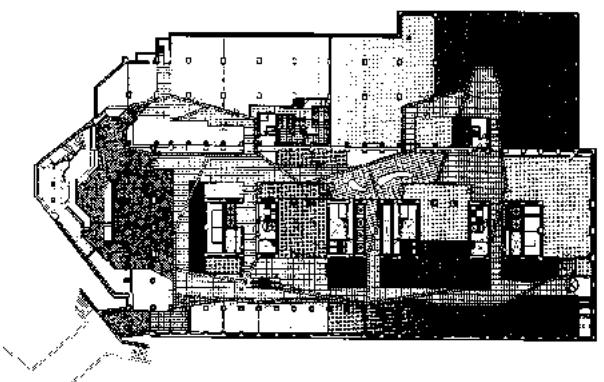
1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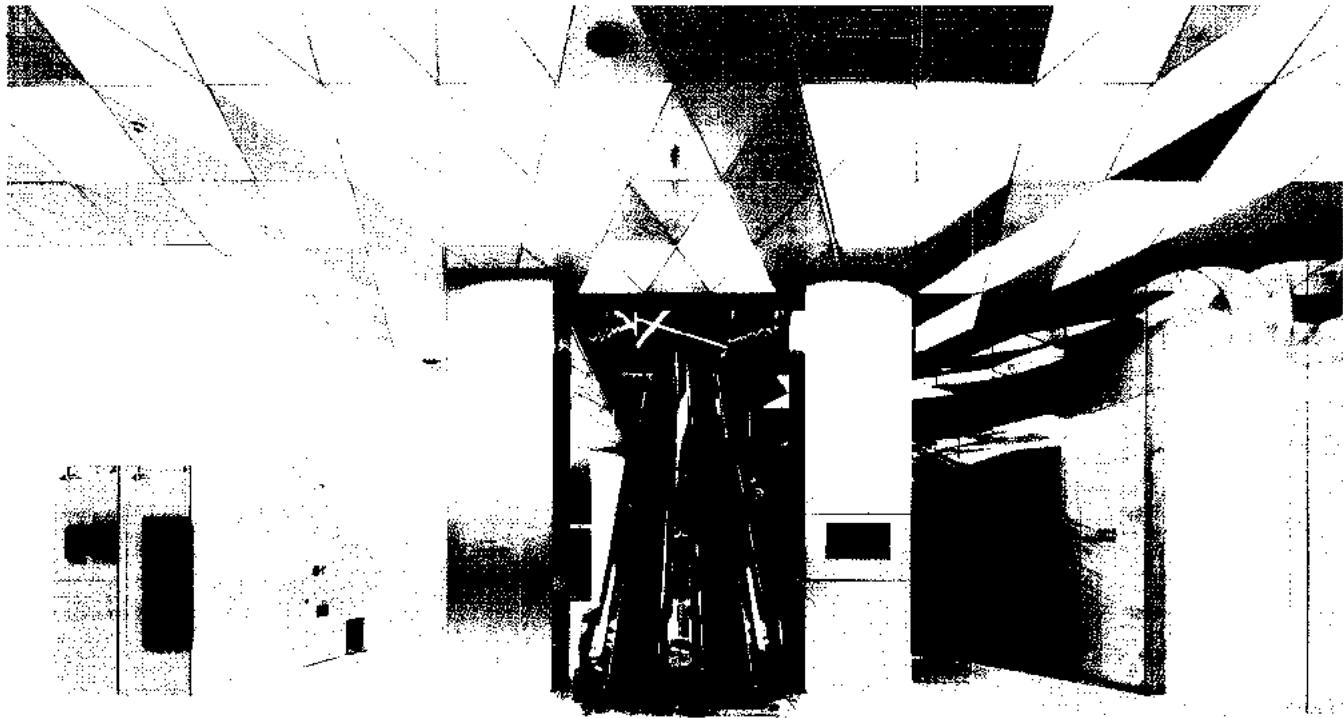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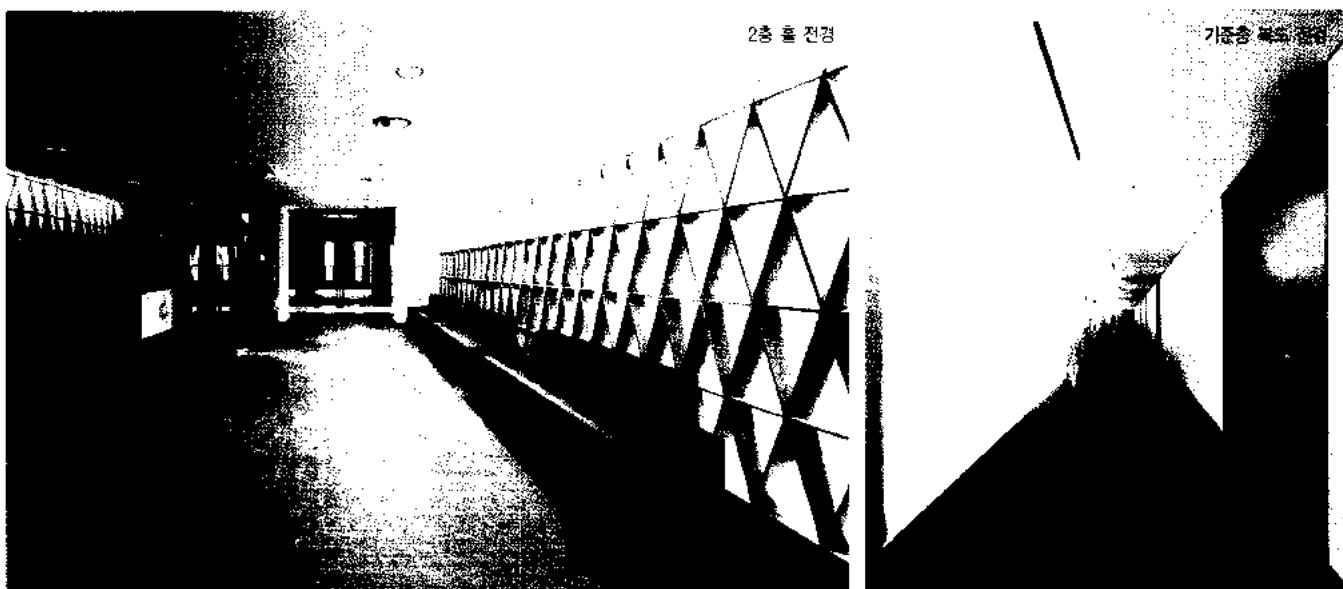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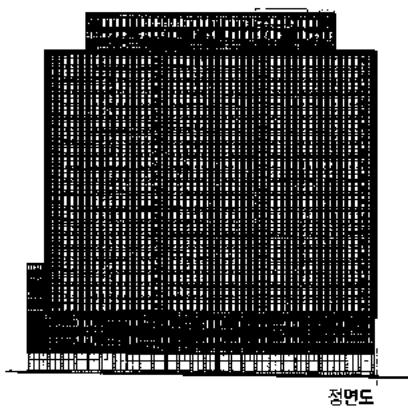
로비 에스컬레이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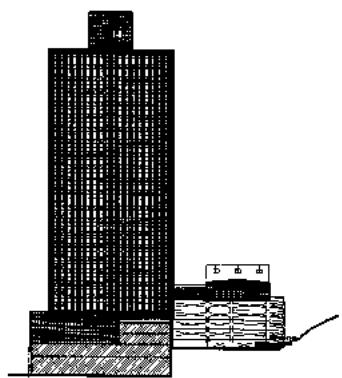
로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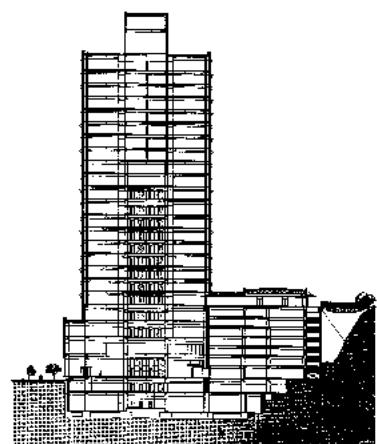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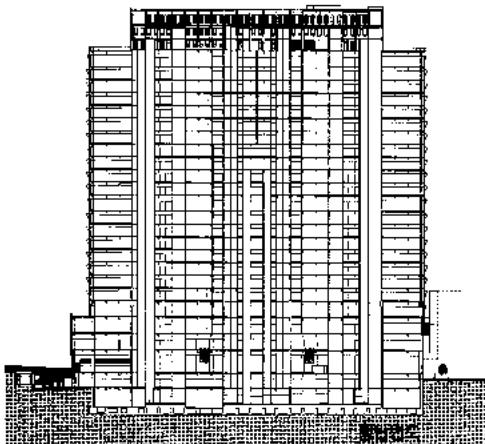
기준층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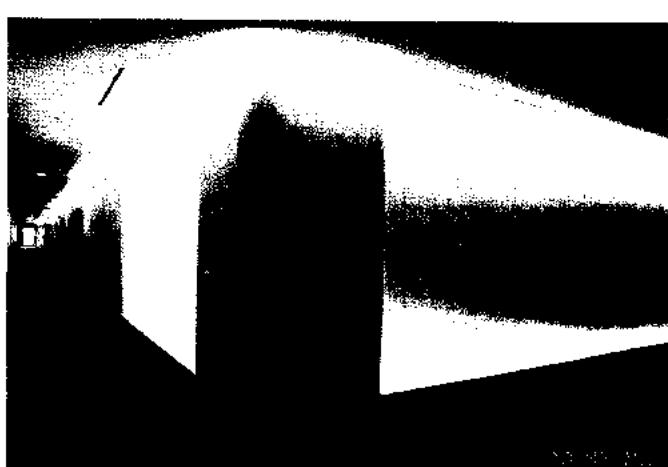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기수동 구내M·G 전경



기수동 구내M·G



3D Arterity 건강관습



3D Arterity 건강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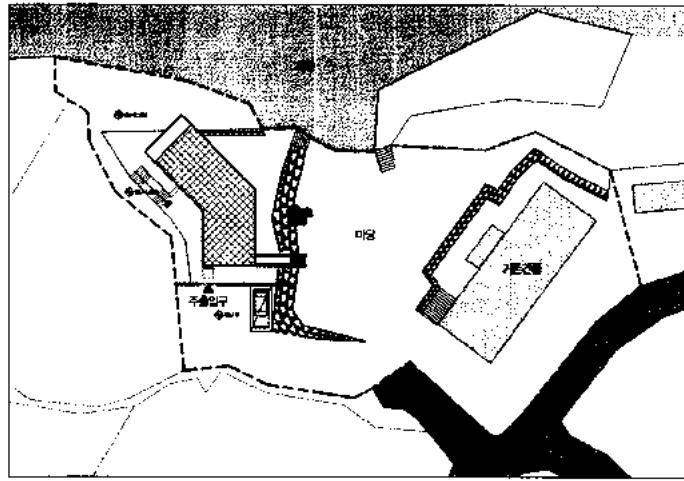
목계리 주택

M House

문철수 / 정희원, 두양 건축사사무소

by Moon, Chul-soo, KIRA

설지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05-1번지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지역구역	농업지역, 농업보호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도면적	단독주택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칼라이엔도강판후레싱
당지면적	780.00m ²	내부마감	서고보드 위 치장벽지 마감
건축면적	106.28m ²	구조설계	두양 건축사사무소
연면적	131.45m ²	설계	진기 찬일설비연구소
간접률	13.83%	사공사	건축주 지영
총면적률	12.47%	설계담당	김형태



배치도

목계리 「평화로운 집」_천주교 서울 교구 사제 휴양원

'목계리는 하동군 청암면에 위치해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곳이 과연 어디쯤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학동'이라고 한다면 금방 '아해 그곳'이라며 금세 반색을 한다.

도인들이 모여 산다는 청학동이라면 얼마나 골이 깊을까?

청정지역 하동… 거꾸로 말한다면 오자… 개발의 손길이 아직 덜 미친 지역이란 뜻인데, 그게 좋은 뜻인지 아닌지 현재의 나로선 정말 모른다. 아무튼 하동은 그렇게 전국적 관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고장이고, 더구나 그 속에서 청학동이 있는 목계리는 필자같이 하동이 고향인 사람도 땜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어는 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가늠이 가지 않는 그런 장소였다.

산청 내대와 하동을 잇는 실날같은 도로와 터널이 건설되면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고 만 비밀의 장소… 목계리에 사제 휴양원을 지었다.

누군가 신심 두터운 분이 종단에 기부한 기증의 건물은, 경사가 있어 몇으로 단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비교적 너른 터에 멋진 물소리를 가진 계곡을 거느리고 있었다.

마당에서 까치불을 들어야 바닥이 내려다 보이는 깊은 계곡 속에는 호박만한 것에서부터 집채만 한 것까지 바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급한 물살은 바위틈을 헤집으며 쑨살같이 흘러내렸고, 계곡 쪽으로 빨여내린 주변의 나뭇가지는 나름 정취를 지니고 있었다.

대지를 둘러싼 삼신봉, 형제봉 산봉우리는 하도 높아 해도 빨리 져버리는 곳. 그래서 여기가 성스러운 지리산의 가장 깊은 공간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기증의 건물은 대지의 가장 좋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요양원은 두 단 아래 마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한단 아래 높인 너른 잔디 마당이 훼손되지 않고 신, 구의 두 건물을 적절히 분리되기도 하고 또한 이어주기도 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 건물이 직접 가지지 못하는 저 아래쪽 계곡의 절경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축대 두단 아래에 높인 신축 요양원의 높이는 가운데 마당 위로 겨우 옥상 난간 정도로만 치솟아 기존 건물이 가졌던 멋진 전망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었다.

가운데 마당에서 계단 서넛만 올라가면 신축 요양원의 옥상과 연계되고, 기존 마당은 더 큰 마당으로 확대된다.

계곡쪽으로 급하게 경사져 내려간 대지 끝부분은 건물의 한쪽 모서리를 오히려 계곡 위쪽 공중으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

완공 후 캔틸레버 기둥으로 밟혀져 계곡쪽으로 빠져나와 들려진 모양을 밑에서 쳐다보니 느낌이 경쾌해 보였다.

더운 여름날 그 밑의 계곡에서 멱 감으며 쳐다보면 분명 눈 맛이 시원해지리라… 상상 속에서 쾌재를 부르며 일시천리로 일을 마쳤다.

대개 괜찮게 끝났다 싶은 일들은 쾌도난마처럼 진행되는 법.

신부님은 처음에 의아해 했으나 금방 공간을 이해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느라 자기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해 의외로 건강을 해치는 신부님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나 만큼 한껏 평화롭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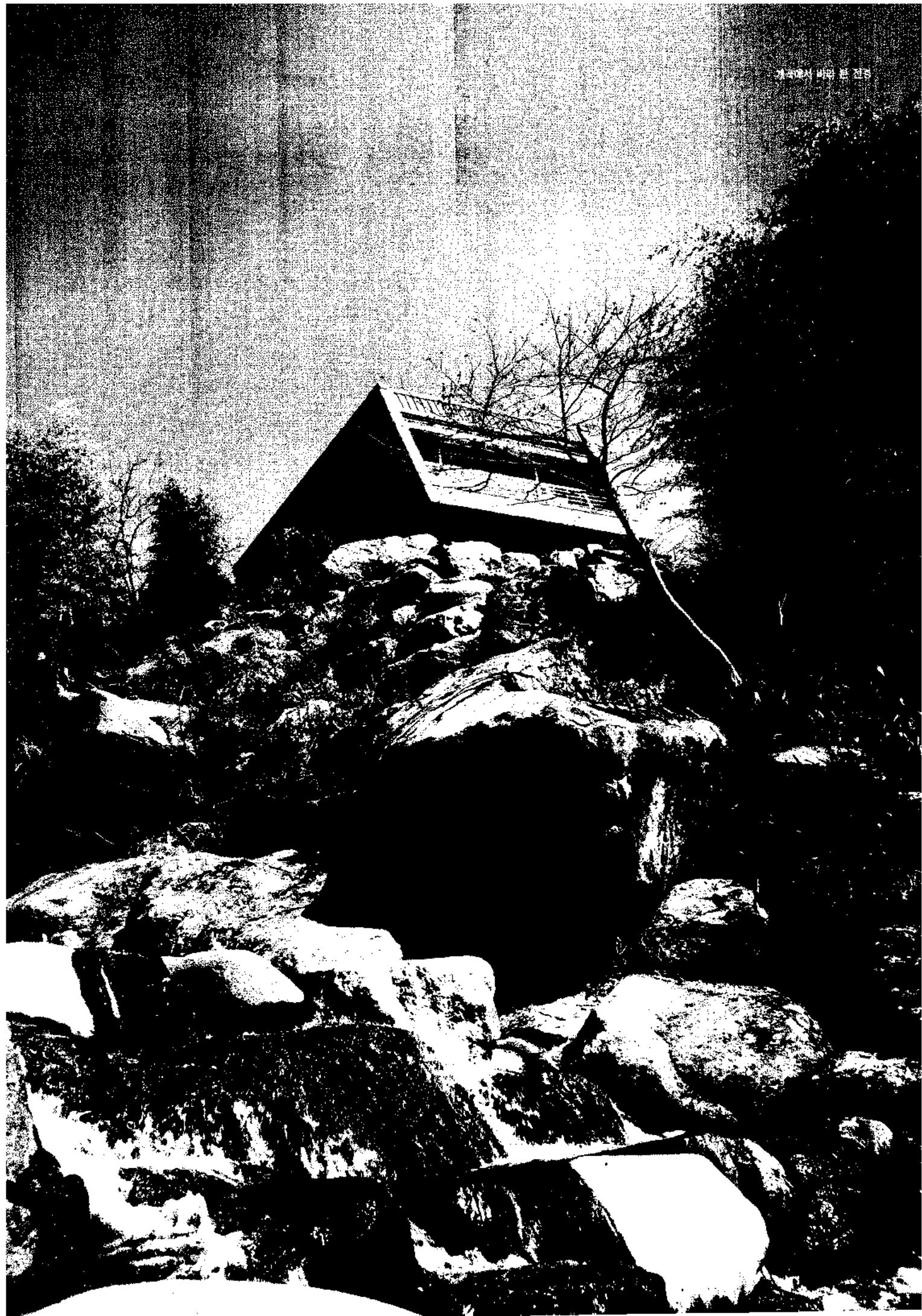
완공 후 이 집에 사실 이해옥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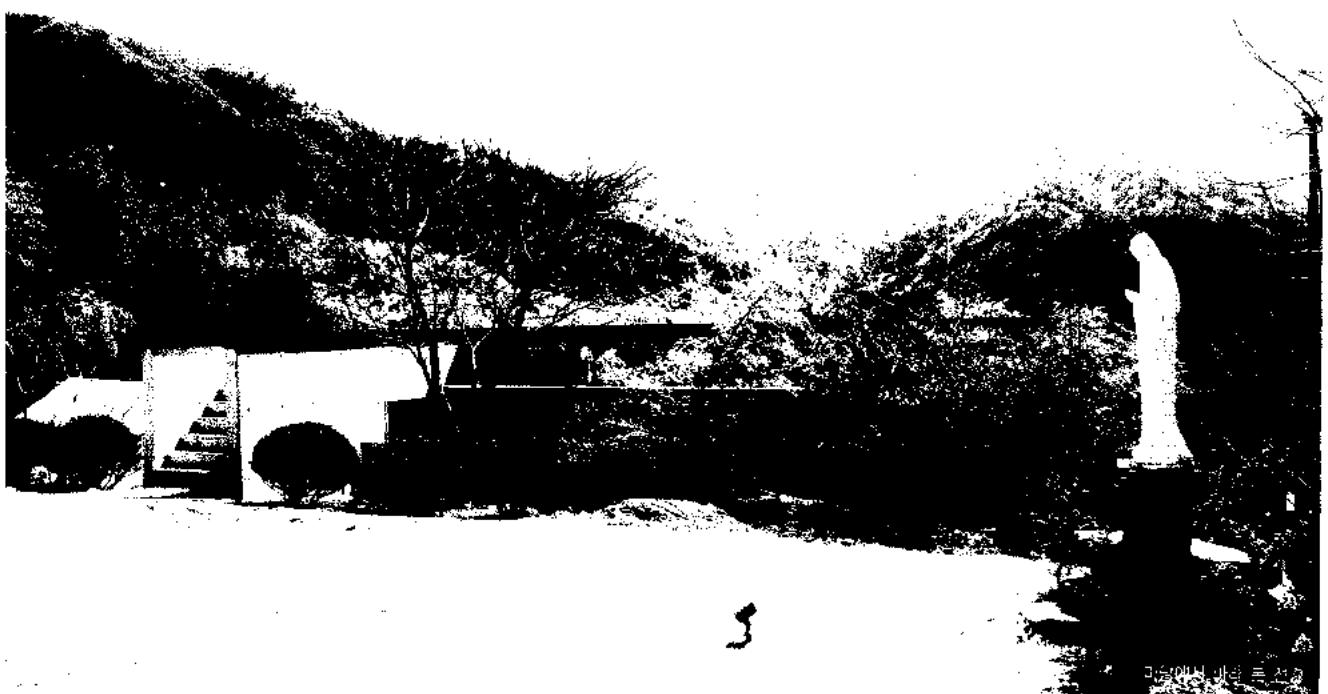
이 깊고 고요한 장소에 살 사람은 평생을 산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직자로 살아 왔고 지금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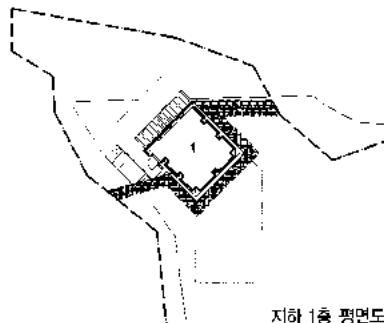
그 분은 이 집을 「평화로운 집」이라 이름 지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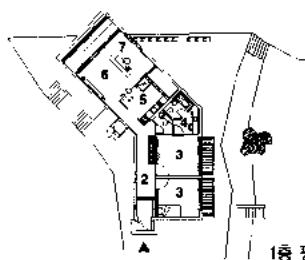
출입문에서 바라본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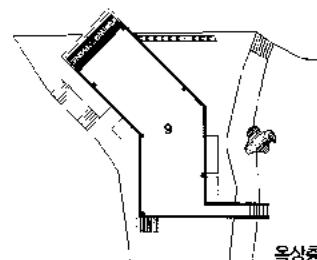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

1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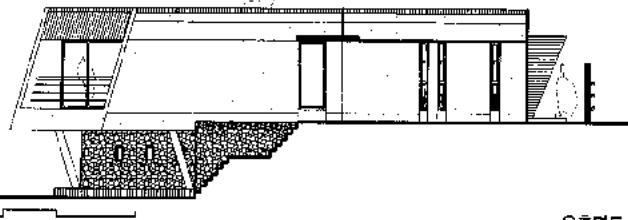
- 01. 포도주 저장고
- 02. 터도
- 03. 방
- 04. 드레스룸
- 05. 주방
- 06. 거실
- 07. 서재
- 08. 베란다
- 09.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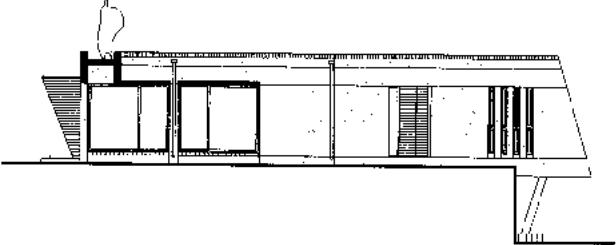
후정 발코니



정관 발코니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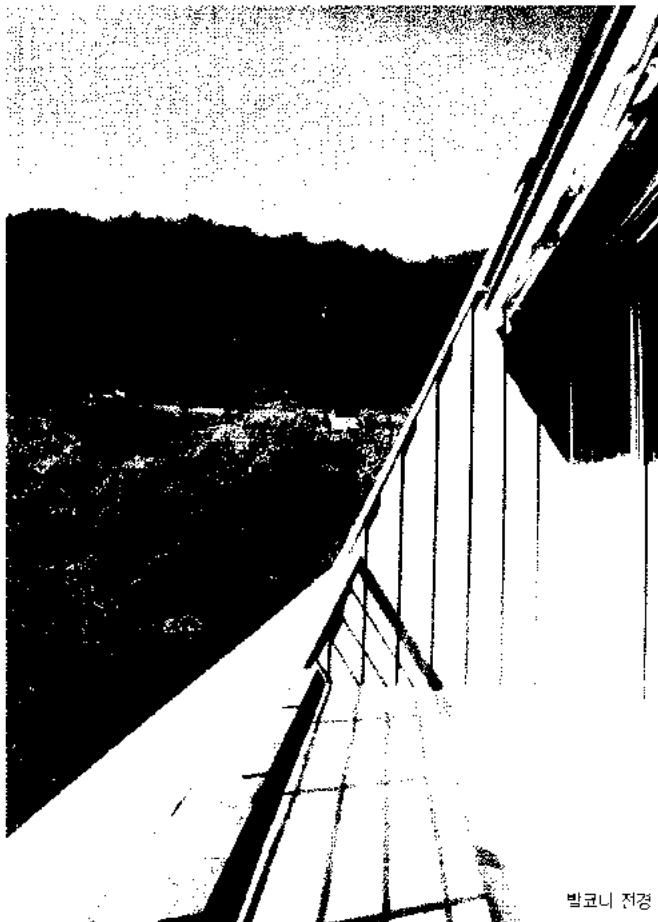


좌측면에서 본 전경

우측에서 본 전경

현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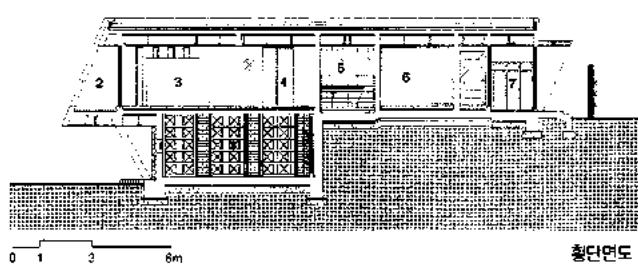
발코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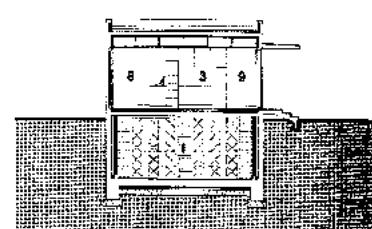
내부 전경



기술 및 세부 구조 및 조건



총단면도



종단면도

- 01. 포도주 저장고
- 02. 발코니
- 03. 거실
- 04. 주방
- 05. 욕실
- 06. 방
- 07. 현관
- 08. 서재
- 09. 복도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 휴먼시아

Paju Unjeong District Housing, Human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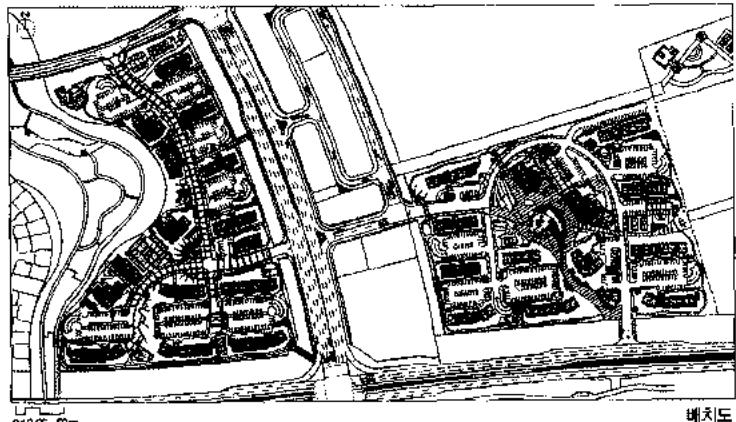
정영관 / 정희원, (주)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

by Jeong, Young-kyoon, KIRA

이종수 / (주)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soo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총 대 수	2,705세대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구 조	한국보크리드부설구조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대 칠	대리석, 수성페인트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판 주 차	한국토지주택공사,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서 금 사	금강건설, 한신공영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설계팀	이석희, 모슬모, 이언미, 김명준, 비동희,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박종호, 이신지, 이우남, 최승연, 최길현,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윤장근, 허현택
면적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내 서 355		



배치도



생태도시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표방하며 도시설계가 진행된 본 지구는 중앙 공원을 구심점으로 녹지가 블럭 사이의 케를 관통하며 퍼서나감으로써 지구 전체가 거대한 녹지로 감싸여진다. 또한 그 녹지와 연계한 수공간 계획으로 생태도시라는 Concept를 충실히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Context를 기반하여 본 계획은 Open-Space와 공원, 가로변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며 진행했다.

본 계획에 해당하는 A1, 3BL은 국문 임대주택단지로 각각 서쪽과 남쪽에 생태 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삼정가로로 설정되어진 40m도로와 접하고 있다. 공원의 중심부 및 균린생활시설 블럭의 보행 녹도가 통경축으로 설정되었고 최고층수는 15층 이하, 용적률 170% 이하의 조건으로 최초 설계가 진행되었다.

대지 수변부의 공원과 단지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공원과 단지간의 보행, 생태 등의 통합 디자인' 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연계는 단지 중앙의 넓은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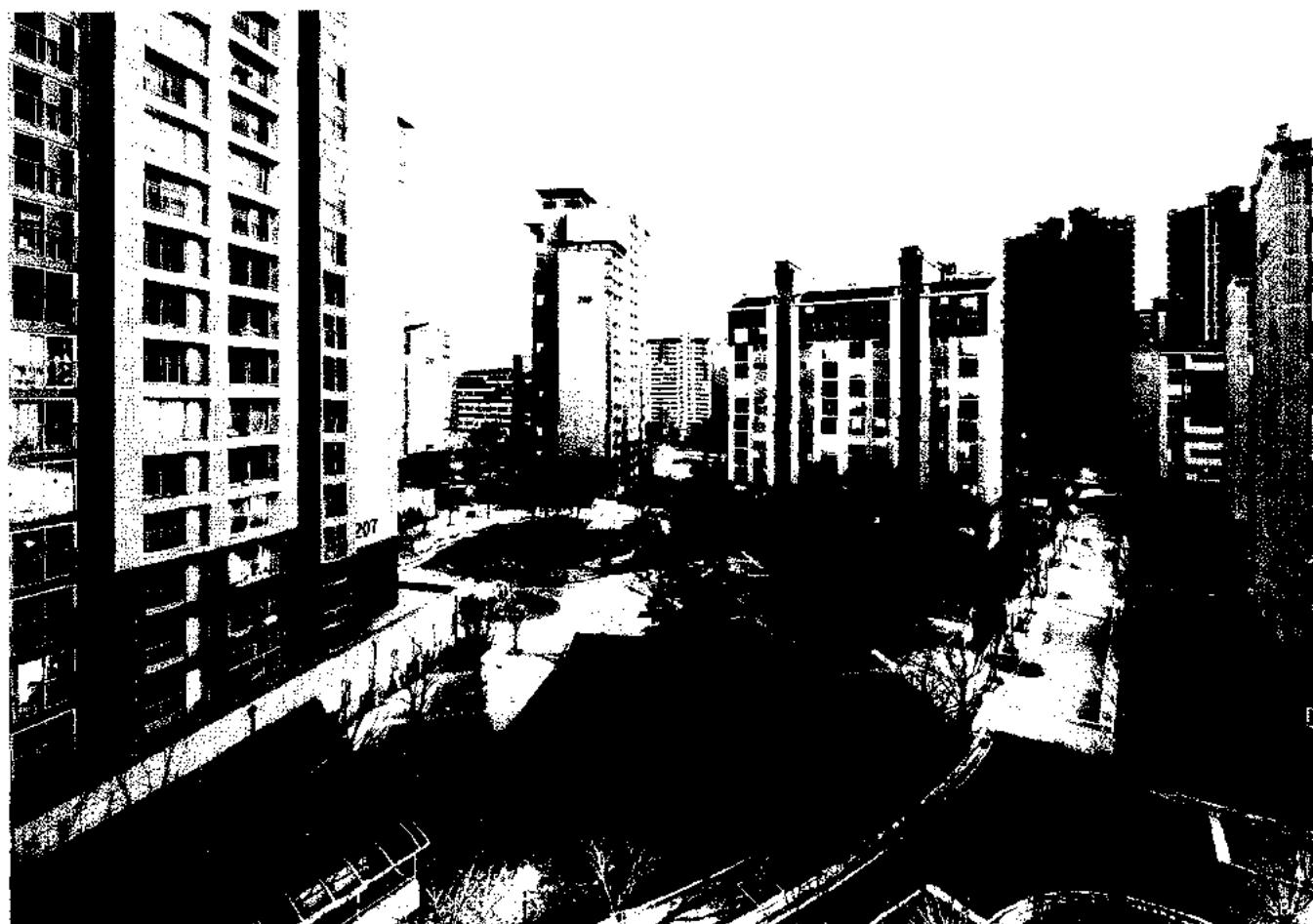
픈 스페이스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도록 했다. 또한 두 단지만이 아닌 주변단지와의 녹지 및 보행로 연결 등을 통해서 거대한 Pedestrian-Band가 되도록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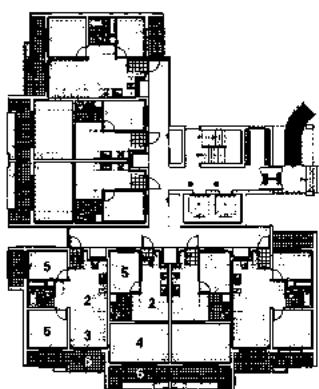
그리고 40m 상징가로와 대응되는 타워주동은 상징가로변에 타원형태로 디자인함으써 랜드마크가 되도록 했으며, 개방감 확보 및 Urban-scale에도 대응하도록 계획했다. 두 단지를 가로지르는 중앙의 35m도로는 생활가로변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들의 시각적 경관을 고려한 Human-scale에 대응하는 8층의 저층 연도형 주동을 배치하였고, 동 사이에 위묘된 공간은 브리지, 지붕 등을 이용해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비록 상위계획변경으로 인한 배치안 변경 및 최고층수 상향으로 최초 계획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기존의 임대주택의 보여진 단편적인 모습을 탈피하기위해 내외부 공간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소통 그리고 Urban-Scale에 대응하는 도시경관 대한 고민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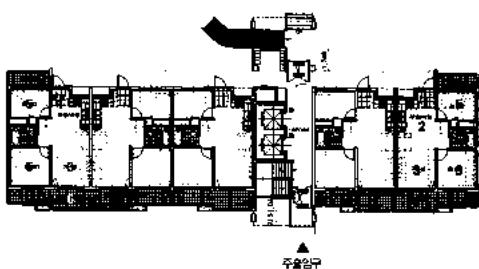


가로마을 주민시아 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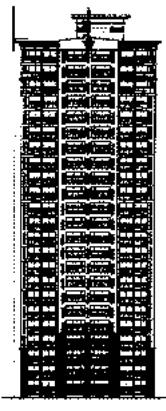
1101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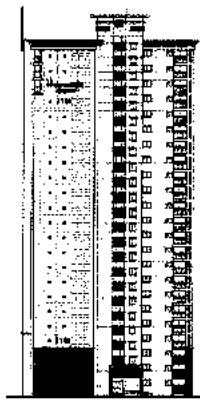
1107동 평면도

- 01_ 현관
- 02_ 주방 및 식당
- 03_ 거실
- 04_ 거실 및 텁실
- 05_ 텁실
- 06_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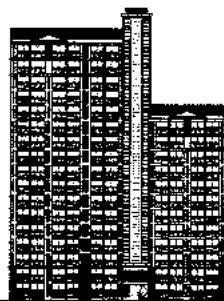




1101동 정면도



1101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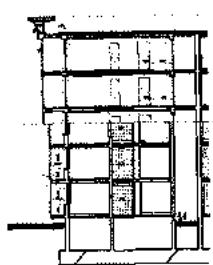


1110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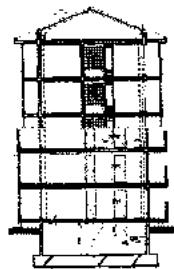


1110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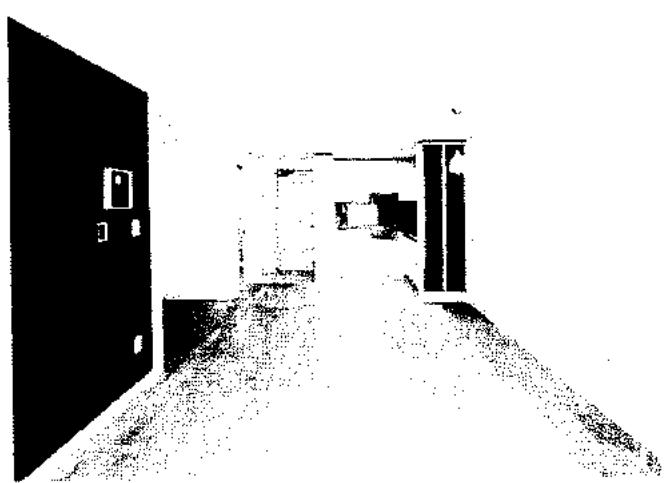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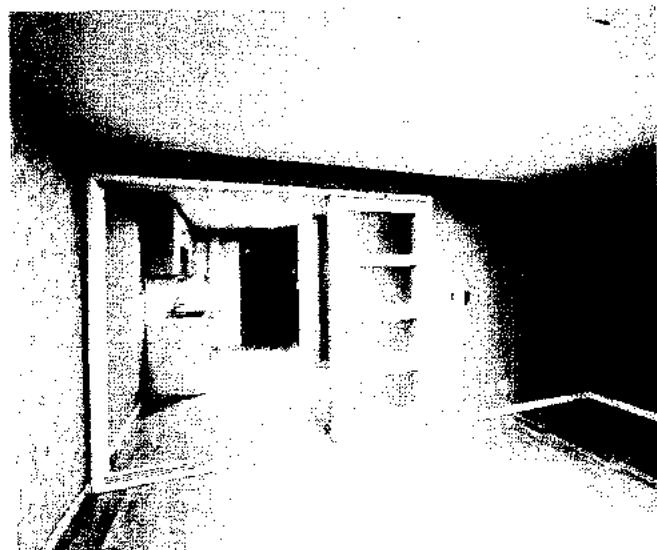
45TA형 주단면도



45B형 주단면도



3BL 주동면도



우리금융 아트홀



신동재 건축사와의 인터뷰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건축을 진행해 온 그의 노력이 매우 존경스러웠다. 공연장을 위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으며, 일부 건축사들이 자신을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건축사였다.

신동재 건축사를 인터뷰하면서, 건축사자의 임무 중 하나가 이런 건축사를 세상에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의 좋은 건축을 기대하며, 또 신 건축사처럼 진지하며, 지속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많은 건축사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안녕하세요, 오늘 이루어지는 본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대한건축사협회의 기관지 '건축사'지에서 소개되는 많은 회원들의 건축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보자는 것입니다. 그간 국내 건축 잡지들이 건축 작품의 작품성 중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분야에 집중하였던 것을 넘어보자는 뜻으로 실무에서의 편집 위원인 저와 학교에 계신 유정훈 교수님께서 한 팀이 되어 시리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유정훈(이하 유) : 부연하자면, 저는 건축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이 잡지가 많은 건축사들이 함께 읽는 내용이나 만큼 나누며 참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 신 건축 사님께서 경험한 일들을 잘 소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 :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건축 건축사사무소의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1,0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한두 명이 꾸려나가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신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

한 규모는 어떤 규모일까요? 결국 규모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 신동재(이하 신) : 우리나라에도 1,000명 사무실이 있긴 하지요. 저도 큰 회사와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파워풀한 면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국내의 설계비 기준이 낮고, 수주 과정을 본다면, 일단 규모가 커야 수주하기 용이하고, 수주하기 용이하면 또 운영하기에 편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수주를 성공하고 나면 비로 이어서 새로운 수주를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사업당 충분한 용역비가 주어진다면 사무실의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급하게 수주를 위해 무리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요. 물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설계비와 그에 따른 업무영역(scope of works)이 소위, 선진국처럼 잘 정해져 있다면 비용과 하는 일의 내용이 정해지므로 1,000명 규모 사무실까지 커질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설계비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적정하게 지급된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수주에 나설 필요가 없어 지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20~40명 정도가 1인 건축사가 혼자 설계하

인터뷰 일자 2010년 3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주)다음 건축사사무소, 신동재 건축사실

참석자 (주)다음 건축사사무소 신동재 건축사 (주)파크아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면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규모를 유지하려면 역량있는 건축사가 적어도 20~30명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들과 소형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니까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자 설계를 의뢰하려는데, 맡길 만한 적절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대략 스무 명 정도 사무실이 50개 있는 것이 1,000명 규모의 사무실 하나 있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 오십 명 규모의 사무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하기는 좀 힘들지요 하지만 그 정도 규모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무 명 정도 있습니다.

• 유 : 그렇다면 40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사무실을 넘어서 파트너쉽이 되거나, 누구 and 누구 이런 식의 사무실이 되겠네요. 뚜렷한 리더가 없이 다수의 건축사가 모인 곳이라면 건축사 개인의 작품성이나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또 포기 될까요?

• 신 : 저희 다울의 경우에도 시작할 때는 파트너가 있었다가 몇 해 전에 분리되었는데, 당시에 저희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파트너쉽의 경우 미국의 과쓰미와 시겔(Gwathmey and Siegel) 같은 경우가 매우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설계하면 한 사람이 크리틱(critic)을 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대신 프로젝트에 대한 크레딧(credit)은 매우 분명한 것지요. 저는 건축사사무소가 대형화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축물이 자기 자식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할 때 모든 운영도 주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역할의 분담으로 기능할지 모르지만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분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양보하기 힘든 것지요. 결국 한 건축사가 30~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에는 수주가 참 힘들어지고 그 규모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서 결국 그 분야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지겠지요.

• 박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울 건축이란 이름을 쓰고 계신네요. 무슨 뜻인가요?

• 신 : 한글 이름입니다. 다울은 '답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이 나쁜 것에는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남자답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어울리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뒤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잘 어울리는 건축을 지향한다는 것이지요. 굳이 영어로 의미를 살펴보자면 'Derive Architecture from Urban Language' 즉, 도시의 언어에서 건축을 도출하시는 뜻도 포함합니다. 또 '을'은 서울에서 따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마스코트 이름이 '다울' 아더라고요. 그곳에서의 의미를 보니까 '다같이 함께 사는 우리'의 뜻이던데요. 뜻도 뜻이지만 발음도 좋고, 부르기 편한 느낌이 있어서 '다울'로 정했습니다.

• 박 : 명함에 보니 감리 컨설턴트라고도 적혀 있는데, 감리전문회사는 아닌가요?

• 신 : 감리전문회사를 했다가 그만 두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었어요. 물론 감리전문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요. 저도 저희가 설계한 김해문화회관과 몇 군데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감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는가?'는 식의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저희 건물을 보호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지난고 나니 별로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회비만 자꾸 내야하고.

• 박 : 그동안 하신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공이거나 준 공공 프로젝트들이 많으셔서 현행법상 직접 감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 신 : 민간 프로젝트였다면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공공은 감리를 별도로 입찰을 통해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입찰할 때 설계한 사람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횡당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게.

• 박 : 설계한 사람들은 그런 횡당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건축주 측에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준에 보면 설계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외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우리 건축사의 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계별 진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 :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기본설계는 엔지니어링이 시작되니까 설계비를 청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요. 물론 그 전에는 협력분야는 자문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설계의 단계는 Process라기보다는 Praxis(관행)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중첩되고 Feed Back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야 설계비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요. 미국에는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발주처도 자신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품질을 확보할 수도 있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지요.

• 박 :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동감입니다.

• 신 : 그러니까 국내의 발주처도 참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텐키 같은 것을 보면 설계사무소를 믿지 못해서 자체 설계팀을 또 가동시켜요. 설계비를 조금밖에 못주니까 다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팀을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비용으로 보면 거의 국내에서는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종으로 비용이 들고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결과물인 건물의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실시설계에서 퀄리티가 만들어 해야 할 텐데…

• 박 : 그렇군요. 설계비를 사실 설계하는데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 총액이 너무 작아 실시설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건 다시 건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네요.

• 신 : 또 재미있는 것은 공공의 건축상 중 어떤 상은 공공건물과 일반건물부분이 나누어서 있어요. 당연한 것이 섞여 놓으면 공공건축이상을 못 받아요. 가보면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조악한 경우가 많아요. 민간건축에선 가끔 잘된 건물이 나와요. 설계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리도 하고, 시공사도 열정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도 건물이 진행되면서 품질을 위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지요. 하지만 공공건축은 융통성도 없고, 계약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건축이 잘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 공공건축은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선 그렇지요.

• 박 : 그렇지요. 공공건축이 모범이 되어야겠어요.

• 신 : 그런데, 왜 민간에서는 평당 500만원으로도 잘 짓는데, 공공에서는 평당 1,000만원으로도 잘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 하지만, 공공에서는 가격을 높여서라도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니까, 민간에서 짓는 건물보다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다른 생각은 공사비가 낮다고 나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짝 하나, 청문 하나만 잘 자정해도 품질이 좋아지는데, 공공에선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박 :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데, 시간상 또 다른 질문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간 15~6년간 사무실을 운영하셨는데, 그간 지내시면서 가장 좋았다는 것과 가장 어려웠다 혹은 나빴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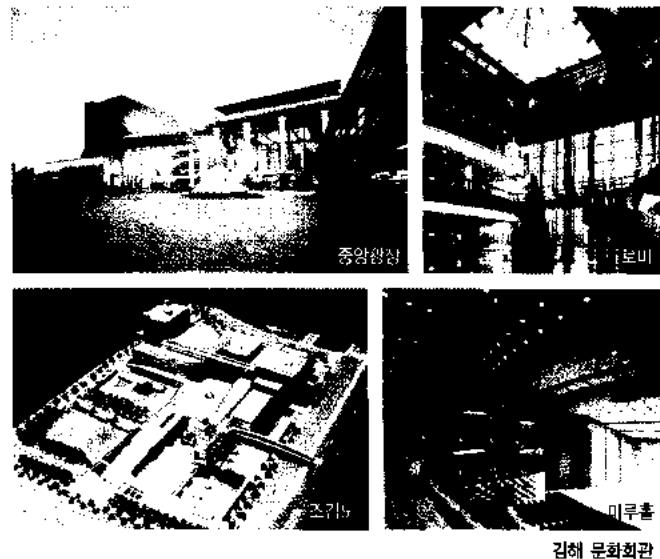
• 신 : 흔히 우리 같은 사무실을 '수렵'이라고 합니다. '농경'이 아니고, 농경을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요. 수렵을 하는 사무실은 일이 잘 되도 문제예요. 어떨 때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사람이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무실도 다 잘되니까요. 또 반대로 일이 없으면 매우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만들 어진 일을 수행하기 매우 힘이 들어요.

• 박 :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어떤 것일까요?

• 신 : 역시 현상에서 당선되는 것이지요. 그간 일 년에 너댓 개는 당선된 것 같아요.

• 유 : 그중 초기의 대표적인 당선작은 무엇입니까?

• 신 : 김해의 김해문화회관으로 1997년도에 현상에 당선하였고,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상도 많이 받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지요. 연면적 13,500평 정도 되고, 1,500석 객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수영장, 빙상장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MBC방송국이나 서울대 학생문화관 등을 했었지만 제가 최초로 대규모 공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소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현상에 당선된 것이라, 아마 빨주처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30대 건축사가 당선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뽑히고 나서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설계가 약 2년 정도 중단 되었지요. 2000년에 재개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스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연구소 건물이 또 하나 당선이 되어서 외환위기를 잘



넘겼고, 문화회관이 중단된 동안에 전 세계의 공연장을 답사할 수 있었어요. 약 20개 정도의 최신 공연장을 직접 보고서 공부할 수 있었고, 당시 지어진 서울의 LG아트센터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장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만일 당시 설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또 하나의 문제작(?)을 만들 뻔 했었지요. 덕분에 공연장에 대해선 많이 공부하고, 김해문화회관으로 봄서는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박 : 혹시 이 사무실이 차별화되거나, 특징이 될 만한 무엇이 있을까요? 설계 작품에서라든지, 마켓팅이라든지..

• 신 : 글쎄요. 우선 특징은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있구요(웃음). 저희는 주로 현상설계를 통해 일을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의 고정고객이 없다보니,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팬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고정고객이 있는 경우는 경제 위기에서는 고객의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함께 나빠져야 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정고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내의 연구동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약 9~10개 했는데, 물론 현상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주)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청사와 복지시설 사택 연구동을 10여 년 동안 15개 정도 현상설계를 통해서 당선되어 진행하였습니다.

• 박 : 혹시 당선되는 확률 같은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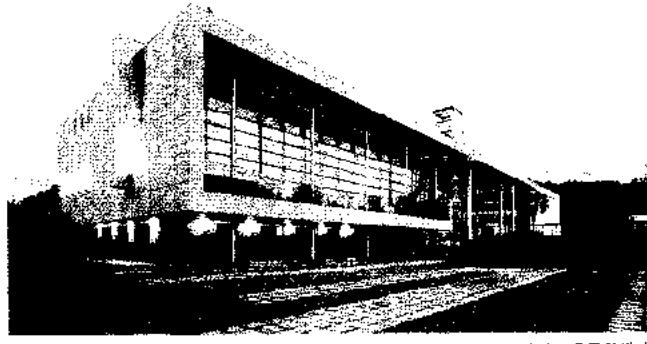
• 신 : 1/2, 1/3정도의 확률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되면 저희 같은 사무실은 어렵게 됩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박 :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현상은 없을까요?

• 신 : 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인데요. 건축학회에서 주는 이원환경건축상의 대상을 수상했었지요.

• 박 : 이 건물은 왜 디올건축에서 중요한 건물인가요?

• 신 : 이게 '친환경' 이란 주제로 건물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대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자는 20,000평정도 되는데, 건물은 3,000평 정도이구요, 전체적으로 물을 재활용하고, 자연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풀어냈지요.

• 유 :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쓰였겠네요.

• 신 : 물론 조경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요. 공조 통로의 쿨 투브(Cool Tube)라든가 자연환기와 목재데크 수평루버 같은 것을 도입 했어요. 실현되진 않았지만 설계시에는 발전소의 온배수를 난방과 수영장에 사용하려 했었지요. 지금은 많은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들이 공연장도 있지만 주로 연구소, 실험실같이 어려운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건축주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전이나 한수원 같은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실시설계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하지요. 저는 불안해서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가가치로 보면 이득이 별로 없는데, 건축을 완성하는 측면에선 스스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 : 당연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외서는 실시설계를 외주처리하는 것이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고, 또 직원들이 실시설계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다율 건축은 어떤지요?

• 신 : 저희 직원들은 그 점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주로 외주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건축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경향인 것 같습니다. 큰 사무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이 부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설계해 지어진 건물에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는 할 많이 많지요. “이게 뭐냐?”, “다음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요. 서로 간에 보면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대부분은 도면이 부실할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 박 : 그렇다면 가장 나쁜 사례는 언제였나요?

• 신 : 요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수주도 그렇고, 경제위기 여파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축계가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학생들이 희망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 이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 박 : 아~ 건축분야 졸업생들 말씀이군요.

• 신 :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잘 닦아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처럼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Role Model이 없는 거지요. 뭐 선배들이 설계 잘한다고 하면 교수가 되어있거나,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물론 그게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해서 자기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있다 해도 운영이 잘 안되어 매우 어려우니 학생들이 희망이 안 생기는 거지요. 저런 선배도 잘 안되는데, 나라고 잘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졸업할 때만 해도 취직에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일 좀하다 면허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면 지역의 유치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류의 막연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참 어려운 거지요.

• 박 : 동감이 많이 되는데요. 혹시 직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어떤 직원들이 바람직한 좋은 직원이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신 : 글쎄요 뭐 직원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 직원이 잘되면 회사도 잘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훌륭한 직원이라 하면 스스로 자기할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래야 서로 원·원 할 수 있거든요.

• 유 : 하신 작품들을 보면 공연장으로 매우 특화되신 것 같은데, 김해 문화회관 당선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연장이라는 게 그리 많지 않았던 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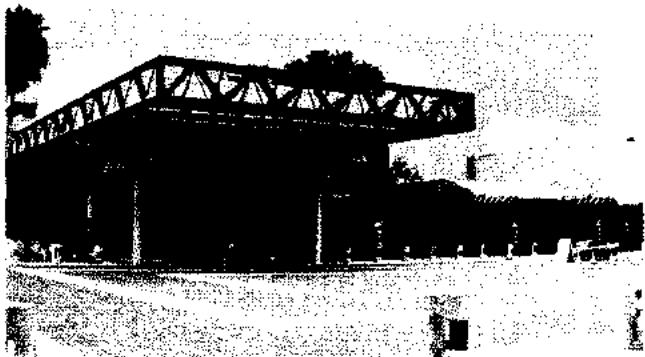
• 신 : 제가 1995년도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일간에 7년 있었고, 일간에서 나오기 전에 박사학위를 시작했지요. 서울대학교의 김진균 교수께서 지도교수셨고, 논문은 10년만인 2004년도에 썼는데, 주제가 공연장이었습니다. 국내 공연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화관이란 것들이 사실상 기능을 잘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될수록 공연장에 대한 욕구는 원초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는 부모와 학생들이 주말에 연극 같은 것 보고 토론하고, 일본의 경우도 퇴근하고 콘서트 보고 집에 가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에 적절한 공연장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같은 것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요. 영화에 밀리는 연극처럼 오페라 같은 것이 현재 시장에서 뮤지컬에 밀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매우 많은 인원이 출연하기 때문에 관객과 출연자 수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페라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 국가에 오페라 틀 하나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연장이 전문 분야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참 걸리는데….

• 박 : 그렇다면 먼저 건축 이야기에 집중하고 문화적 이야기는 시간이 허락되면 하기로 하지요. 조금 전 김해예술회관 설계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전 세계의 공연장 순례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보셨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 신 : 우선 LG아트센터를 많이 참고 했고요. 관련해서 음향 컨설턴트들을 잘 알게 되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대음향 컨설턴트가 ARTEC이란 곳과 TPC란 곳이 있어요. ARTEC은 음향위주의 컨설팅을 하고 TPC는 무대전반적인 컨설팅을 하지요. 그 중 ARTEC이 컨설팅 했던 곳을 중심으로 답사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신국립극장도 3번



리빙 아트센터



탬파베이 Pac1

가령 가 보았고, 미국의 뉴저지 파포밍 아트 센터(NJPAC), 터론토에 있는 리빙아트센터, 플로리다의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크라비스 센터(Kravis Center), 탬파베이(Tampa Bay)의 모사니 홀(Carol Morsani Hall) 등 주로 비슷한 규모의 섹션적 다목적 공연장을 보게 되었어요. 유럽의 공연장들은 주로 전문공연장인데 비해 미국의 공연장들은 종합공연장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예술가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 그 수가 유럽에 비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종합 공연장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박 : 그럼 김해예술회관도 ARTEC과 함께 진행하셨나요?

• 신 :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 분들이 컨설

팅 비용을 견삭했는데, 제가 반은 설계비 총액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전진용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분이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때 전 교수님과 1/10 응향 모델을 국내최초로 만들었고, 비용이 없어서 공사비에서 충당 했었습니다. 순수한 의욕이 가득 찼었지요.

• 박 : 이제는 오늘의 주요 이야기거리인 '우리금융 아트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게는 매우 재미있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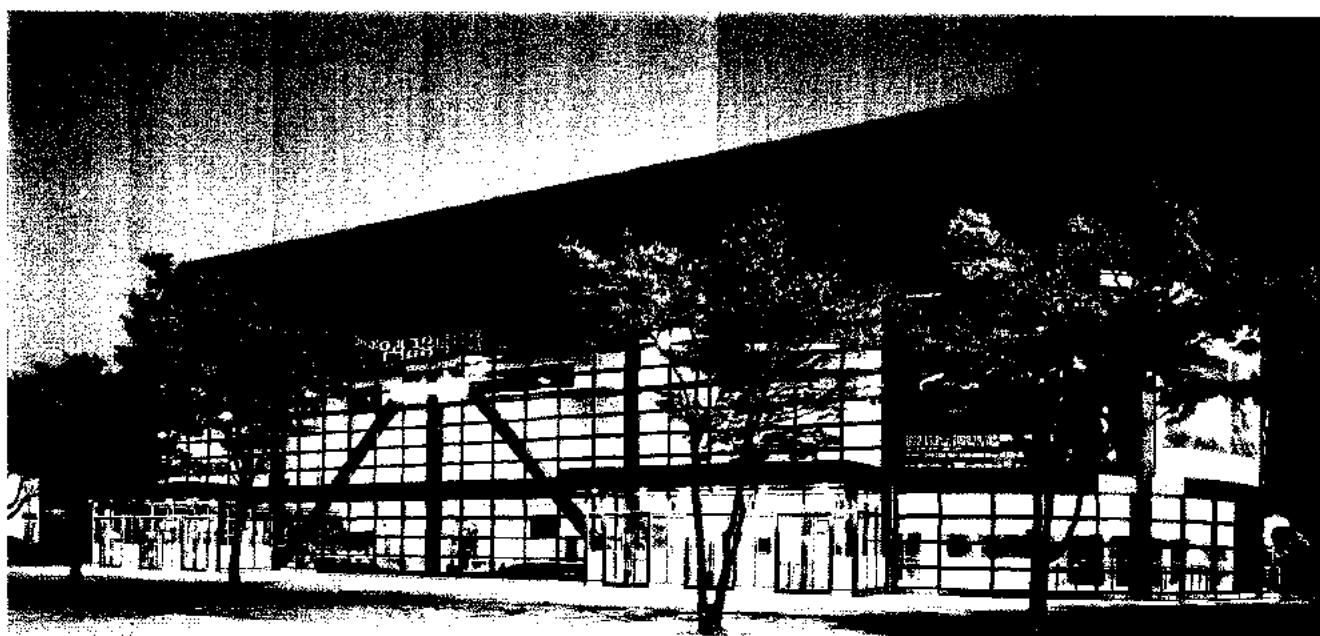
• 신 : 이게 원래 김종성 선생님이 설계하신 건물이고, 탁월한 디자인과 구조로 국제적인 큰 상도 받고 했던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형을 건드리지 않고 친환경하는 것이 설계 지침이었습니다. 지침에서 공연장에서 중요한 플라잉 타워도 현재 건물의 지붕선 이하에서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연장 입장에서는 플라잉 타워가 높아야 좋았겠지만 그 이내에서 계획한 것을 봐도, 기존 건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던 설계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의 내부에서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게 신축보다 두 세배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박 :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비도 리노베이션이 훨씬 높지요.

• 신 : 하지만 이 경우 설계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현상을 한 것이고, 발주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습니다.

• 박 : 그렇다면 이 건물의 이름을 '우리금융 아트홀'이라고 쓰는 이유는 관리, 운영주체의 이름을 딴 것인가요?

• 신 : 처음부터는 아니구요, 어느 정도 후에 발주처에서 건립비를 충당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네이밍을 상품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건물이름을 쓰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금융회사에서 문화에 기여하는 충보를 효과적으로 잘 한 것이죠.



우리금융 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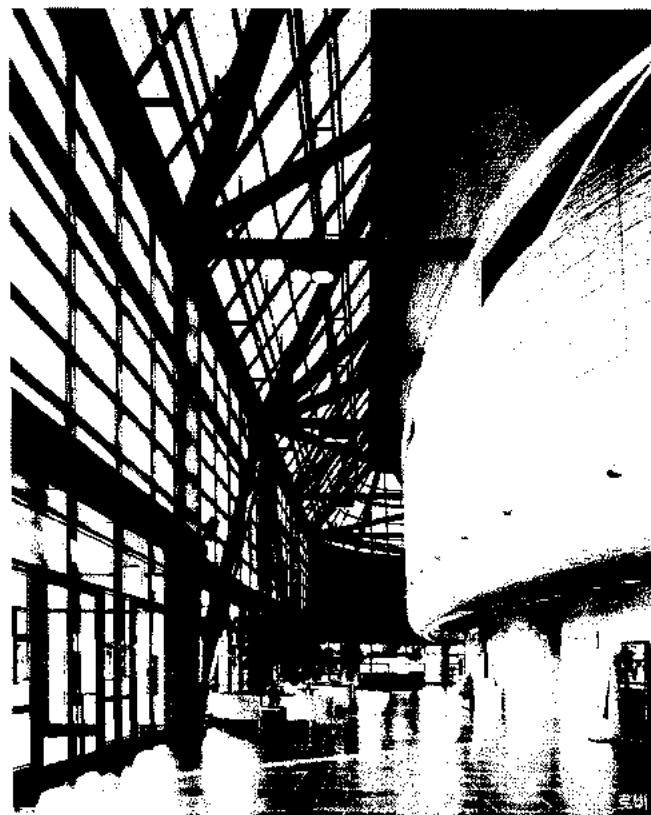
- 박 : 이 일은 누군가 기획을 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기획하였던 분들이 이 건물의 위치나, 도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었나요?
- 신 : 예전 공연장 자리로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역도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요.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경기장들은 객석이 둘러쳐지고, 경기장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도경기장은 처음부터 한 쪽 방향으로 경기장이 치우쳐져 관람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설계를 시작할 때는 처음 시어졌을 때 보다 많아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상부창이 구조가 노출되고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는데 역도경기를 하다보면 석양이 선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전체적으로 천정을 만들어 채광을 막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성한 해결책으로 변형되었던 거지요. 다른 기본적인 조작은 제가 보기엔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로 확인이 되었어요. 단위면적을 덮는 일체 트리스를 이용해서 투입된 철의 양이 매우 적었던 구조체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문화시설을 두겠다고 하여 전 그 생각에 매우 찬성하는 바였습니다. 현재도 SBS에서 녹화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선 주로 스포츠 관련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도경기를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이 녹화장 덕분에 공연장에서는 뒷무대를 사용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곳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공연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연계가 편리했어요.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도 유리하고,
- 유 : 유증 이 건물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 신 : 지금 뮤지컬 '선택여왕'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를 매우 적게 쓰고 진행했어요, 대략 150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가구까지 모두 포함되었어요. 면면적이 3,000명 정도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제 평소의 생각으로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할 공간이었어요.
- 유 : 지금 올림픽 공원 내에 이 건물 밀고, 세종경기장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 신 : 기본적으로 체육관들이 전부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내중가수 공연이지요. 주로 전기음향으로 처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하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유 : 치열한 경쟁에서 신 건축사님 안이 당선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 신 : 글쎄, 제가 설계를 합리적으로 질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안들은 약간 비틀기도 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의 안은 기존 건축을 구조적으로 잘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논문 주제야기도 한 인티머시(intimacy)이거든요. 공연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인티머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국의 공연장을 보면 그 평가에서 'great intimacy'라는 표현이 최고의 평가로 자주 사용되고 그 느낌에 끌리게 되어서, 공연장 공부를 할수록 그 궁금증이 매우 커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학위 주제로 삼았습니다.
- 유 : 기본적으로 공연장이라는 게 공연을 하고 관객이 그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인티머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 신 : 제가 인티머시를 공연장에서 정의한 게 물리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배우와 관객의 인티머시가 있지요. 매우 가까워야 해요. 공연의 내용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관객과 관객의 인티머시예요. 서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영화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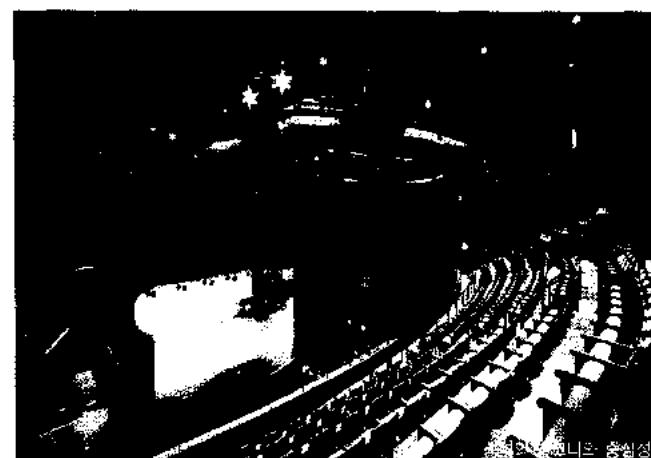
기존 역도경기장 로비



기존 역도경기장 내부



로비



서울시 종로구 충정로

우리금융 이트홀

것이지요. 영화는 다른 관객이 장애물이지요, 개인이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 때는 화장도 안하고 모자 쓰고 가게 됩니다. 관객 상호간 일어나는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화면 잘 보아는게 제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공연은 관객간의 친밀도를 높여 입체적인 인터미시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와 관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객과 관객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를 보다 즐겁게 다시 배우가 힘을 받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와 관객입니다. 공연장은 너무 모던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장식이 좀 있어야 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공연은 영화와 달리 공연 중에도 객석에 약간의 전등을 켜둡니다. 약간 음침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 유 : 캣츠(Cats) 공연을 보면 객석 쪽을 모두 걱정으로 바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의 분위기상 문제겠지요…

• 신 : 맞습니다. 인터미시란 측면에서 관객과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객과 관객과의 관계를 본다면 객석이 똑바로 가면 안 됩니다. 훠어져야 서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객석수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관객 상호간 반응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객석의 호응이 나오면 매우 직접적으로 모든 관객이 반응하게 됩니다. 소위 '단폭다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발코니들이 오래된 극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 유 : 그렇겠지요. 외국의 고전적인 극장들에서 그런 발코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신 : 공연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방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대가 주도적이어서 객석에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연입니다. 관객을 우민 취급하는 것입니다. 무대가 관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하나 즉, 바로크 귀족들이 한 것은 무대보다 관객이 우위에 있었던 거지요. 귀족들이 무대를 내려다 보고, 상호 즐겼던 것이지요. 그러다 근대건축에서 민주적인 극장들이

있었고, 다시 현대에선 네오 바ロック식 극장이라 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니까 귀족처럼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말굽형 극장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호 교감이 매우 좋은 형식이지요.

• 유 : 국내엔 말굽형 극장이 없지요?

• 신 : 없어요. 공연문화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극장의 형태가 많고 영미쪽에는 옛 바로크식 극장이 많이 있지요. 세가 보기에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의 극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대장치는 화려한데 관계의 교감은 약하지요. 교감은 발코니 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간도 너무 드라이하지 않게 장식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는 건축사에게 맡기고 내부는 무대를 선분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유명 건축사가 설계한 극장치고 잘된 게 별로 없어요. 자기주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극장 전문가들이 하면 외부는 모던 하더라도 내부는 다정하게 만들거든요. 저희 당선안을 보시면 객석의 중심에 둥그런 천정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이 객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장소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유 : 뮤지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 신 : 뮤지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래 저는 이것이 공연예술 중에서 좀 등급이 낮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시대에 뮤지컬 같은 공연예술은 각광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뮤지컬은 시장에서 경비를 줄여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페라나 클래식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가수나 배우들도 매우 비싸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어야 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요. 하지만 뮤지컬은 배우를 줄이고, 또 전자음향을 주로 사용함으로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티켓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환경이 됩니다.

• 유 : 무대장치를 위한 시설은 어떻게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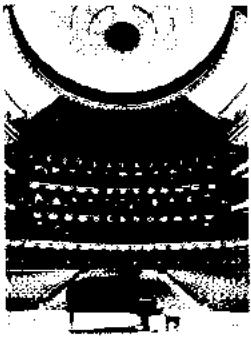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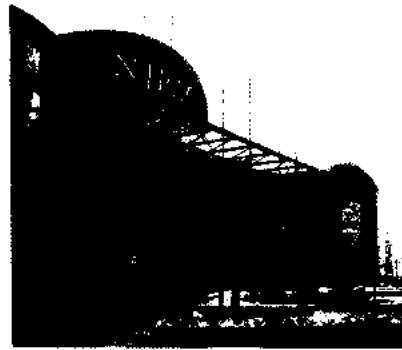
• 신 : 모든 인프라를 저거하여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공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회전무대 등을 공연 기획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둔 것이지요.

• 박 : 이 건물의 리노베이션은 기초를 더 내리진 않았나요?

• 신 : 다행히 체육관이라 내부에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파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기초를 하부로 더 내려서 무대하부와 객석 하부 급기를 위한 깊이가 확보 되었지요. 무대는 하부공간만 만들고 조립식으로 무대 바닥을 만들었지요. 비싼 무내상자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비를 낮추는 대신, 연출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플리잉 타워의 배튼은 좀 아쉽습니다. 타워 안에 배튼이 꽉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빈 밖에 못 채웠거든요. 나중에 넣을 수는 있지만 당장 공연하는 분들은 아쉬워하지요.

• 박 : 혹시 이 프로젝트가 공공프로젝트이니까, 설계비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 신 : 예, 대략 칠억 오천만원이었는데 너무 적았습니다. 그 안에 건축용량과 무대 컨설팅비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었지요. 설계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 손해가 날 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무대 컨설팅비를 책정한 건 잘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무대와 음향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안 좋은 상황이 설계비를 산정할 때 컨설턴트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지요. 그렇게 되면 전자음향, 무대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막 제안해요. 그리고선 자기네 장비 넣으려고 노력하지요. 중요 컨설턴트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발주처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Nipac

• 유 : 이 건물의 설계비를 책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 신 : 총 공사비에 대비한 비율로 설계비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5% 가 채 못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행하며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설계비가 따라서 올라가진 않았고요. 신축설계보다 훨씬 고생했지요. 구조 트러스를 전부 잘라서 다시 벽에 고성했고, 구조안전진단도 했습니다. 공사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벽을 먼저 만들고, 그 벽에 트러스를 붙이고 나머지 트러스를 잘라야 했으니까요. 리노베이션이니까 그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돼요. 또 천장부분은 경량천정이라 슬라브를 새로이 쳐야 했지요. 공원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서 차음도 해야 했거든요. 아주 힘든 설계였지요.

• 박 : 그럼 계약하실 때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셨나요. 혹시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쓰셨나요?

• 신 : 정부에서 쓰는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 박 : 그럼 협회에서는 그 계약서를 리뷰 해야겠네요. 공공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니 민간에서도 사용하기 참 어렵겠군요. 그런데 현상설계에서 설계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신 : 공사비 요율에 맞춰 협회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 그 요율에서 계획 설계비 부분을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현상안을 제출했으니 계획 설계는 완성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유 : 시방에 잘 안 쓰이는 공연장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뮤지컬 전용관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어느새 우리나라도 뮤지컬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 신 : 선 모두 고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음향을 잘 사용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공연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량이 좀 부족해도 커버되니까요.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매우 다릅니다. 정식 오페라 극장은 운영이나 건립이 매우 어렵지요.

• 박 : 국내에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 신 : 세종문화회관은 곤란하고, 예술의 전당 오페라 흥과 지금 계획되는 노들섬 등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적인 조건이 모두 아쉽습니다. 뒷무대가 더 커야 합니다. 생음악을 하기 때문이지요. 뒤에 바늘이 내려오면 천이다 보니 모두 흡음됩니다. 그런 소리가 피지

질 못해요. 오페라에서 성악가의 육성을 쓰아주려면 일종의 반사벽인 무거운 세트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전환하려면 무대 하부와 측면, 후 무대 등 방대한 면적과 기계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되지요.

• 유 : 뮤지컬도 공연장이 여러 군데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브로드웨이처럼?

• 신 : 예, 샤롯데, 엘지아트홀 등에서 뮤지컬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방공연을 이어서 하면 수익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금융 아트홀도 뮤지컬 장기공연이 가능하고, 일부 무대장치들을 변경해서 다양한 무대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장은 융통성, 가변성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각 다른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뮤지컬 전용 극장은 새로운 분야이지요. '캣츠' 공연장 같은 것은 아예 한 공연을 중심으로 건축을 해버린 거지요.

• 유 : 신 소장님은 라이브 음향이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 신 : 물론 음향이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지만,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더 바랍니다.

• 박 :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마운 분이거나, 감사하는 내용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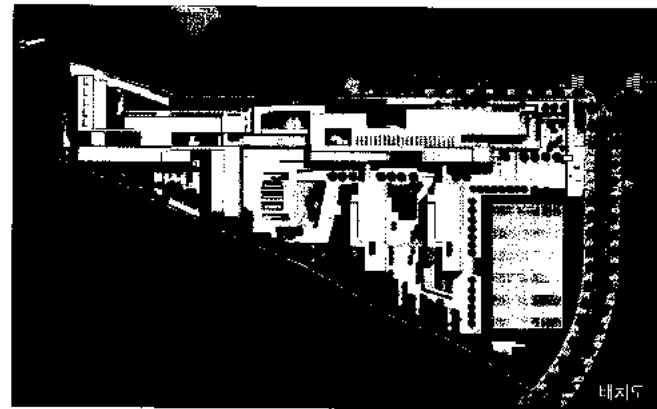
• 신 : 이 프로젝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강종호 실장님 같은 경우, 또 안형준 대리님이 설계자와 함께 많은 이해를 나눴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진행할까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입찰에 의해 지방업체인 남해종합기기�이 시공사로 참여하였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난공사를 매우 잘 진행하였습니다. 감리하신 건정건축도 설계자의 요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 문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몇 번 방문하여 관심 가져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종성 선생께서 체육공간으로 만든 건물에 새로 문화시설을 채워 넣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계속 가서 감리 아닌 감리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유 & 박 : 상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장과 또 신 건축사님과 다음 건축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신 신동재 건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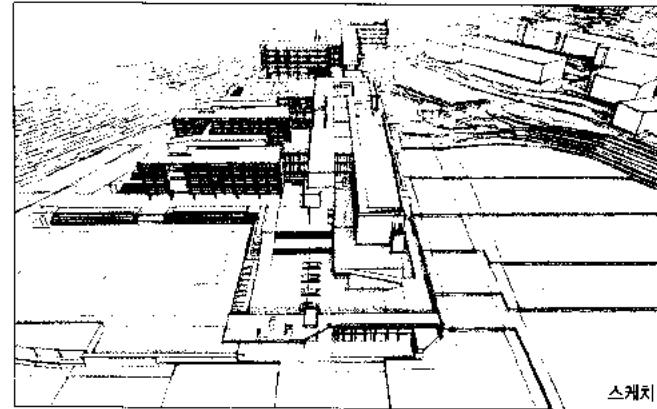
인천 하늘고등학교

Incheon Haneul School

이용선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by Lee, Yong-sun, KIRA



비지도



스케치

제작업자: 인천광역시 동구 문서동 570번지

외부마감: 단층상당시멘트페인트, 디티늄아밀판

사업자구분: 민간설계자문그룹의 설립자구, 영업면허증 등록

기획·설계: KIRA(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주요용도: 교육(한국어)(교습교육)

설계특기사항: 특별설계

대지면적: 30,757.00m²

구조설계: 보통구조

건축면적: 11,703.85m²

전기설계: 단속설계

면적률: 32.088 0.85%

기계설계: 단수(한국환경설계)

건폐율: 50.07%

산호: 단수(한국환경설계)

총 면적률: 7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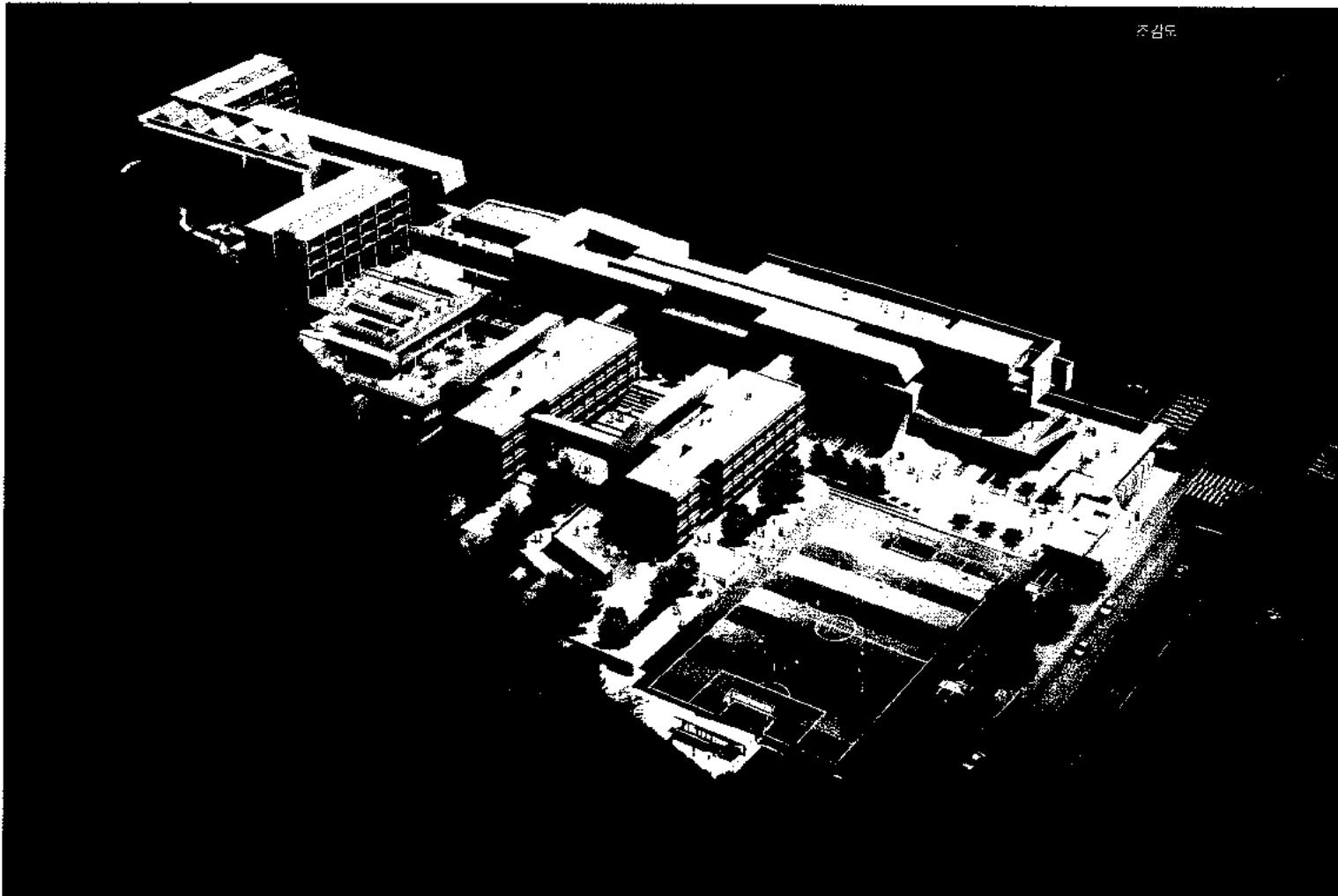
설계단체: 사용인: 창체원, 홍성원, 강현원, 김은설

면적률: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자: 소현수, 김민석, 신윤재, 남재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설계일정: 이종권, 이자연, 이동화



조감도

'자연의 가르침'의 교육

교육은 '백년대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늘 논란이 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역량 또한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70~80년 대의 학교 교육은 혼란스러웠다. 많은 수의 학생과 규율화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보다는 일정 교육수준의 달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교 또한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 변화의 요구에 2009년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계획의 하나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를 추진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세대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학생 본연의 창의성을 실현시키며, 교육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꿈'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학교이다. Site는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백운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대지가 가지고 있는 활기찬 공간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인간과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그 교류의 장으로서 자연이 함께하는 감성공간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 그러한 공간들의 존재는 우리를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이었다. 계획의 가장 큰 숙제는 내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공간을 삽입하는 일이었다. 교육공간과 매개공간, 생활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생각으로 발로는 지금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그 교육환경은 그자 좋은 시설과 우수한 기자재만을 제공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으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흐름과 그 흐름의 우연성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 이벤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연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제공도 큰 의미에서는 포함될 것이다.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교육 속에서 얻는 배움보다 더 큰 가르침이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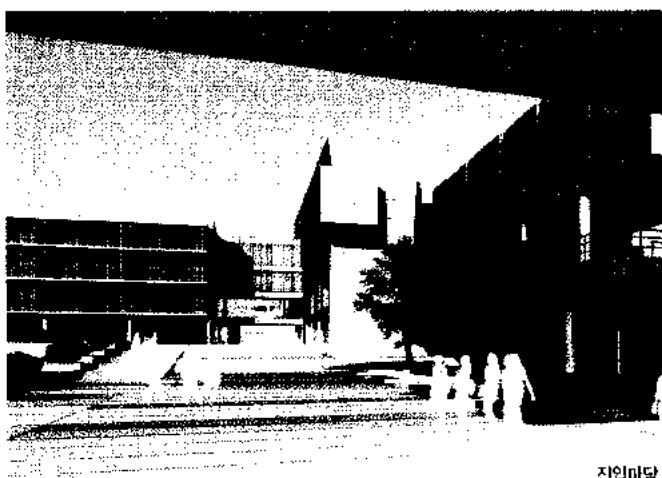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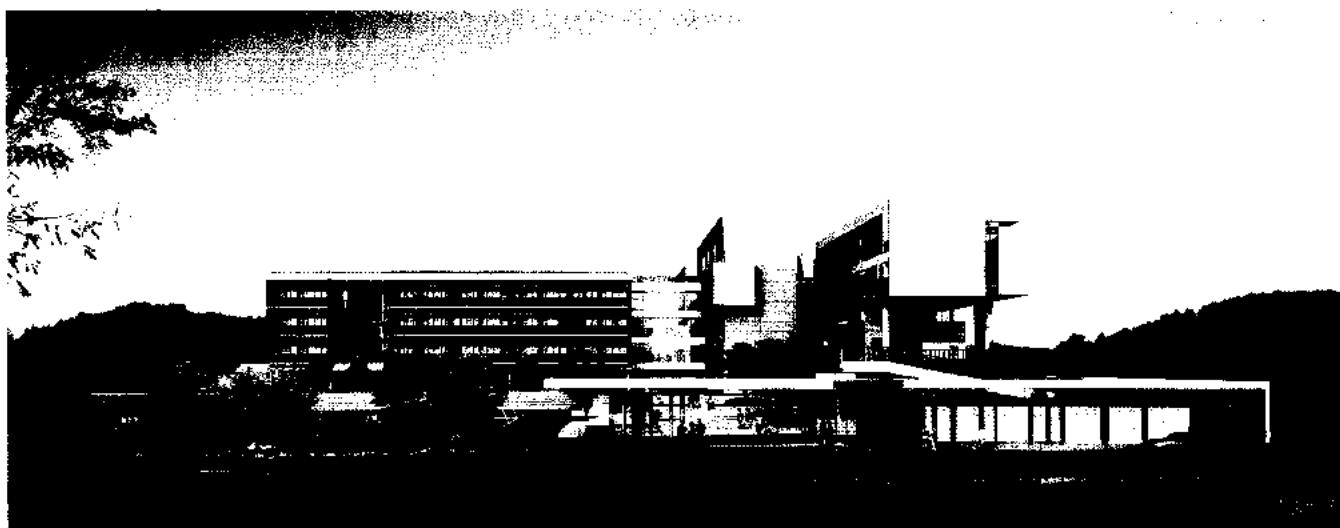
자연경관과 지형이용 기준 자연 경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배치와 매스의 형태 그리고 지형의 이용을 고려하였다.

입지현황 부지는 서쪽으로 공항신도시와 연계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인천교육연수원과 궁금정사 예정부지가 인접해 있다.

배치 남북으로 뻗은 특별교사동과 관리영역의 형태는 일반교육과정을 담당할 영역과 학생들과 교사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사선입부에서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세에 순응하며 도시경관의 일부로써 학생은 물론 주민의 공공적 편의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진입마당을 시작으로 교사동, 체육관, 식당, 기숙사 등의 각 시설을 잇는 가로수길을 중심축으로 하는 외부동선과 지형을 따르는 레벨이 다른 데크들을 영역간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게 배치하여 사용자의 이동편의와 사각 폐쇄적이기 쉬운 교사공간의 쉼터로써 편안한 교육밀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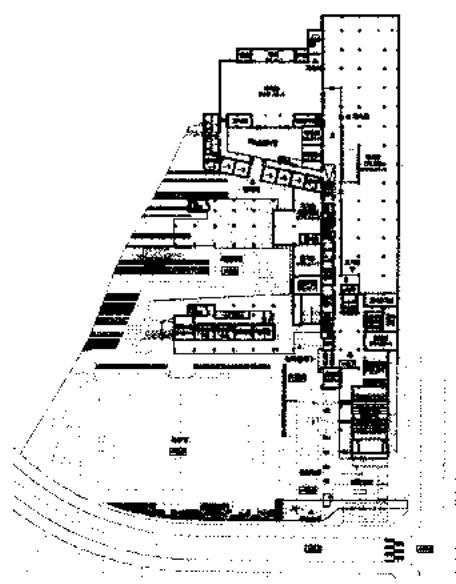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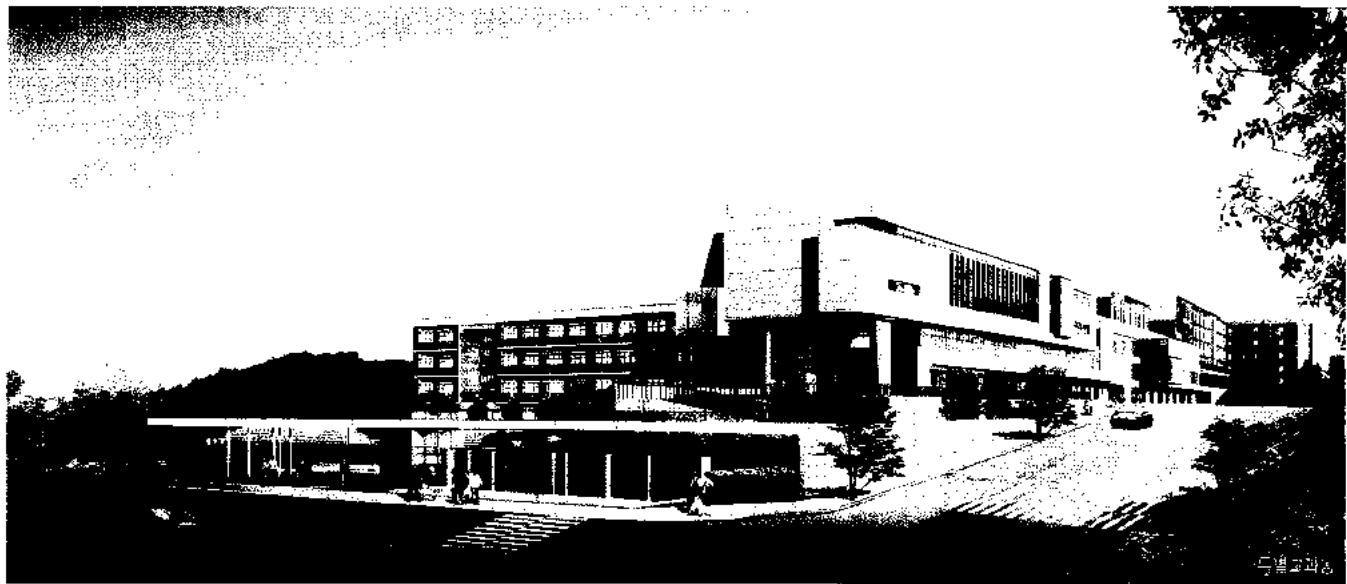
친환경 향과 낮의 유입을 고려한 개스의 분리, 기존 토양과 식생을 최대한 유지하고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친환경 시스템 기술로는 지열,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로에너지 개념에 근접하도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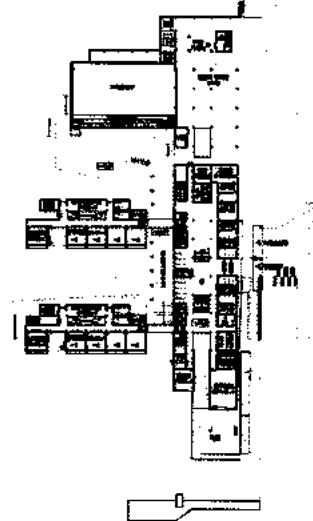
진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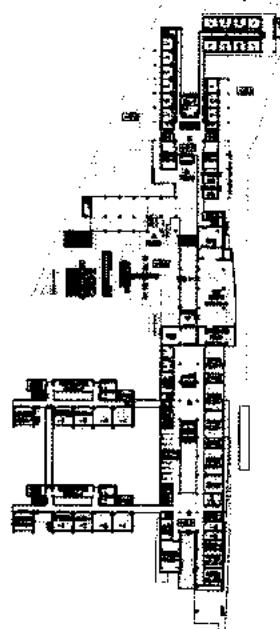
체육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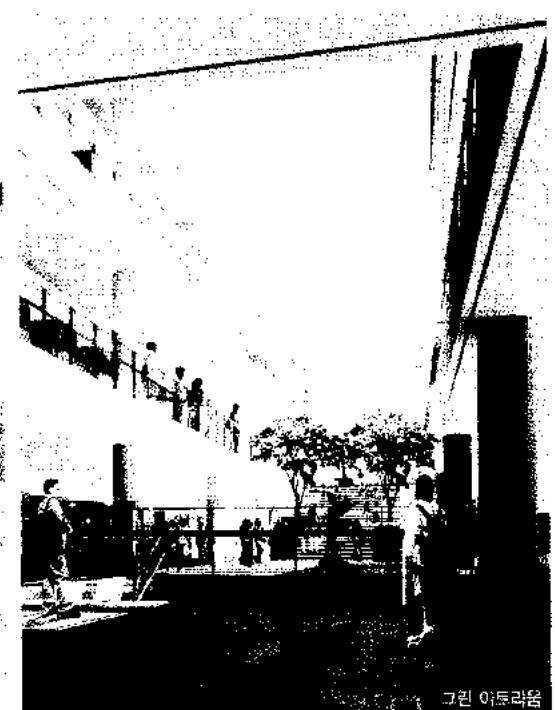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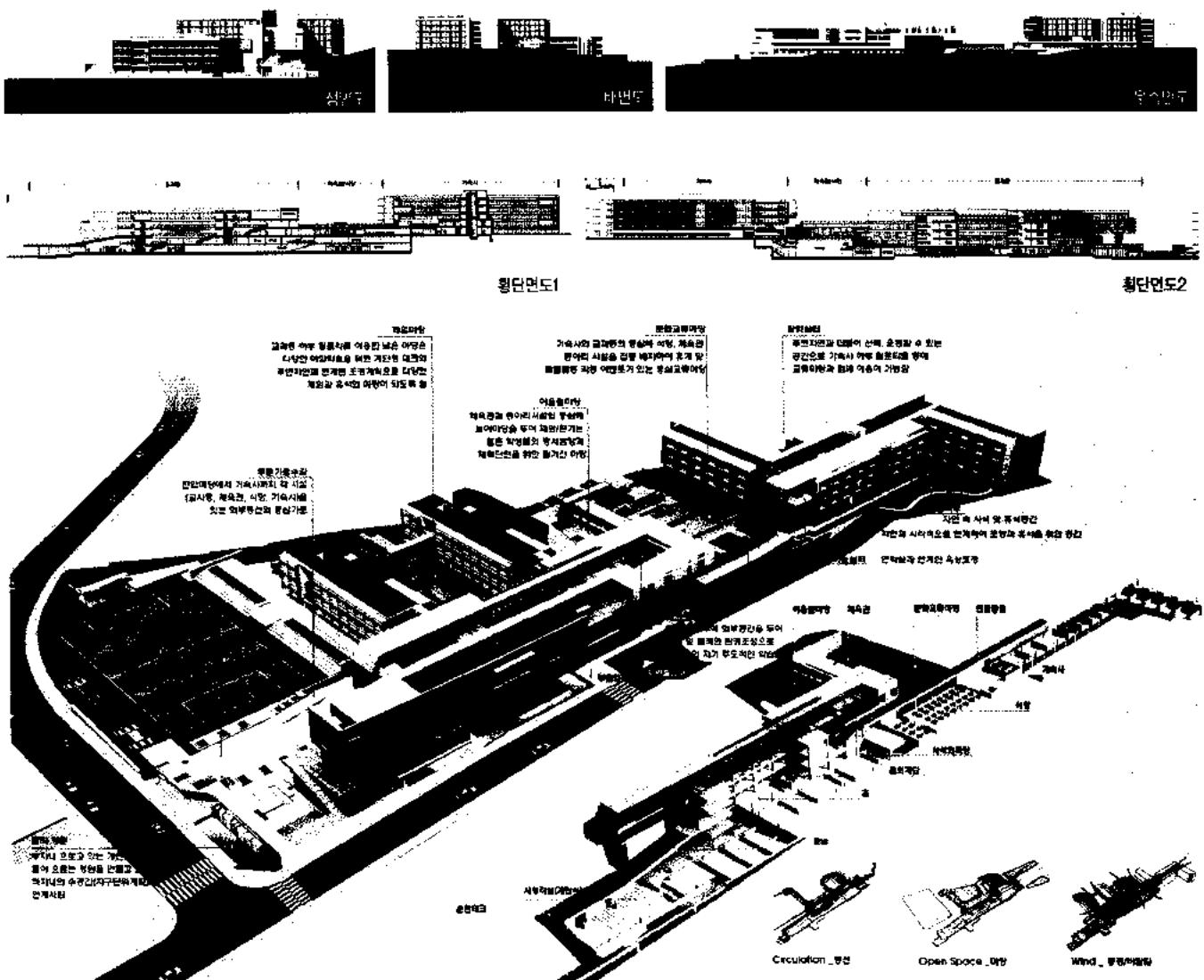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기숙사 1층 평면도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이상림

(주)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1955년 5월 서울 생

한양대학교 건축과 졸업(1978년)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하다

처음 대학시험은 의대로 지망했습니다. 아버님도 의사이고 해서 의대에 가려고 했으나 안 되었고, 2차도 한양대 의대에 가려고 했는데 안 돼 2지망으로 건축과를, 3지망으로 물리과를 선택했는데, 건축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아무 준비 없이 건축과에 가게 된 것이지요. 당시 학과 이름이 '건축의장과'였는데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과에 적응하고 ROTC로 군 생활을 마친다

후회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당시 충청은 김연준 선생이었지요. 말씀 중에 우리는 신입생수가 많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숫자로 승부한다는 발상에 말이지요. 그 당시 심정은 낙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망, 좌절, 회의 등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처한 현실에 충실하고자 생각하였으며 그런대로 건축과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건축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스스로 좋다고 저 자신에게 세뇌하고 4년을 지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유신으로 휴교하고 할 때는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때이고, 2학년 후반기부터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OTC에 지원하면서 더욱 마음이 안정되어갔지요.

어린 시절, 와룡동에 살았을 때부터 공간사 사육이 눈에 들어오다 막연하게 설계가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살던 와룡동과 현재의 공간사 건물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 자주 지나다니면서 당시 TBC, 국악전수원, 가든타워 등의 건물이 있을 때인데, 공간사 건물이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60년대 후반 중학생 때 건축가라는 명칭도 처음 접했습니다.

군제대 후 공간사에 어렵게 들어가다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게 되었지요. 전방 1년 있으면서 소대장, 작전통제관 등을 역임하고 '50미터 박살 때' 즉 장애물 없애는 작업 등을 위한 파견장교로 상주했고 후반에는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있다가 78년에 제대했습니다. 군입대 전 삼성, 대우 두 회사에 동시에 취직한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한 터라 제대 후에도 취직 걱정은 없었지요. 당시 건설사들은 중동 봄이라 취직하면 중동가기 십상인데 중동으로 가기 싫어 설계하려고 했어요. 당시 대우에는 김종성 선생이 이끄는 동우건축이라는 설계조직이 있었습니다. 동우건축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사 문을 두드렸지요. 당시 공간사에는 류춘수, 김남현 선생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당장 채용이 어렵다 하여 기다리다가 김기석 선생이 하는 아람건축에서 일하게 되

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정동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81년 5월 한 달간은 상지건축(대표 김준웅)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81년 6월 1일 공간사에 한국 정치계의 유력자에게 도움을 청해 마지막 강수를 두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습생 하나 쓰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터뷰 당시 김수근 선생이 제 이력을 보더니 '아니? 실습생이 아니잖아!' 하시더군요.

당시 공간사는 소장별 팀제로, 장세양 선생 팀에 속하게 되다

당시 공간사는 소장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김원석 선생과 인터뷰한 후에 김평일 실장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입니다. 그리고 신언학, 장세양 실장 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 각 소장별로 책임경영 할 때인데 1에서 7소까지 있었습니다. 1소부터 김남현, 홍순분, 우시용, 류춘수, 김평일, 장세양, 신언학 등의 소장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로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되었습니다.

6소 소장이 장세양 선생이었는데, 여기에 속해있으면서 한 일이 춘천향토공예관, 벽제화장장 등입니다.

김수근 선생 돌아가신 후 호주로 유학가다

1986년도 김수근선생 별세 후에는 공릉사옥에도 출, 퇴근하면서 지내다가 1989년 말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대학원으로 갔지요. 기기 전에 건축사시험을 보고 갔는데 합격은 이미 예감을 했고, 1990년 2월 22일 합격 발표가 났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학마치고 다시 공간사 복귀, 장세양 선생과 일하다

91년도에 귀국해 장세양 소장 밑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당시 승효상 소장은 TSC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막 독립한 상태이고, 와 보니 장세양 선생이 공간을 떠맡아 운영하고 있고 정종영, 민경식 소장이 있었습니다. 파트너 제를 하기로 하고 장세양 선생 외에 3인의 디자인파트너(정종영, 이상림, 민경식) 그리고 경영을 맡을 박명호 전무 이렇게 5인의 사령탑이 공간을 맡아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장세양 선생 타계 후 공간을 떠맡다

이 체제로 96년까지 갑자기 장세양 선생이 타계한 후 한 달간 정종영 소장이 대표대행을 하고 1996년 10월부터 제가 공간사령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선생 타계 전에 제가 무연히 어느 자리에서 만약 장선생 유고시에는 회사가 어떻게 되나를 말한 적이 있는데 디들 기겁을 하더군요. 막상 장 소장께서 타계하니 막막하였고 유족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디들 피

처음 사무실 차려서 20년 후가 되었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열기로 작정했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보고 되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선배 건축가님들의 앞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뒷모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말이지요.
쉬운 면, 좋은 면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형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기에 따라 큰 사무실로 갈 수도 있고, 결국 블로그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려고만 하였죠. 박영호 전무는 문공부 출신인데 아주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박전무는 공간지만 맡고 3명이 공간건축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선생 유족들의 요청들이 쓰여 들어왔습니다. 특히 김수근기념관과 같이 장세양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답변 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서 이런저런 뒤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 제가 사령탑을 자연스레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선생 생존 시 착공을 한 공간신사옥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완성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졌는데 우리는 차라리 타격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관공서 일들이라 말이지요. 단지 민간 부문 일들은 다 연기되거나 취소된 일들이었습니다.

공간에서 부산 삼성병원, 산업기술대학교의 작업을 담당하다

잠수교 시나면 좌측에 있는 녹색으로 된 우진빌딩, 부산 삼성병원, 산업기술대학교 등은 파트너 소장일 때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발표되었던 것들입니다.

대표가 된 후 한 일들을 꼽으면 용인시청사(2006년), 일산아트센터(2002년), 부산운동장(2002년 준공,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광명경륜동(2006년), 서울중앙우체국(2008년), 달성군청사(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등입니다. 해외프로젝트로는 양골라컨벤션센터(2007년, 15,000m²), 손양골 본사사옥(2008년 준공, 4만m²), 카자흐스탄 파크뷰오피스(2008년 준공, 12,000m²) 그리고 뉴타운 및 신도시프로젝트 등입니다.

유네스코 석좌교수가 되다

유네스코총회 시 강진군(康津郡)을 본부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를 소개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들에게 정자와 다산(茶山) 등을 소개하였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유네스코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에 소외된 역사지구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석좌교수직을 받았습니다.(Social sustainability in historical districts)

MAXMIX

몇 년 전 대한민국건축제 주제로 맥스믹스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맥스믹스는 행정복합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할 때 만든 제목으로 그때부터 저의 화두로써 모든 작업을 할 때 주제가 되는 단

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UIA에서 시행한 CCII라는 국제공모전의 주제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 조직으로 키우다

국내 전체 직원은 530명(설계 350명, 감리100명, 관리80명)이고 해외는 100명인데 앙골라, 두바이, 카자흐스탄, 알제리, 필리핀 등지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2010년이 공간 창립 50년

장점이자 약점일수도 있는데, 소위 오래된 전통으로 2010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나는 것이지요. 다른 사무실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여 질 듯 싶네요. 작품 대할 때도 다른 시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점이 바로 오래된 전통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속박한다고 봐야지요.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공간을 거쳐 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Net Work'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건축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리라 봅니다.

건축설계만 전념하기보다 사회평판을 고려하게 된다

역시 다양한 문화활동과 더불어 설계소직을 윤용하기에 설계만 전념하는 회사처럼 이것저것 무시하고 달려들 수만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공간지 발행은 적자가 나도 계속한다

아니 적자입니다. 그리고 잡지발행은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단순설계조직과 다르게 봐주는 면과 문화계와 접촉하기에 많은 정보도 주고받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공간학생상, 국제 판화제 등의 행사도 계속할 것입니다.

2001년도 공간지 400호 때부터 공간지 웹진으로 'vmspace.com' 주소로 론칭 했습니다. 실내건축상을 개설했는데 당연히 국제전이구요. 공간지는 텀슨 로이터에 등재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SCI, AHCI 등 두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간지는 AHCI카테고리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영예입니다. 사실 학회지도 아직 등재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학생전은 외국학생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고 2007년에는 대상수상자가 독일학생이었습니다. 실내건축상 대상수상자는 태국학생이었습니다. 결국 국, 내외 학생들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 7월 공간지 50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지가 처음으로 지정 500호를 맞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었으며 공연과

인터뷰 후기

이상립 건축사가 공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공간의 대표가 된다는 소문을 들게 되었다. 공간이 한참 어려울 때이고 일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인 때였다. 당시 이미 유준수, 승호상 등의 건축사가 공간대표를 맡다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장세양이라는 든든한 베풀목이 줄지에 쓰러지고 난 뒤라 나는 그가 공간의 사령탑을 맡게 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들어 이상립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에 엽서를 보낸 적이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변압기에 적정량 이상의 전압이 흐르면 변압기가 타버립니다. 자중하세요.”라는 공간사 대표를 맡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여 보낸 적이 있다. 지금 보면 그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대용량의 변압기였던 것인데 내가 간과한 것이다. 어쨌거나 고아한 이미지의 공간사를 현재는 수주를 잘하는 대형조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는 대단하다. 대조직의 위상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건축사로서의 자리매김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무거운 과제가 그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자연친위원회 위원장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에만 전념하고자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제 욕심은 설계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저의 한계를 느꼈고 이런 많은 인원들을 관리, 세무처리, 인사관리 등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경영이며 금융기법이나 등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도 와튼스쿨 MBA출신의 인사가 있어 제가 부탁했지요. 마침 김수근 선생의 고교 후배이기도 해서 다행히 이를 수락해주었고, 현재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파트너십으로 하다가 오히려 일인체제로 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파트너십으로 하다가 거꾸로 일인체제로 해오고 있는데요. 후계구도는 시험 중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파트너십을 포함한 여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건축가협회에서 'HonFAIA'를 받을 때 그 다음에는 마침 김수근 선생 20주기 장세양 선생 10주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였는데 시험 삼아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후계구도 및 장래운영 체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파트너가 될 사내 인재는 무궁무진하다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문장도 있고 사장급 중에도 있구요. 소장, 부소장, 팀장 중에도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설계 비중이 50%가 된다

국내설계와 해외설계 비중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는 2000년 들어오면서 우연하게 아프리카 앙골라에 있는 삼성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양골이라는 국영회사의 일을 하는데 설계자로 동참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안 만들어주고 오히려 삼성은 사정상 빠지고 저희만 직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아프리카 지사장의 공로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전시티 등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앙골라에 와보니 내전이 종식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도 많고 할 일이 많더군요. 그런 측면으로 찾아보니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우즈베크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크스탄·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리비아 등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먼저 가서 타진해보고 일들을 추진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회사는 단순히 노동력이 싸다고 해서 실시설계나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 해외에서 달려온 수금하니 이를 달려로 소진

할 방도를 찾다가 궁리한 방편입니다.

사무실을 차린 후에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라

저는 상당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무실 차려서 20년 후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고 일단 열기로 작정했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보고 되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건축가님들의 잎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뒷모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말이지요. 쉬운 면, 좋은 면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비전

해외의 여러 국가도 경기 사이클이 있듯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듯 경영하려 합니다. 공간건축사무실은 건축의 고전적인 의미의 설계를 고수하고 공간도시는 단지계획, 주택설계, PF사업 등의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간사옥에 박물관, 전시장, 건축과 관련된 교육기관 병설하는 일도 하고 싶구요.

빌딩 스마트 코리아의 회장이 되다

급변하는 건축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BIM의 등장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던 단체가 2008년 창립총회를 거쳐 2009년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합니다. 오는 4월 21일에는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와 BIM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직을 맡다

2007년 11월 한국건축가협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뒤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회원들의 입장과 공공의 역할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협회를 운영하려 합니다.

“생각대로 한다”가 나의 좌우명

어릴 때 생각은 “생각대로 한다”입니다.

지금은 “생각대로 간다”입니다.

한국건축계의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대형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기에 따라 큰 사무실로 갈 수도 있고, 결국 본인들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자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2월말

구 분 건축 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액 사무소 회원수	합 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전체	5,240	5,240	107	214	11	33	5,358	5,437	1,619	1,619	251	502	64	192	24	96	27	183	1,985	2,592	7	7,343 8,079
서울	904	904	26	56	3	9	935	969	374	873	143	286	42	126	12	48	15	93	1,036	1,427	6	202 2,396
부산	469	469	17	34	2	6	488	509	95	95	18	36	3	9	0	0	3	26	119	166		607 675
대구	416	416	20	40	4	12	440	468	60	60	21	42	3	9	2	8	2	10	88	129		528 597
인천	262	252	2	4	1	3	265	269	56	56	8	16	0	0	1	4	0	0	65	76		330 345
광주	198	198	1	2	0	0	198	200	40	40	5	12	3	9	2	8	0	0	51	69		250 269
대전	235	235	7	14	1	3	243	252	35	35	9	18	4	12	1	4	1	17	50	86		293 338
울산	171	171	6	12	0	0	180	188	21	21	1	2	1	3	0	0	0	0	23	28		203 212
경기	709	709	3	6	0	0	712	715	233	233	19	38	3	9	2	8	2	10	259	296		971 1,013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6	26	2	4	0	0	0	0	1	5	29	35		199 207
충북	204	204	4	8	0	0	208	212	27	27	5	10	0	0	2	8	2	16	36	61		244 273
충남	226	226	1	2	0	0	227	228	45	45	5	10	1	3	2	8	0	0	53	66		280 294
전북	240	240	4	8	0	0	248	248	20	20	3	6	2	6	0	0	0	0	25	32		289 290
전남	183	183	0	0	0	0	182	183	17	17	2	4	0	0	0	0	1	6	20	27		203 210
경북	347	347	5	10	0	0	352	357	35	35	4	8	1	3	0	0	0	0	40	46	1	392 403
경남	398	398	7	14	0	0	405	412	26	26	4	8	0	0	0	0	0	0	30	34		435 446
제주	107	107	0	0	0	0	107	107	9	9	1	2	1	3	0	0	0	0	11	14		118 121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 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079	10	8,089	100.0%	23
서울	2,396	3	2,399	33.9%	10
부산	675	1	677	7.9%	9
대구	597	0	595	7.7%	0
인천	345	0	342	3.6%	0
광주	269	0	271	3.7%	0
대전	338	1	339	3.7%	0
울산	212	0	212	2.6%	0
경기	1,013	2	1,015	12.2%	2
강원	207	0	207	2.6%	0
충북	273	0	273	3.0%	0
충남	294	3	297	3.1%	0
전북	280	0	280	3.0%	0
전남	210	0	210	1.9%	0
경북	403	0	403	4.6%	1
경남	446	0	446	5.0%	1
제주	2	0	121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 수	5,487	2,592	96	8,079	
비율	67.92%	32.08%	1.08%	100%	
사무소수	5,358	1,985	-	7,343	
비율	72.97%	27.03%	-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계경기 | Competition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The Korea Zoonoses Research Institute

당선작 / 민병직 · 김인기 정희원
(주.현대종합설계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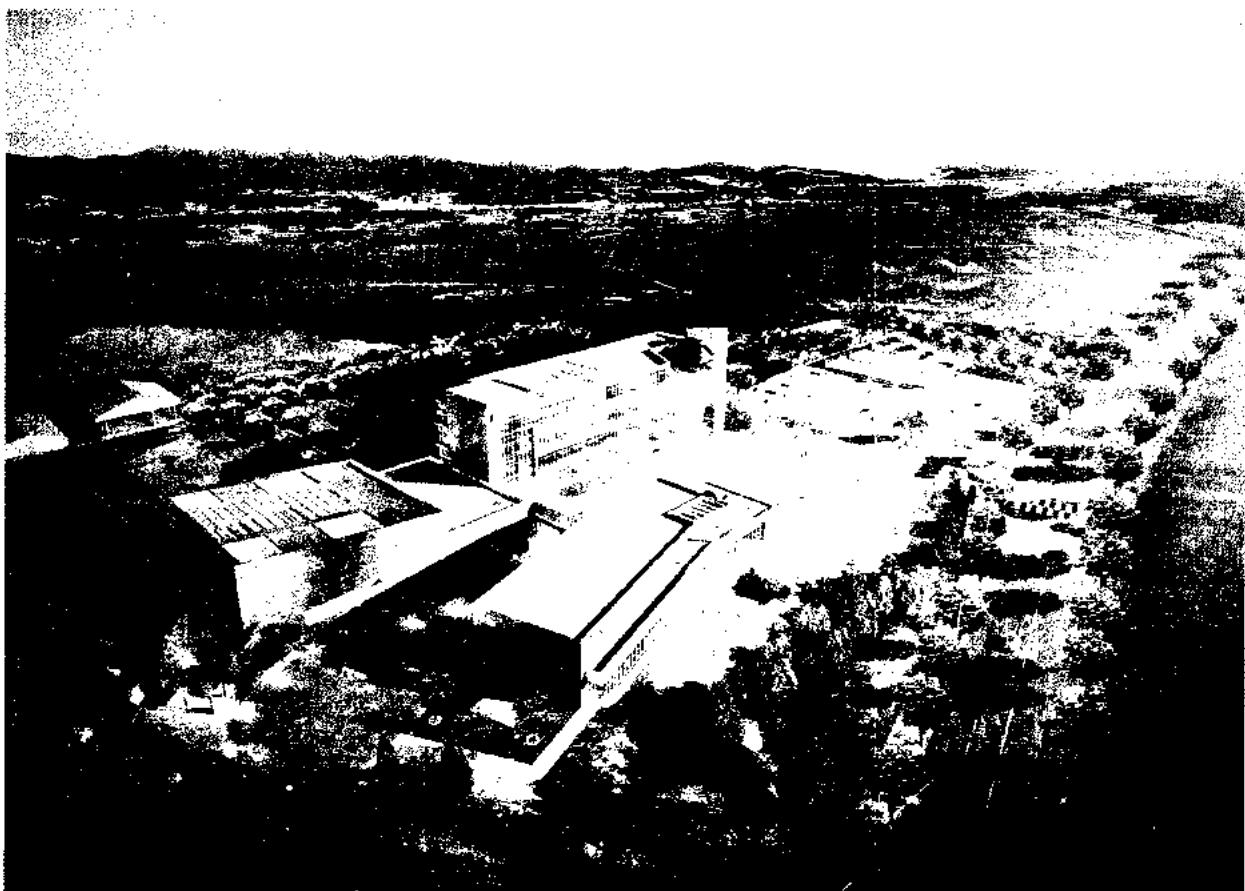
대지위치	전북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학교 부속 동물농장
지역지구	계획관리구역
주요용도	연구시설
대지면적	51,348.00m ²
건축면적	5,211.44m ²
연면적	12,515.17m ²
건폐율	12.67%
용적률	26.8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발주처	조달청
설계담당	김기철, 한철우, 박종인, 배영삼, 황정현, 김경태, 우상균, 이상군, 임환수, 정우진, 차현석, 김태원(건축) / 김정숙, 박수정, 박정은(인테리어) / 이영민

생명과학의 번영과 생명공학개발의 차세대 성장동력원 BIO PLUG
배치계획_대지는 남고북저형에 북측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는다. 대지를 크게 3개존으로 나누어 전면북측으로 행정, 집회 기능의 행정지원존을 배치하고 남측으로 연구 실험, 동물실험동 기능의 연구존과 축사, 방복장, 증축부지로 구성된 그린존으로 배치하였다. 주진입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주차, 체육시설을 동쪽으로는 연구소 건물을 집약배치하였다. 행정지원동과 연구실험동의 배치로 나뉘어진 영역은 각각 진입마당, 미래광장, 푸른마당으로 특성화된 조경공간을 구성하였다.
평면계획_기능에 따라 전면에 행정지원동을 배치하고 동물실험시설, 일반연구시설, 동물질병관리센터 등이 자리잡을 연구실험동이 들어선다. 동물실험시설은 특수실험시설의 특성 상 병원균의 오염 및 확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Box in Box' 컨셉으로 계획하였고, 연구실험시설은 균일한 조도 확보를 위한 실험실은 북측에 두고 쾌적한 환경과 채광을 필요로 하는 교수연구실과 연구원실을 남측에 계획하였다. 수직동선에는 에코트리움과 휴게공간, 옥상정원 등을 계획하여 연구원들의 쾌적한 연구 환경을 배려하였다.

단면계획_대지의 단차를 활용하여 동물실험영역을 4.5m 들어올려 계획함으로써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하역을 분리하고 접근을 수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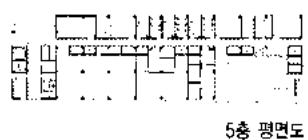
외래 진료 기능을 갖는 동물질병치료센터를 공공의 접근에 유리한 1층에 배치하고, 일반연구영역, BSL3(Bio Safety Level 3)영역을 기능에 따라 수직조닝하여 보안통제와 연구분과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_행정지원동은 단차를 이용하여 지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실려 행정사무영역과 강당영역이 마주보는 C자 형태로 결합하는 형상을 통해 기능구성과 지형활용이 건물의 입면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연구실협동은 깨끗하고 투명한 크리스탈 이미지로 첨단연구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피창과 그자 모양의 커튼월로 수직동선과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간결한 구성의 기능적인 연구실협동영역을 부우하는 매스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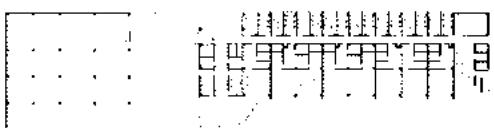
동물실험영역은 상부 설비층을 이용하여 아연도골강판의 구조물을 지형에 따라 상승하는 형상으로 계획하여 기능을 반죽하면서도 특색있는 입면으로 계획하였다. ■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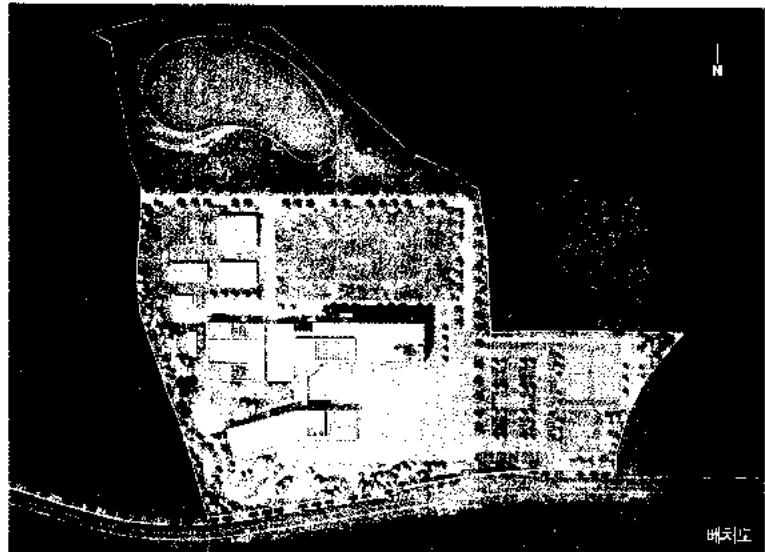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통영국제음악당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Hall

당선작 / 이광만 정현업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박병록 정현업
(주.엘립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남 통영시 도남동 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도남관광지 및 유원지)
주요용도	문화및집회시설
대지면적	33,058.00m ²
건축면적	8,669.93m ²
연 면 적	14,573.28m ²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통영시
설계담당	간삼건축_김태성 외 엘립건축_이창규 외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을 배출한 통영은 그를 기리는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림산업 컨소시움(대림산업, 주+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주.엘립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실시설계경쟁으로 선정되었다. 계획안은 예술의 도시, 통영의 정체성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가장 통영다운 랜드마크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사방으로 통영의 수려한 다도해 풍경과 활력 넘치는 도시 조망이 펼쳐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를 향해하고 음악과 자유를 향한 커다란 날개(그랜드 윙)를 상징화한 건물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본 건물은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 사무·강의동으로 나누어져, 멀리 다도해의 자유로운 풍경처럼 리듬감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다른 소리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처럼,

옥외 네크인 Festival Loop를 통해 하나가 되어 사계절 음악축제의 장으로 펼쳐 지도록 계획했다.

설계상 특징

독립적인 전문공연을 위한 분리배치
통영국제음악제는 특성상 일주일간 백여 개의 공연이 공연장 내, 외에서 동시에 없이 진행되므로, 최상의 공연환경과 안전을 위해 각 시설들을 독립적으로 분리 배치함으로써 단기간에 개최되는 음악제의 특성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배치는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설의 유지·관리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특히, 상부 주요시설은 분리 하되, 지하층은 일체형으로 통합 연결 함으로써 서비스 동선, 관리 및 설비시설의 효율성을 높였다.

통영국제음악제의 장 Festival Loop(페스티벌루프)
통영국제음악제는 공연장 만이 아니라 야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채로운 형태의 공연을 수용하기 위하여 바다조망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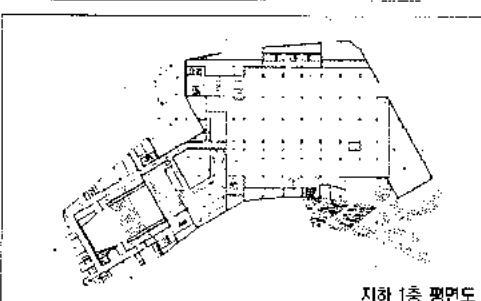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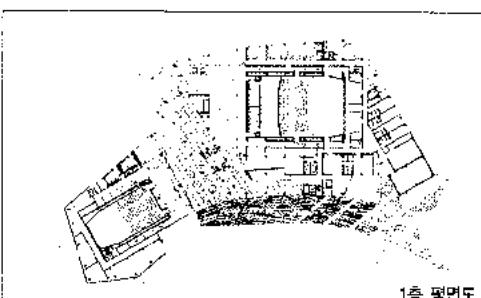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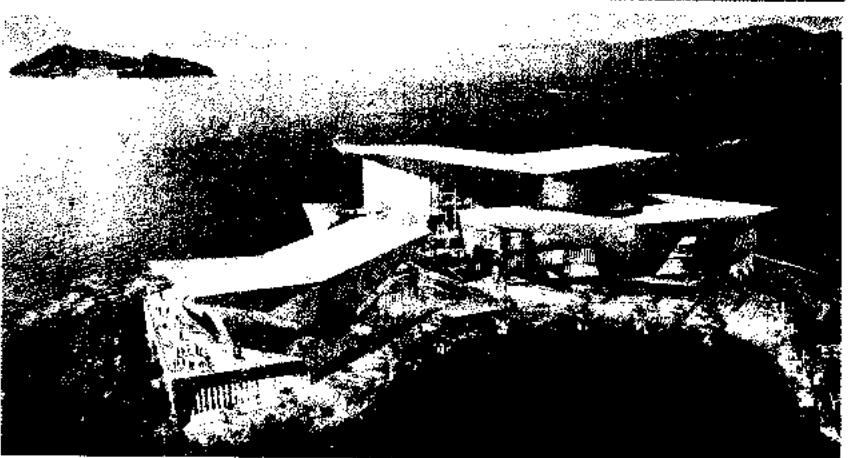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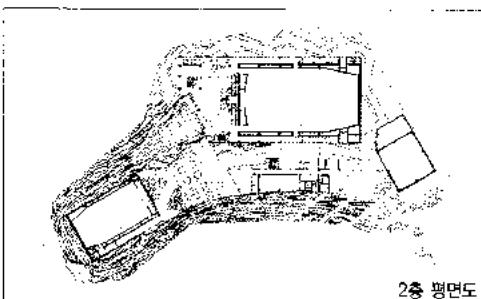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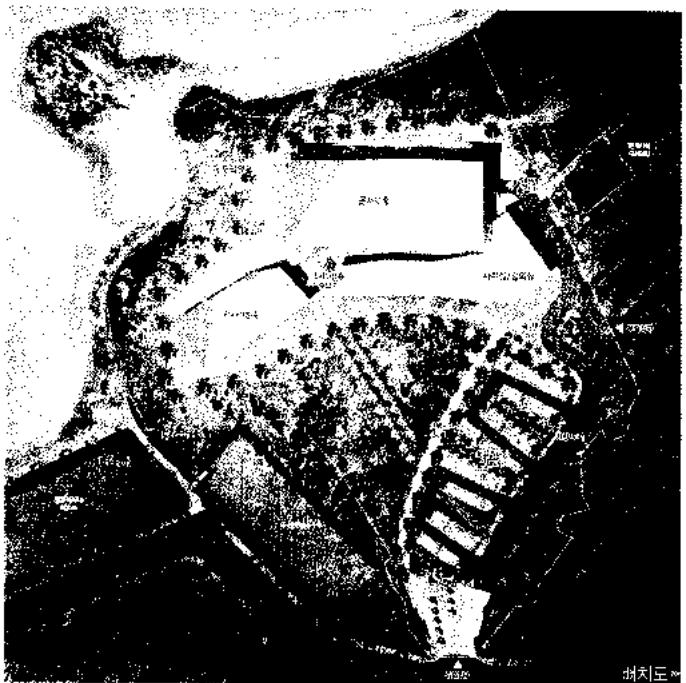
넓다운 언덕의 정점에 약 450m 길이의 야외 순환로로 이어진 8개의 독립적 공연장들을 계획, 음악당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세계적 수준의 전용 음악당(음향계획)_콘서트와 라사이틀홀 모두 세계 3대 음악홀과 같은 슈박스형 평면을 도입하여, 생동감 있는 음 전달이 가능하며, 변하지 않는 고우한 음악당 음색을 통해, 음향가변을 통한 다독적 공연장이 아닌, 세계적 수준의 전용 음악당을 실현하였다.

이상적인 보차분리(동선계획)_이상적인 보차분리로 보행 안전을 확보했으며 차량동선은 옥외 및 지하 각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토록 했고, 연주자, 관리자들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해 별도의 출입구 및 동선을 계획하였다.

입면 및 야간경관조명계획_음악의 3요소(리듬, 멜로디, 하모니)를 형상화한 입면계획은 금속재 중 염해에 가장 강한 징크패널을 지붕재로 사용하였고, 컬러CRC패널과 화강석을 사용한 외장재는 내후성과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자유로운 입면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은 하늘로 비상하는 빛과 함께 어우러져 소리와 빛이 연출하는 빛의 섬으로 계획, 통영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을 것이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은평자연환경박물관

Eunpyeong Eco-Museum

당선작 / 함인선 쌍편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산100-36, 산100-35, 71-3(은평뉴타운 3-1지구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박물관(문화 및 친목시설)
대지면적	4,541.00m ²
건축면적	863.00m ²
연 면 적	2,759.44m ²
건 폐 율	19.90%(법정:20%)
용 적 율	28.62%(법정:50%)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트러스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선진_김정강, 박윤호, 윤여갑, 배상운, 흥선희, 김현숙, 정종인, 문성훈, 김정, 김연정, 김민중, 원찬식, 변재희 (주)시공테크_박기석, 윤영설, 최윤정, 김보영

본 프로젝트는 길(Trail)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은평의 아이덴티티를 제안한다. 은평의 인문, 사회, 지리적 정보와 역사를 체득하는 은평역사 탐방길(Discovery Trail),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문화체험 골목길(Community Trail),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으로서의 힘찬 자태를 바라보며 서오릉자연공원의 솔향기 가득한 자연을 즐기는 숲속 오솔길(Eco Trail)의 세 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으면서 은평자연환경박물관이라 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끊임없이 연속되는 길을 연결하고, 모든 공간이 자연과 관계 맺을 수 있게 중점을 강싸 안으며 소통하고, 각각의 길들은 은평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외부공간은 은평의 재미난 옛 지명을 도입하여 잊혀져가는 지명과 그 유래, 명소 등 동네에 살았던 옛 조상들과 관련된 역사를 재생하고, 지역 구성원들에게 은평의 컨텐츠를 전유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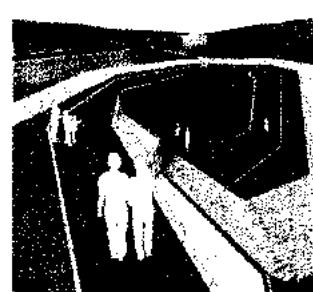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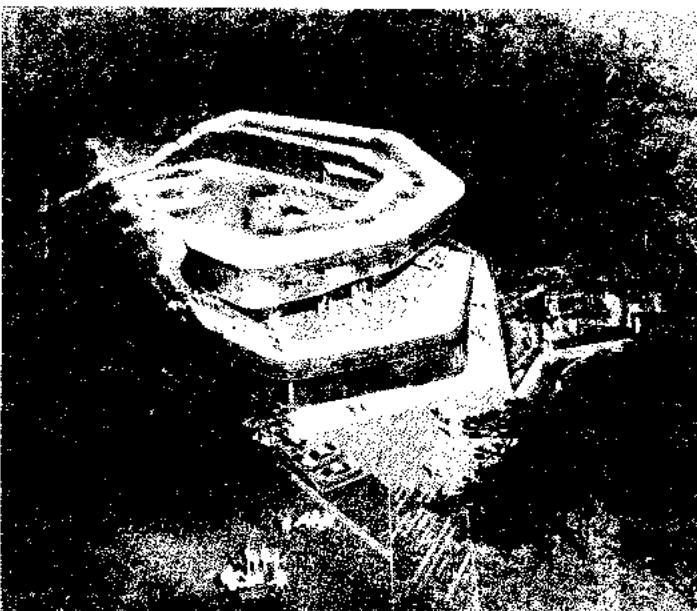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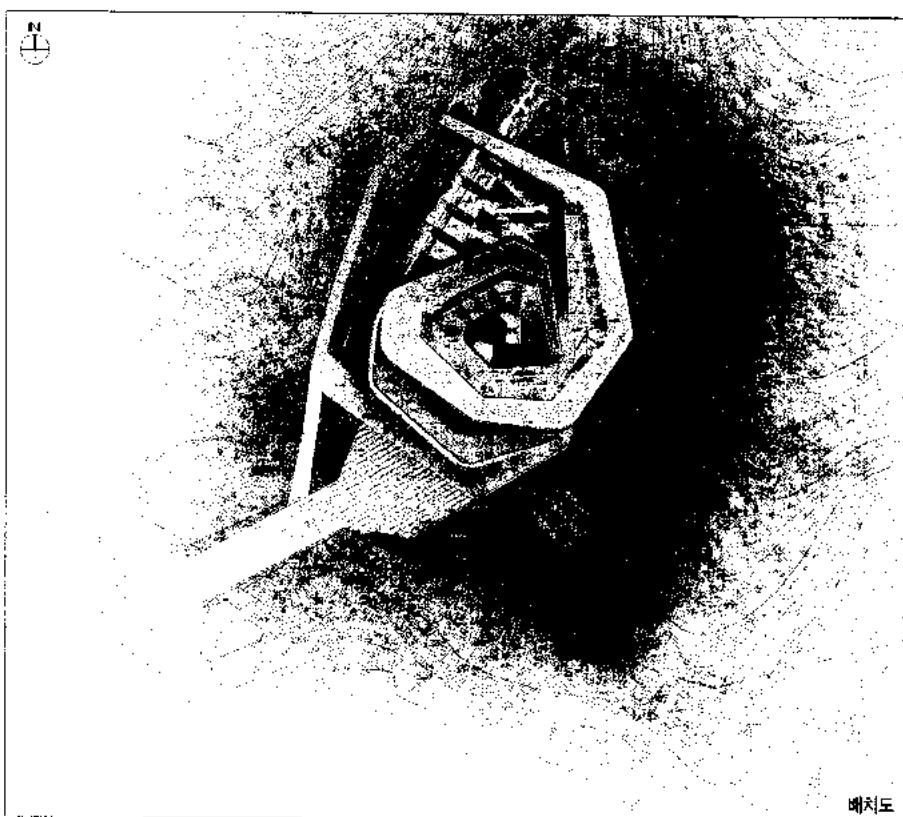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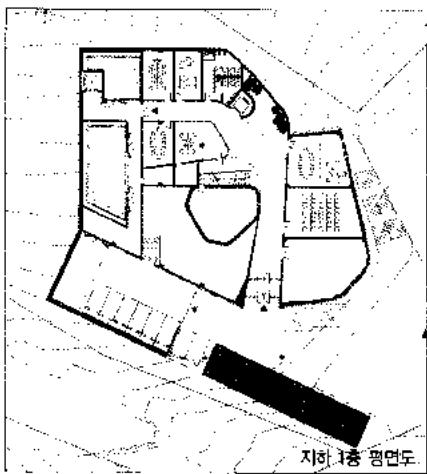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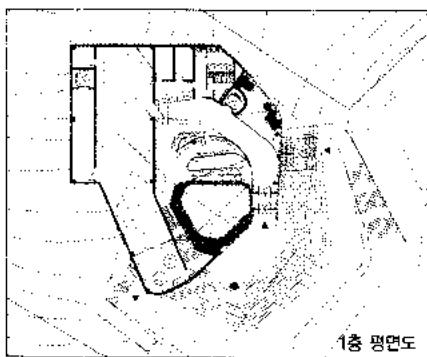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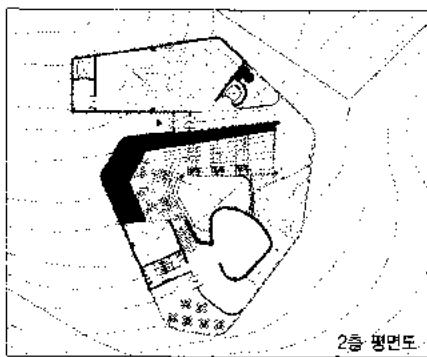
기회를 제공한다.

경사지형에 순응하여 계획되어진 매스는 북한산의 바위를 모티브로 서오릉자연공원의 우뚝 솟아오른(숨쉬는) 바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지붕과 벽면의 녹화계획은 이끼 낀 바위가 시간의 축적을 표방하듯 박물관의 역사와 함께 숨 쉴 것이다.

북한산 조망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망 카페테리아를 배치하였고,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각종마다 외부공간과의 연결동선을 계획하고,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전시계획과 내·외부를 넘나드는 중간영역(중정, 아뜨리움, 테라스 등)을 관람객 동선을 따라 계획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평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





은평자연환경박물관

Eunpyeong Eco-Museum

우수작 / 김상식 한현 · 김용미 한현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100-36, 산100-35,
71-3 (은평뉴타운 31-1지구 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4,541m²

건축면적 901.4m²

연 면 적 2,698.46m²

건 폐 율 19.85%

용 적 률 28.3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이승연, 조진홍, 김동진, 임기종, 윤계영,
윤중현

기본계획방향

- 기존산세, 지형을 읽어내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스마트' 건축을 계획
-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지역문화 중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열린공원'의 모습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
- '자연환경박물관'의 프로그램에 충실하여, 외부자연과 내부공간이 어우러진 건축적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등의 설비적 친환경체계를 구축

컨셉

'탑골공원을 바라보다'

- 대지동쪽은 추후 상업지역개발로 인해 조망이 불리함을 고려
- 지형이 완만하여 조망이 열려있는 남측의 탑골생태공원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열린 조망권 확보

'지형에 순응하며 자연에 스며들기'

- 영역 만들기_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기존지

형 훼손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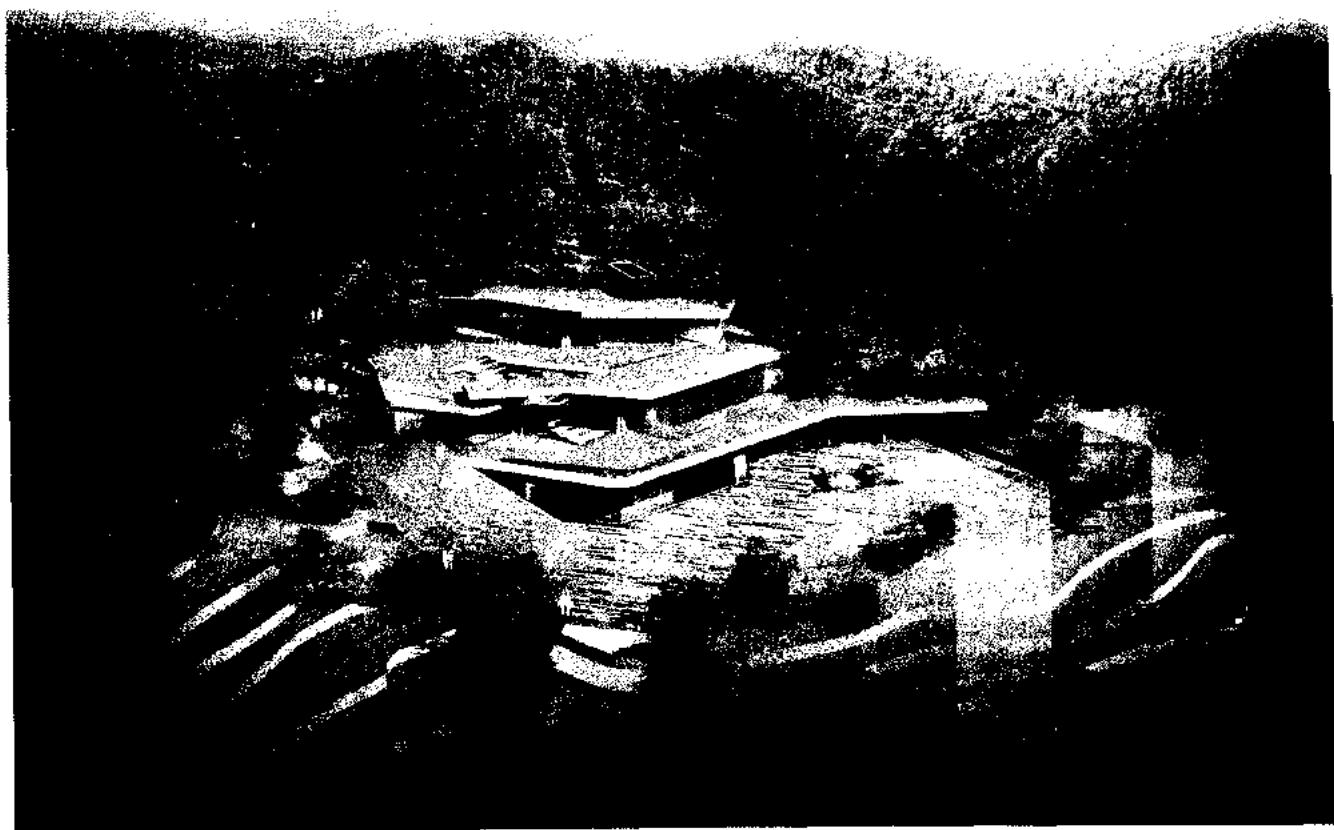
- 자연지형 끌어들이기_지형흐름에 순응한 매스계획
- 도시와 자연의 소통_진입시 서오릉공원을 향한 시야를 받아주며 시선확보
- 자연에 스며들기 사이공간에 녹자유입

동선계획

- 기존산책로와 연계한 외부산책로 조성
- 무장애 공간을 위한 저층부 진입계획
- 명확한 보차분리로 안전한 보행공간확보 및 차량이용 편의 고려
- 데별차를 이용하여 박물관진입, 전시관람, 외부산책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

평면계획

- 전시체험공간과 관리공간을 분리하여 명확한 동선과 관리체계 구성
- 설비지원공간은 집중 및 통합하여 효율성을 확대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
- 각층마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계하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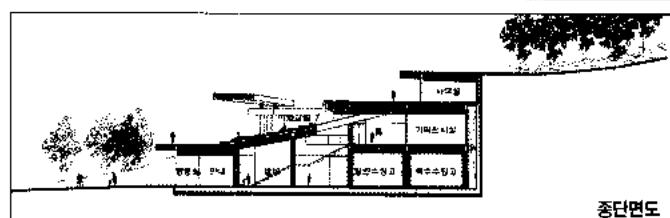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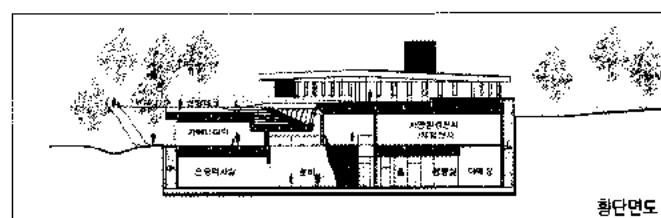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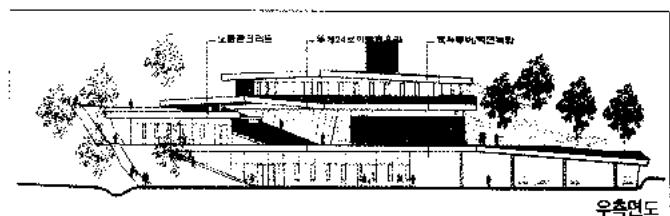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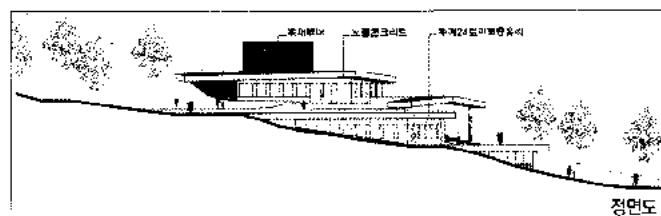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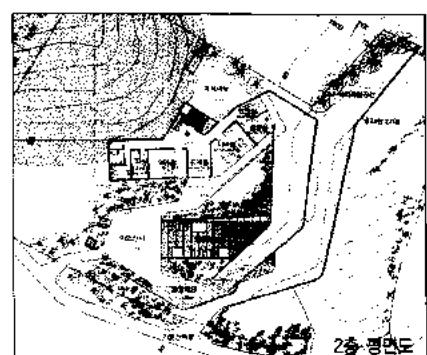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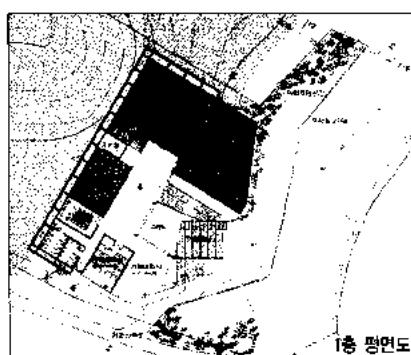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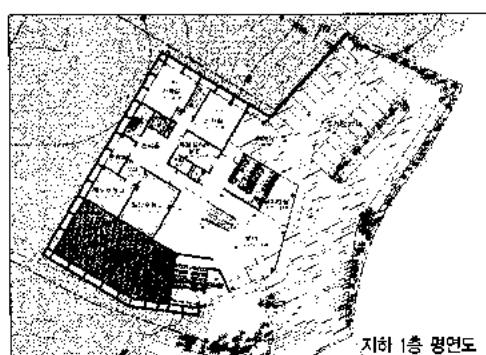
연, 외부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구성 계획
—수장중인 유물을 전시화하여 전시공간 보완

입면계획

- 지형으로부터 연속되는 흐름이 건물의 바닥과 외피를 구성
- 자연배경에 어우러지는 입면을 위해 목재루버, 입면녹화 등을 활용

단면계획

-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에서 내부전시공간과 외부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연계
- 2개층 오픈공간과 상부채광창 등으로 다양한 공간계획 ■



은평자연환경박물관

Eunpyeong Eco-Museum

가 작 / 우의정 정희연
(주.건축사사무소 메타아이엔시)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100-36, 산100-35,
71-3 (은평뉴타운 31-1지구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박물관

대지면적 4,541m²

건축면적 901.65m²

연 면 적 2,150.47m²

건 폐 율 19.86%

용 적 률 47.3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이상진, 권용주, 남궁설

은평역사실과 자연환경실이 함께 요구되는
자연환경박물관.

두 프로그램의 조합은 자칫 성격이 모호하고
목표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은평역사실은 지
역적 관점이며, 자연환경은 거시적 관점이자
미래지향적 관점이다.

지금은 그 두 관점의 결합에 대한 끝고 그림,
그리고 what_유적, 역사, 자연환경, 생태도
시개발, 미래환경 등의 개별적 fact들 보다
how_그것들을 ‘어떻게’ 엮어 도대체 이 시
설, 이 장소가 통합적, 전일적으로 다가오게
만들 것인가? 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what에 대한 관심(도구적 이성)보다
어떻게—how에 대한 깊은 생각(성찰적 이
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살아
온 생활_취락이 도시의 확장과 만나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았고 살아갈 생활_그 기능이
더욱 확대, 강화된 ‘뉴타운’ 그 속에서 자연과
새로운(인공적) 질서를 구축함으로 해서 살아
갈 다가올 생활_삶이 자연 그 자체가 될 수 있
는 삶의 모습과 그러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일을 기록, 조명하는 박물관이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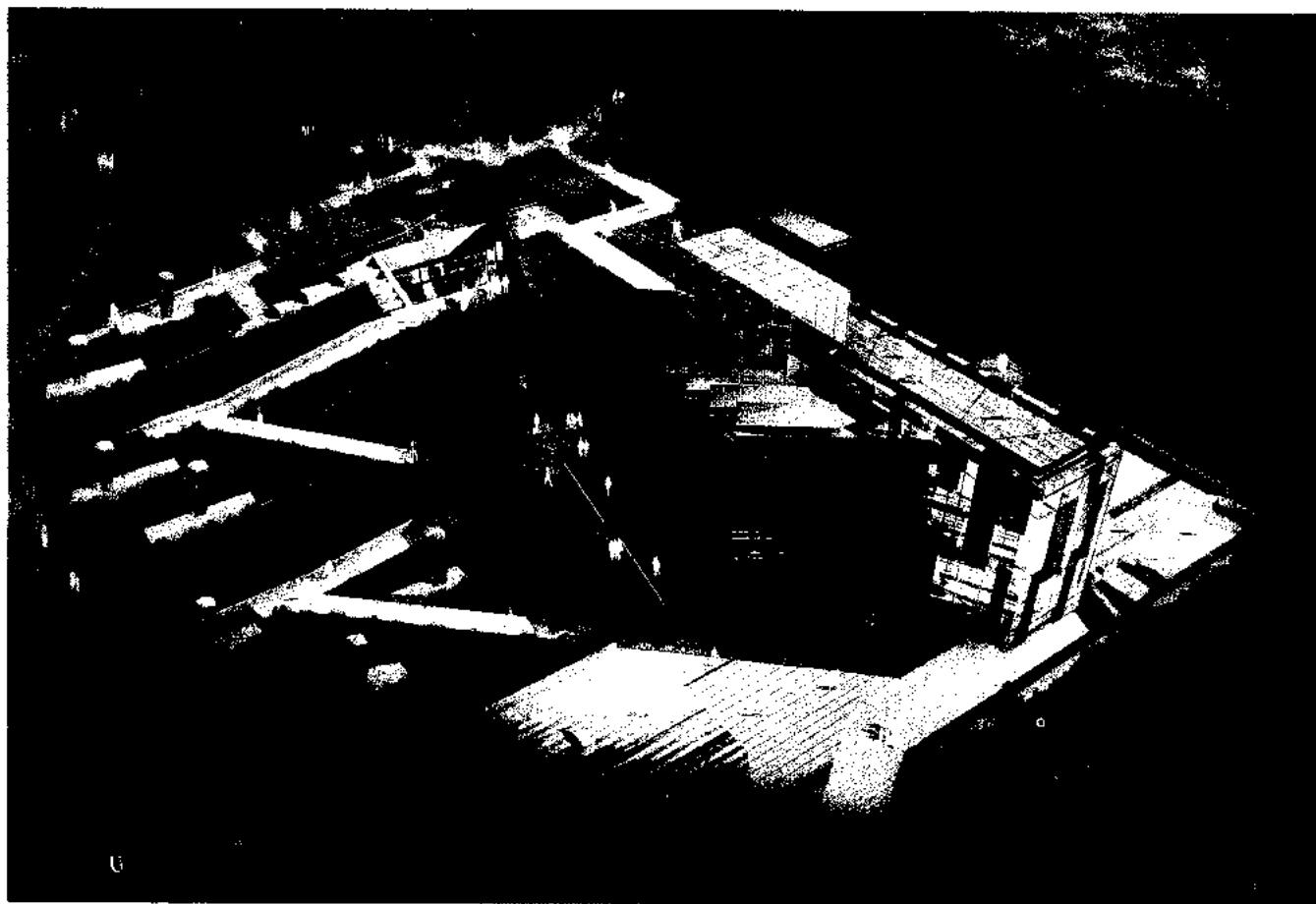
은평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 온 생활을 기록
하고 살아 갈 생활을 함께 나누는, 역사와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은평자연환경박물관

배치계획_자연과 문화의 관계로 상호간 은유
적 기계적 소통이 중요하며, 이렇게 생성된
풍경과 디방향의 소통들이 축적되어 대상지
에 국한하지 않는 풍경이기를 바란다.

동선계획_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관람객과 주
차동선의 명확한 분리, 관람객과 산책객의内外부
동선 분리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관람객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박물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평면계획_전시공간(상설전시+은평역사실+
주제영상관) : 중정 중심으로 자연채광 활용,
개방적이고 밝은 전시공간을 연출한다. 은평
역사실은 전시실 도입부에 위치하여 역사적
과정들을 먼저 경험한다. 상설전시를 지나 2
층 주제영상관으로 이어져 관람객 동선이 연
속된다.

교육 · 사무공간(문예창작+다목적실+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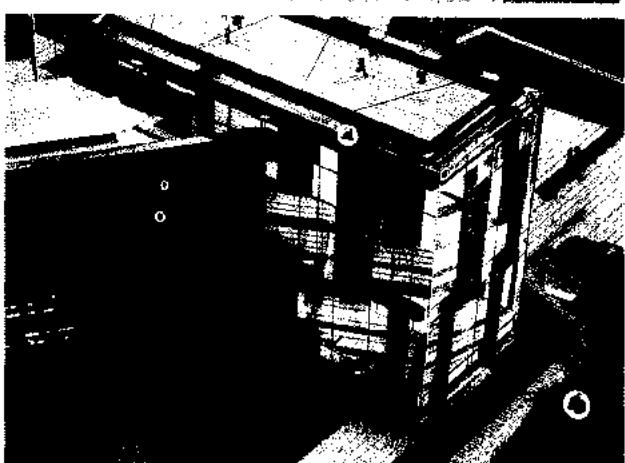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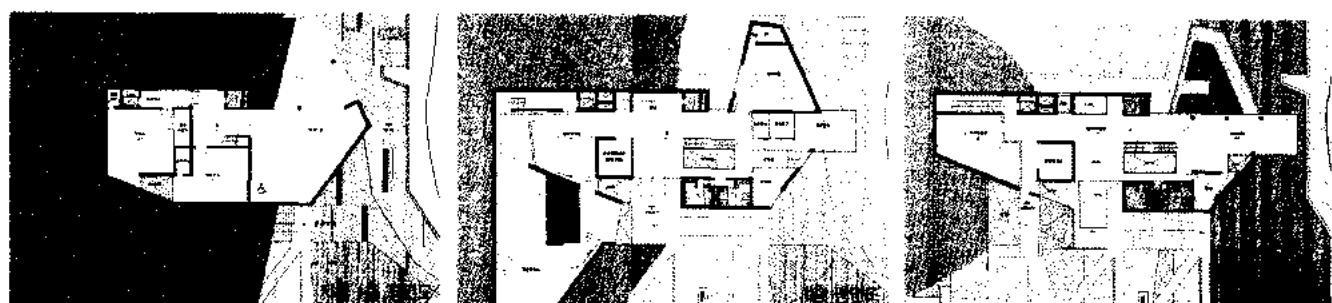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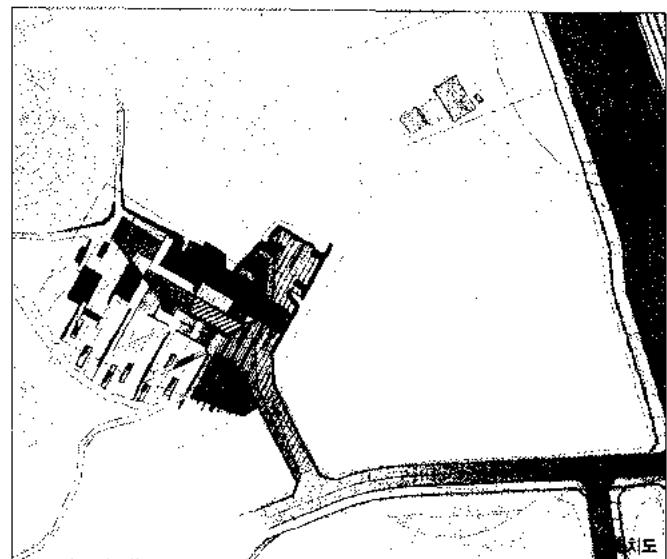


학예연구) : 커튼월에 의한 밝고 폐적한 위치에 구성하고 탑골생태공원과 주변경관과 시각적 교감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비스공간(카페테리아+Shop) : 전시공간을 나오면 Shop을 경유하여 자연스레 휴게공간과 카페테리아로 이어지며, 커튼월을 사이에 두고 탑골생태공원과 자연경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입면계획_오랜시간의 축적을 의미하는 지층(Strata)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단 Mass는 물성이 유사한 점토소성부위를 적층하여 추상화하고, 상부 유리덩어리는 외벽녹화 시스템을 불규칙하게 적용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미래생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단면계획_주변자연의 흐름을 읽고 고저차를 적극 이용하여 외부에서 차량접근이 쉬운 첫 번째 레벨인 지하층에 차량동선과 수장고와의 반출입을 설정한다. 전시공간을 1층에서 시작하여 2층 주제영상관으로 구성하고, 계단과 결합된 아트리움과 Void를 중심으로 문예창작, 다목적실, 사무공간, Shop과 카페테리아가 층별로 적절히 배분된다. ■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짰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적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인동의 노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咏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소영한 사람은 양신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데려온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신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가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니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신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신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선에서 치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흑

득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시문학의 대부 정철과 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끌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성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노길드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리를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니우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학우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불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가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디시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어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기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 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Walking space, 운계 구곡로(雲溪谷谷路) Walking space, the Ungeogugok road
8. 통화대로의 고개, 죽령 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9.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풍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작자 : 한재수,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

야간대학에 근무하면서 있으며 한국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부 과제로 한옥 산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차 저

론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제출하였다. 저서로 건축학자들이 좋아하는 「한국건축의 면밀」(2002, 도서

출판), 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도시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도시에 관한 연구」하고 있으며,

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학재단 문학재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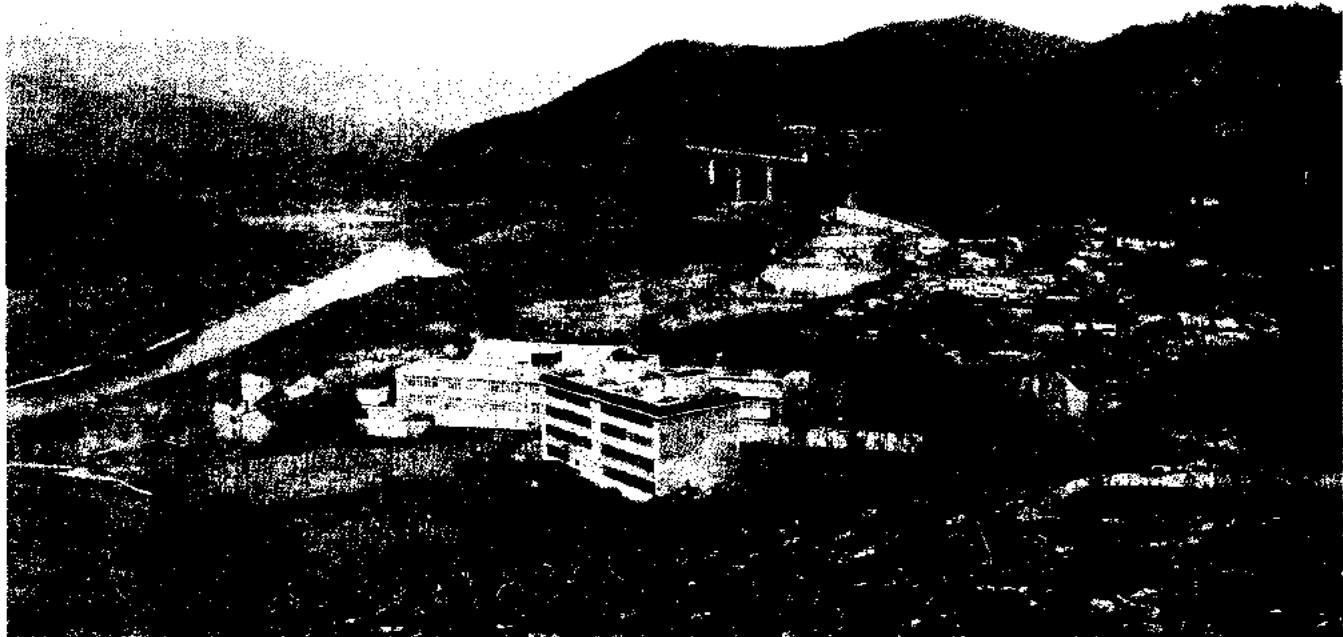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육행정평가위원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 Toegae-Lee whang and Danyang -

옛 단양 수물지 답사



(그림 1) 두악산 중턱에 버려진 하방리

옛 우화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으나 막상 신 우화교에서 중방리 삼거리로 내려와 옛 것을 찾아 길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했다. 그런 탓인지 정오의 해는 그 마땅치 않음이 가득 물린 구름진 하늘처럼 빼뜻하게 기울어 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는 길목인 십이월 초순이 저물어 가는 데도 중화참이 지날 무렵부터 검은 구름이 내려앉은 하늘은 좀처럼 풀릴 줄 몰랐다. 간헐적으로 날아드는 철새가 한겨울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대낮에도 내려앉은 구름은 단성읍내와 단양천가에 음산한 분위기와 추위를 물고 다녔다. 구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늘을 떠돌다가 검은 색깔 바람을 단양천변에 일으키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화교 다리와 하방리 잡목 숲과 중방리 갈숲 사이를 향해 하강하는 듯했다. 북쪽 금수산 줄기를 넘어온 바람은 갓벌로 변해버린 하방리 벽판을 달음박질쳐 단양천을 물살을 못 견디게 괴롭히며 합수머리를 치고 거슬러 올라 두악산(722)과 사봉(887) 사이로 난 계곡 쪽으로 빠르게 몰려가고 있었다. 강 하구에 가득한 찬바람이 빨밭에 우거진 잡목 가지를 성가시게 흔들어대자 거친 바람결에 시달리는 마르고 억센 가지들이 서로 비벼대 서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강줄기를 따라 들려왔다. 달음박질치는 바람과 잡목가지의 제각기 봄 부다 치는 소리들의 뒤엉킴은 추위와 함께 그지없이 칙칙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욱이 그 바람이

신 우화교 교각 사이를 지나칠 때면 개울을 따라 늘어선 갈대의 마른 꽃술들은 앞보다 몇 갑절 바람을 타고 흔들거렸다. 잡목 숲을 뒤흔든 바람 역시 잇달아 갈 숲을 훑어댔다.

바람이 십할수록 날카로워지고 음산해지는 그 소리는 깊은 병을 앓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한스런 가슴앓이를 하는 여인네 울음 소리 같기도 했다. 바람이 거칠어질수록 그 소리는 계곡을 넘쳐났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소리는 홍수때 물에 빠져 죽은 혼령들의 소리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한낮 인데도 이곳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리쉼을 쉬느라 길가에 명하니 앉아 있던 나는 순간 전율스러운 공포감에 정신이 아득해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내 머리를 강타해 오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번 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갖자는 목표였다. 그래서 오늘 꼭두새벽부터 길을 나서면서 나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사는 산과 물과 땅, 터를 사람이 걷는 Human scale을 기본으로 다듬어 왔고, 도시와 도시는 Walking Network를 중심으로 만들어 왔으며 도시문화는 이렇게 짜여진 Walking space를 패러다임으로 축적되어 왔다는 내 나름의 가설을 이번 답사에서 꼭 확인하자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누가 뭐래도 이 땅의 냄새를 제대로 맡으려면 걷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마음한구석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불안감을 서서



(그림 2) 1973년 단양 1/25000



(그림 3) 1980년 단양 1/50000

히 밀어내고 있었다.

중방 삼거리에서 59번 국도에 접어들었으나 바람소리는 여전했다. 밖에 보 날지 걸었을까. 아무래도 이곳 터가 만만치 않다는 느낌에 앞으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야릇한 생각이 들자 중방리 사자로 향하였다 걸음을 잠시 멈춘 나는 역사의 퍼즐을 암시하는 듯 한 지도를 오랫동안 고개를 쳐뜨리고 들여다보며 지금부터 차려야 할 답사방식과 일정 그리고 걸어갈 코스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럴수록 오늘 답사 목표를 명확히 다잡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내린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도면과 자료 예비 답사 등을 통해 대략 분석 정리했던 단양의 도로 패턴과 수변경관회량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자는 것이었다.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정보에 의하면 상진리에서 중방리까지 거리는 대략 아십 오리 날짓했다. 하루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볼 만큼 넉넉한 거리는 아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조사하려면 하루 더 머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앞섰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을 적게 남기려면, 공격적으로 확실한 답사가 필요했고, 엉뚱한 감상적인 일로 정신 팔지 말고 단양주변 도시패턴과 도로와 경관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가면서 한곳 한곳을 꼼꼼히 읽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정보자리원에 근 현대 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 단양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일은 별 어려움이 없었고 답사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단양의 도시 옛 모습을 추적해가기 시작하자 상당한 정보 공백을 절감하게 되었다. 축적 별로 보면 1/50000 지도는 비교적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지도로 도시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읽어 현장을 잡아내기에는 기록의 한계가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때문에 혹시나 한 기대감으로 1/25000 지도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지도 역시 내용은 1/50000 지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정작 필요한 것은 1/5000 지도였다. 이 지도가 있어야만 상세하게 도시패턴변화를

잡아낼 수 있었다. 절실히 마음으로 이 지도를 수소문하여 처음으로 제작된 1994년 지도를 찾아냈으나 공교롭게도 이 지도는 1980년 홍수 때 찍은 항공사진¹⁾을 기초로 작성한 까닭에 하방리 일대 도시모습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이없게도 수몰이전 단양군 모습을 가장 잘 수복한 지도는 1973년 제작한 1/25000지형도가 유일했다. 현데 문제는 이지도의 내용이 1/50000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데 있었다. 원인은 1/25000지도 역시 1/50000지도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인 비례에 맞춰 기록한 까닭이었으나 이 지도만으로 도시의 지역적 맥락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단양의 땅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항공사진과 1/50000 지도뿐인 셈이다. 이 지도는 모두 연속성 있는 자료였으므로 검토해 볼만했다. 항공사진이 말없는 언어로 작성된 지도였다면 1/50000 지형도는 현대어로 작성된 수몰된 단양 땅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단양의 옛 모습을 추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가 된 셈이다. 이 두 가지 지도를 비교 조사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수확 두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는 1/50000 지도는 년도 별로 정리되어 있어 지난날의 단양 도시 구조를 마치 활동사진처럼 아무지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양의 원형을 밝혀내려면 스스로 1/5000 지형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기록 없이 놓쳐 버린 세월 1980년대 단양모습을 한 장의 지도에 주어 담으려면 2007년 지형도위에 과거 유적을 담아 1/5000 축적으로 정리한 문화유적지도가 제격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 지도위에 항공사진과 1/50000 지형도 그리고 현장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1980년대 단양모습을 복원해 내야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한번 그려만 놓으면 아무리 시대를 거슬러 가더라도 변화 내용만 수정하면 단양이란 도시의 과거를 얼마든지 복원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작업

1) 이를 지도는 모두 1970년, 1980년 1995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기초로 현지답사를 근거하여 편집 제작되고 있었다.

은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소이산 봉수를 오른편으로 끼고 59번 국도를 따라 물고리 들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나는 앞으로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보아도 혼자 하기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선 과감하게 밀고 가는 것만이 상책이었다. 그러자 나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름을 느끼게 되었다. 그 문제의 실체를 알아버린 이상, 그 도 만들기 작업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문경을 향해 빼꼼하게 열린 59번 국도에 친바람만 가득했다. 심술 맞은 그 바람은 도로가에 커이 켜이 쌓인 흙먼지를 허공으로 불어 올렸고 도로 가운데는 나뒹구는 나뭇잎마저 못살게 어지럽혔다. 지금까지 조사 정리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원래 단양은 3가닥의 외부진입로를 갖고 있었다. 비교적 인근도시와 교류가 빈번했던 외곽도로가 북쪽 강원도 원주에서 제천을 거쳐 단양으로 내려오는 두개의 통로의 중심역이 소야촌면(현재 적성면)의 적성이었다. 여기서 들판 길을 걸어 삼십여리 내려오면 하진리 포구가 있어 거룻배를 타고 멀리 두악산을 바라보고 남한강을 건너 왼편으로 길을 돌아 우화교 석교를 건너면 단양 읍내면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매포에서 도담삼봉을 왼편으로 강변길을 끼고 한 삼십여리 상거한 상진리 포구에서 남한강을 건너 오른편으로 길을 잡아 중도리 모랫길을 걸어 성재산자락을 돌아서면 읍내면 하방리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길보다 중요한 도로가 바로 충주에서 청풍을 거쳐 계란재를 너머 단구협을 지나 하방리에서 우화교를 건너 읍내면으로 진입하는 일명 봉화대도인 좌로이었다. 이 도로가 바로 하방리 중심을 가르고 올라 향교 앞 길에서 만나 십여리 떨어져 있는 장림역을 거쳐 용부원을 둘러 죽령 너머 영남으로 가는 남북을 잇는 주도로였다. 캐빈 린치²⁾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일종의 통로(Path)였다. 단양이란 도시는 외부 세계를 잇는 세 개의 통로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부지런히 지도를 읽는 가운데 문득 단양남쪽으로 소백산과 황장산 등선사이 두악산과 덕절산 자락을 끼고 읍내부 도로를 따라 뻗들려 행보를 나설 수 있는 두 가닥의 남쪽 산행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실개천을 따라 끊임 끊이진 가느다란 실선이 바로 그것이었다. 겨울 햇빛이 낮게 내려앉은 지도위를 보일 듯 말 듯 기어가는 가느다란 실선 중 하나가 시간의 벽을 허물고 자신을 드러낸 운계천을 따라 사인암을 중심으로 형성된 927번 지방도에 접한 운계구곡로이었다. 이 길은 2번 국도와 연이어 단양천을 따라 상, 중, 하선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길 59번 국도에 접한 바로 삼선수석로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 길이 단양의 읍내부도로는 배후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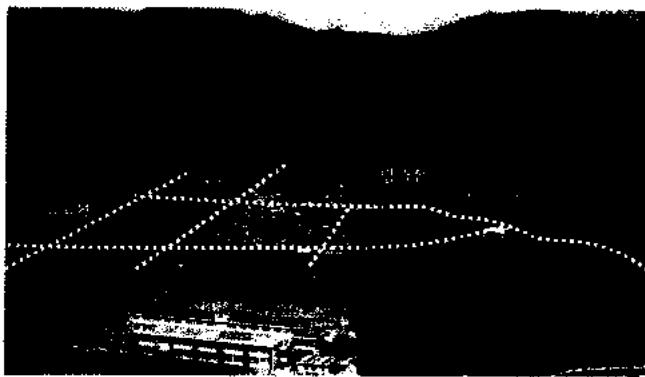
느 길을 백하든 길을 따라 사나흘 집을 나서더라도 신선이 부럽지 않을 만한 자연경관을 즐기고 단양으로 되돌아 올수 있는 산책로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단양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경관의 흐름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러한 도로 체계라면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절 단양은 남한강변의 수변경관과 지천을 끼고 걸어 오르면 계곡과 벌판이 주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반끽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경관 지점을 지닌 도시였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금방 김새를 알아챌만했다. 이제 단양이란 도시는 외부 세계를 잇는 세 개의 통로로 이외에도 걸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은밀한 통로를 하나 더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단양이란 도시는 사람이 걷는 Human scale을 기본으로 Walking Network을 직조한 Walking space의 패러다임을 지닌 도시였을 것이라는 내 나름의 가설을 일단 확인하게 된 셈이다.

Mapping, 1980년대 단양 도시 구조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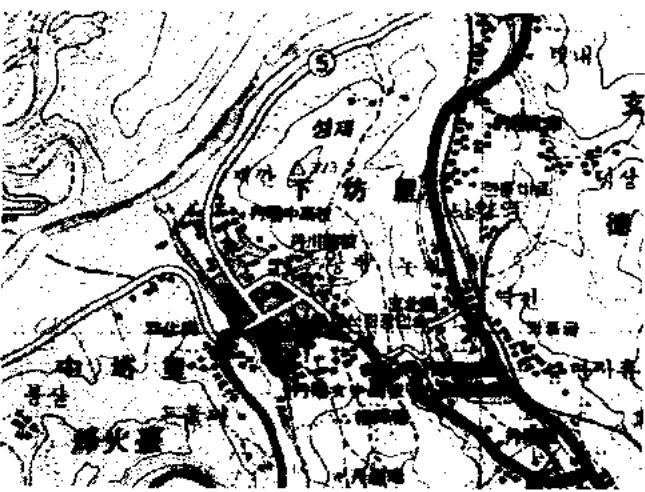
마치 바람결 소리를 타고 하방리 잡목 사이를 헤집고 들려왔던 울음소리는 이제 누군가의 말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듯 귀가에 맵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허물어져 가고만 있었던 단양의 참모습이 이제 지도 저편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소백산과 남한강이 만들어낸 자연경관의 거점 도시 단양, 그래서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과 화원들이 이곳을 찾곤 했을 것이다. 지도는 읽으면 읽을수록 현장에 다가가면 다가 갈수록 퇴계 이황이 이곳에 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염습해왔다.

단양 1980년 1/50000 지형도를 한참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속에 기록된 단양이란 도시는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꽃임이 느껴졌다. 성재산 자락을 따라 서쪽을 향해 앉은 그 기아한 도시 생김새도 생김새인데다가 남한강과 단양천, 두 강이 만자는 합수머리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까지 특별해서 생겨나는 아름다움일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양이란 도시가 지니 선의 미학은 산과 물의 경계³⁾ 자체였다. 도시는 으레 도로가 있기 마련이고 그 도로를 따라 크고 작은 길들이 이어지고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실핏줄 같은 길을 따라 집들이 모여 마을이 예기 저기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양은 그렇지 않았다. 사방 어느 쪽에도 아무 마을을 거느림 없이 혼자 산과 물을 바라보고 죽령너머 봉화로 가는 봉화대로 외줄기 길에 의지하여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하늘과 경계 짓고 있는 제비봉과 사봉 그리고 봉화산 두악산 밑자락을 흡사 연필을 대고 그은 것 같은 곡선을 동서로 그리며 이어지다가 강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자를 댄 것 같이 직선으로 뻗어 오른 뚝방길과 만나고 있었다. 자연은 단조로움을 피하여 조화를 이루고 싶었음일까. 산자락을 따라 자유 곡선을 이루던 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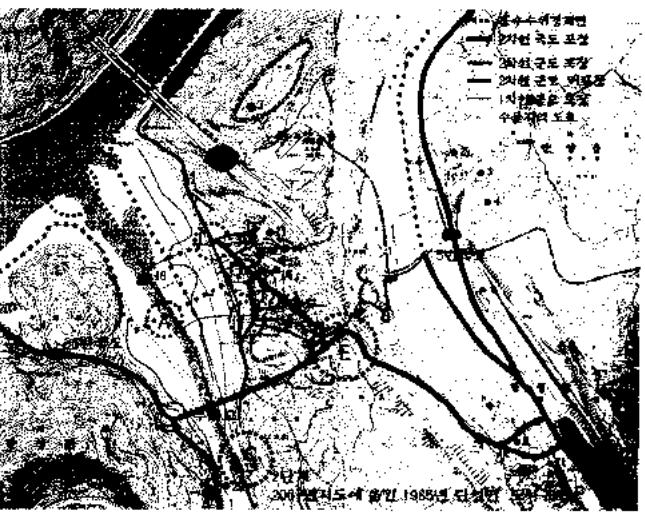
2) 1918년 미국 시카고 북부의 헤이즐(Hazel Avenue)에서 태어났다. 1935년 예일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하지만 그 곳의 진부한 학습방법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 2년 만에 예일대학을 그만두고 랄프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밑에서 건축 도제수업을 시작한다. 이후 탈리신(Taliesin)에서의 생활을 접고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 들어간다. 1944년 군에 입대하고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린치는 맥포드(Lewis Mumford)의 *Technique and Civilization(1934)*, *The Culture of Cities(1938)*를 읽고 도시에 대한 연구의 길로 들어선다. MIT에 입학하여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MIT의 교수가 된다.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1952년부터 일 년간의 유럽여행(주로 이탈리아, 프랑스에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수행했던 연구 생활), 이곳에서 린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MIT로 돌아온 뒤 MIT의 교수이자, 유명한 화가인 케페스(Gyorgy Kepes)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다. 브스턴, 누제지, 로스엔젤레스를 대상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 린치는 도시설계에 대한 교육받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대중의 잡zá이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The Image of The City(1960)*이다. *The Image of The City*의 출간 이후 환경설계 이론가로서의 린치의 업적은 그 깊이를 더해간다. 그 후 *Site Planning(1962)*⁴⁾ 출간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린치는 도시의 형태와 도시설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별 관련성이 없었던 계획 이론의 여진 가치를 하나의 줄기로 정리하려는 통합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린치가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 미친 가장 큰 영적 중의 하나이다.



〈그림 4〉 1980년대 단양



〈그림 5〉 1980년 단양 1/50000



〈그림 6〉 1/50000 지형도에 옮긴 1980년 단양의 도시구조

하방리 중심부에 접근하면서 자로 댄 듯 직선을 이루다가 다시 산 자락을 만나게 되면 능선을 타고 스스로를 해방하는 듯 고개 마루 까지는 산 모양을 따라 자유로운 곡을 그리며 농재를 네며 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단양이란 도시의 아름다움은 잉태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선비가 난을 칠 때 생기는 아래한 곡선 그 자체였다. 그런 단정하고도 힘찬 모습의 단양은 자리 잡아도 하필이면 충주댐 만수위에 맞춰 자리를 잡은 것이다. 지형적으로 보아도 단양은 어쩔 수 없이 충주와 풍기의 경계였다. 그러므로 단양은 풍기 아니 영남의 문턱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단양을 영남을 지키는 수문장이라 생각하여 성재산에 적성산성을



〈그림 7〉 중방 삼거리에서 본 59번 국도 절점C



〈그림 8〉 농재 절점E



〈그림 9〉 합수머리 절점G



〈그림 10〉 단양초등학교 운동장 절점D



〈그림 11〉 단양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유적

쌓았던 것이다. 충청도와 강원도 사람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재산을 바라보면서 신라 사람들의 생각을 수긍했다. 이곳 사람들은 성재산을 신성시하여 함부로 오르지 않았다. 주위에 둘러친 제비봉(722)이며 말목산(720), 사봉(887), 두악산(722)은 모두 사람들이 폐를 지어 오르내렸으나 정작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성재산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무슨 까닭일까. 신라 시대 적성산성을 쌓은 이래 함부로 오르지 않는다는 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산, 그런 산을 하나쯤 갖고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도를 들여다보니 성재산은 아름답다 못해 신비스럽게 다가옴이 느껴졌다. 이렇게 생긴 도시가 바로 단양하방리와 중방리였다.

잠시 호흡을 멈춘 나는 걸음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59번 국도 반대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단양천 물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길은 그 물줄기를 따라 읍내를 관통해서 남한강 갓가를 감고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 한 가닥은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 지도를 읽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머무르는 곳마다 나름의 생각을 풀어 놓을 수 있었다. 당시 내가 읽은 단양의 통로(Path)는 대체로 7개의 절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 3개의 절점 B, C, E는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4개의 절점 A, D, G, F는 통로의 교차점, 길목에 해당했다.

타지에서 진입하는 관문격인 첫 번째 절점 B 구역은 단구협에서 진입하는 36번 국도와 중도리에서 재간머리로 진입하는 5번 국도가 서로 마주보는 합수머리에 형성된 북단 절점으로 남한강 경관



〈그림 12〉 복도 沿 절점C



〈그림 13〉 복도별암 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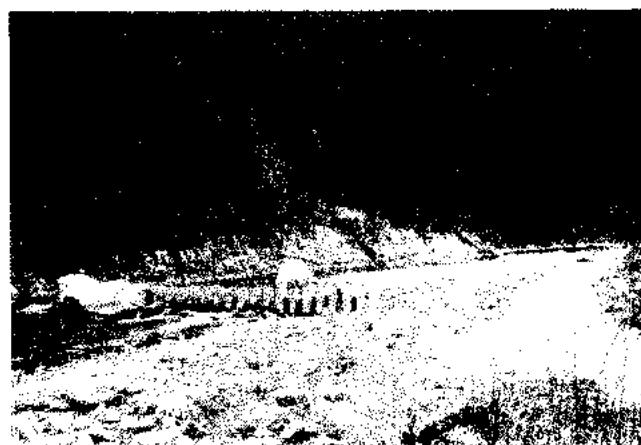
〈그림 14〉 길광대 암각자



〈그림 15〉 중방리 사지 입구



〈그림 16〉 중방리 사지



〈그림 17〉 대동바위 일대

과 단양천 경관이 총돌함으로서 랜드마크적인 시극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59번 국도변은 이곳이 황장산을 거쳐 문경으로 연결되는 마을 어귀임을 상징이라도 하듯 주변에 탄오내 암각자와 길광대 암각자 그리고 중방리 사지와 소이산 봉수, 마당바위, 단봉사 같은 바위와 건물들이 군을 이루어 랜드마크적인 절점 C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갯마루 농재는 단양읍내를 하방리와 북하리로 나누고 단양을 조망할 수 있는 시극점 노을을 형성하고 있다. 단양의 외부 진입통로인 단구협 육십리 길 36번 국도와 증도리 삽십리 길 5번 국도로 조성된 두 강변길 그리고 이 두 길이 만나 5번 국도 하나로 죽령 너머 가는 육십리 산길 세 가닥 길

이 모두 하방리 옛 단양읍 읍내 삼거리에서 만나 도심을 형성하게 된 까닭에 교차 지점인 우회교는 하방리 중심을 형성하는 절점 A에 해당했다. 이때 절점 F는 읍내에서 농재 너머 가는 길과 단양중학교와 단양 초등학교를 잇는 교차점이었다. 그리고 절점 D와 G는 5번 국도를 농재와 연결하는 일종의 외곽 도로였다.

절점 C를 찾아나선 나는 중방리 삼거리 방터거리를 원편으로 돌아 두약산과 사봉 사이로 꼬리를 감춘 59번 국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 오백여 보 쉼 없이 걷다가 단양천변으로 내려가는 자드락 길로 들어섰다. 거기서 다시 두약산 자락을 바라보고 원편으로 길을 잡아 곧장 얕은 들길로 접어들어 중방리 사지³⁾ 앞을 지나 돈돌미 늪지대를 향해 길을 내려섰다. 이곳 오른편으로 복도(復道)소(召) 주변에 길광대 암각자가 있었다.

복도소(復道沼)란 단양천 하구에 생긴 첫 소를 말했다. 이곳에 뭇이 세군데 있었으나 퇴계 이황은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첫 번째 뭇에 보(洑)를 쌓았고 주변 화강암 바위에 길광대(吉光臺)라는 글자를 새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뭇 근처에 고려초기 사지가 있었고 두약산 중턱에 단성사가, 마지막 뭇인 개천 한가운데 마당바위가 있다. 그런 까닭에 이곳은 59번 국도를 따라 황장산을 거며 주고 문경으로 너머 가는 단양 진출로의 랜드마크(landmarks)적인 곳이기도 했다. 이들은 장소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자연의 일부인 돌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관찰자가 외부에서 바라만 보아도 주위 경관 속에서 두드러져 보다 강한 이미지로 부각 되는 아취나 도모, 오벨리스크 등과 같은 기념물적인 건축물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 여기서 중방리 사지 길을 버리고 오른편으로 들판듬성 길길이 자란 역사밭을 지나 강들이 무성한 개활지로 내려서자 단양천을 가로질러 상방리 마당바위가 나타났다. 마을사람들이 하지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들이던 바위라곤 하지만 석벽을 타고 애써 숨어 흐르는 작은 폭포, 물울이 깃밥 속으로 잡혀오는 개울물소리, 갈잎 흔들리는 소리. 이들은 모두 발새 익은 이 길을 찾아 올 때마다 나를 맞이했던 자연의 소리였다. 심화를 어지럽힌 그 소리가 풍치가 너무 아름다워 밤걸음을 되돌리기 어려웠다. 그것이 두려워 설사 길을 놀라지 않고 곧장 합수머리까지 질려간다 하더라도 이천여 보가 빠듯해 보이는데 해는 벌써 기울기 시작했다.

차츰 햇살이 두터워질만한 시각이었으나 단양천 건너 회색빛으로 물든 단성을내는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드센 바람결에 어지럽게 웃자락과 머릿결이 나부낀다. 빈 운동장처럼 썰렁하게 펼쳐져 있는 거무튀튀한 색깔의 중방리 뱀발 사이를 나는 지금 우회교 진입 도로 절점 A를 찾아 두어 시간째 헤매고 있었다. 이때를 대비하여 등산화를 신고 오기는 했으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뱀에 발은 미끄러져 발목까지 빠져 들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바닥은 늘어붙은 진흙덩이는 귀신처럼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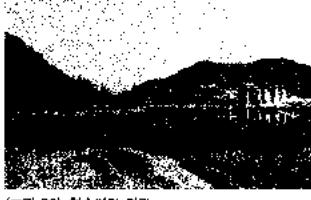
3) 고려 초기 사지로서 전탑지와 목탑지가 발굴된 사지였으나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림 18) 중방리 잡목 숲



(그림 19) 신우학교 잡목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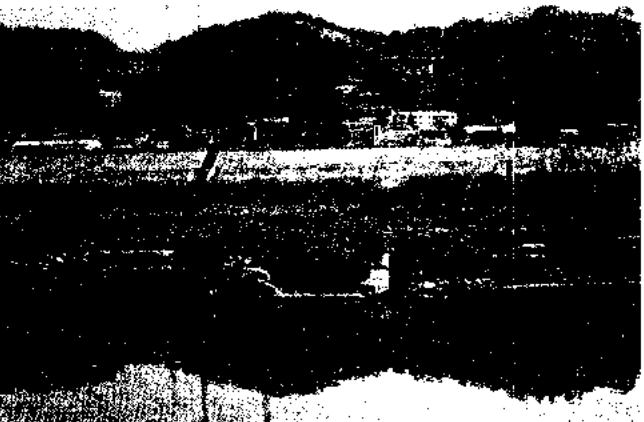
(그림 20) 합수머리 경관



(그림 21) 신우학교 경관



(그림 22) 중방리 옛 주거지에서 본 뚝방과 상방리



(그림 23) 하방리 우화교 교각 총적

뻘밭에 여러 종류의 잡목들이 있어 얹히고 설킨 그 잔가지들이 예고 없이 바짓가랑이를 긁어댔다. 한치례 뱀을 걷고 나면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들이 일삼아 바늘로 훑을 묻혀 그어놓은 것처럼 온 바짓가랑이를 휘감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부지런히 걷는 것만이 빨리 질퍽한 폐허의 커다란 손아귀에서 베어나는 길이었다. 이 생각에 쫓긴 나는 내 머릿속에 그어놓은 옛 단양읍내 길을 찾아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빨밭 잡목 사이를 헤치고 있었다. 이렇게 1985년 새로 지은 우화교 교각에서 시작된 답사의 첫걸음은 불과 백여 보 걸음 언덕위로 36번 국도가 바로 코앞을 지나치고 있었고 예서 평지걸음으로 십 수분 만 제 걸음으로 곧장 앞으로 걸어가도 남한강에 닿을 정도 거리에서 비롯되었으나 빨밭에 들어서자 걸음은 끝이 없는 듯 했다. 잡목 숲을 헤

치고 뱀을 더듬어 옛 단양의 모습을 찾아나서는 나의 모습은 그대로 극한에 달한 환경과 경관변화의 표본이었고 모진 장소성의 상징이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인 단양의 원형을 찾아 기록하려는 탐험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작 칙칙한 뱀 속에서 과거 단양의 혼적을 발견할 때마다 고생한 대가에 대한 기쁨보다 먼발치로 이어져 가는 희미한 단양사람들의 족적에서 가슴 푸들거리는 아픈 떨림 같은 것들이 저며 있음이 느껴지곤 했다. 더구나 이곳에 오기 전부터 원래 단양이란 도시는 커다란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층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불량 도시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층주댐을 세워야 하는 간단한 몇몇 이유로 흥수지역인 이곳은 이미 폐허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곳 사람들로부터 불가피한 수불지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현실을 거부하기에 그들 스스로 무력했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듣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심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수해지역이란 구실을 앞세워 행정권을 발동해 수용력을 행사한 공권력 속에 재해지역인 바로 이곳이 경관의 금발이라는 증거가 숨어 있었다. 이것을 너무도 단순하게 포기한 무력함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그나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 낯 설은 땅에서 삶을 연명하게 되고 만 셈이다. 우화교 근처에 다가갈수록 정작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대의 눈물이고 아픔이자 한이 서린 장소성 그 자체였다.

들녘으로 변해버린 도시, 단양

하방리는 하방리대로 중방리는 중방리대로 합수머리 백사장은 백사장대로 뺨으로 변해버렸고 나날이 그 황량함이 진하고 두꺼워만 갔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뺨밭에 물이 차고 빠짐이 거듭될수록 갓벌은 두터워져만 갔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갈수기인 겨울이 되면 드넓은 들판으로 변해버린 하방리와 중방리 일대 들녘은 초콜릿빛 두꺼운 질감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다가 거무튀튀한 색깔의 뱀이 초콜릿 색에서 갈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렇게 초콜릿 색깔이 열어져 갔고 그럴수록 드넓은 들녘은 더욱 부드럽고 두꺼운 갈색 질감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하방리 일대가 갈색으로 열어진다는 것은 단양천에 비친 햇빛의 그 반짝거림은 유난히도 윤기를 드러냄을 의미했다. 더구나 겨울 드물게 바람이 찾아들어 드문드문 불어오는 바람결에 단양천에 수많은 물이랑이라도 이루게 되면 이곳은 부드럽고 묵직하게 출렁이게 된 물결로 온통 햇볕 조각들이 살아서 뛰어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럴 즈음이면 단양천 눈부심에 달이 오르듯 떠오른 두악산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갈수기 겨울이 주는 단양천의 선물이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넓고 넓은 폐허로 변해버린 들녘을 멀리서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절로 감탄을 흘릴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은 예전했다. 수몰된 지 삼십 여년이나 되가는 지금 폐허라기보다 차라리 자연의 일부로 환원되어가고 있는 도시 단양의 잔해를 보고 있다는 편이 훨씬 더 좋은 듯 했다.

하지만 그 물결 속에 두악산 자락 스카이라인을 뚝방으로 허리를 잘라내고 콘크리트 토대위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을 올려놓은

곳이 그나마 이곳에 남아 고향을 지키는 상방리 사람들의 삶의 터 전이었다. 박제된 박물관의 진열장처럼 드러난 상방리, 이렇게 도시가 문화적 퇴적층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도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지(寺址)에서, 건물지에서 늘 상 점했던 것은 폐허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양상하게 드러낸 문화퇴적층과 이것을 고이 간직하고 웨던 주변을 심심치 않게 점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그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들은 거의 모두 전쟁과 화재, 방화등과 같은 물학의 역사인자와 함께 찾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문화 유적지들이었다. 그런 탓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대충 과거를 읽어낸 만한 환경, 역사경관이 상존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특이하게도 근자 우리가 홍수방지 대책의 하나로 만들어낸 댐건설로 불가피하게 생긴 수몰지 이후 대책의 하나로 발생한 집단이주의 잔垣이 역사의 궤적으로 남아 이제 숨 가쁘게 폐허로, 자연의 일부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옛 모습을 드러낸 중방리 마을 콘크리트 포장 길 위에서 마치 사라진 장소의 목격자처럼 폐허가 된 중방리와 하방리 옛 단양의 모습을 번갈아 가며 돌아보고 있는 내 기분은 여러 가지 묘했다. 우선 유적지로 변해버린 중방리 우화교 다리 교각 근처에 다니렀을 때 무렵 이곳이 홍수만 지면 물에 찼다는 점이 그랬고, 충주댐건설 이후 더 심했다는 사실도 그랬고, 이곳이 옛 단양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은 사라진 도시의 유적지로 변해왔다는 사실 또한 그랬고, 1985년 그토록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이 다리를 군에서 폭파해 버렸다는 것도 그랬고, 이곳에서 하방리를 바라보면 한눈에 이일대가 들어오는 점도 역시 그랬고, 36번 국도가 5번국도와 하방리에서 만나기 위하여 들어오는 진입부라는 점이 그랬고 이곳에 들어오자 이곳을 중심으로 도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슬그머니 동하는 것도 그랬다. 나는 다시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 우화교 흔적에 다시 눈길을 보냈다.

원래 우화교 다리 근처에 탁오대라는 예서체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글씨가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바로 조선명종 때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 이황이 썼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곳 정사에 시달린 그는 심신의 피로를 풀고자 단양천 상류를 자주 찾곤 했는데 이 암석에 앉아 손발을 씻고 심신을 달랠 바 많았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굴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글귀 탁오영(濯吾縵) 탁오족(濯吾足)을 인용하여 탁오대라 명명하고 친필로 각자(刻字)하였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 홍수로 특이한 경관으로 높은 콘텐츠의 도시 단양은 결국 신도시 단양을 건설하여 이전한 뒤 수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곳은 이름마저 바꾼 나내지 행정구역을 단성면으



그림 24) 우화교와 탁오대



그림 25) 탁오대암각자

로 수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옛 단양 그곳은 수몰되어 사라지고 없다할 지라도 장소성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수몰로 사라진 도시를 기억에서 자료에서 불러내어 재구성해내는 일이 이었다. 과연 단양 읍내구성은 어떠했을까. 이제부터 할 일은 폐허가 된 하방리 일대에서 1980년대 단양의 모습을 찾아내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로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지형뿐이었다. 변덕스런 날씨는 먹구름을 끌려 치고 바람마저 서서히 자자들게 했으나 추위만큼 간절했던지 옵내는 아직도 농도 짙은 정적에 묻혀 있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천 여보에 불과한 뱀발을 마다 않고 이곳까지 왔으나 나머지 천여 보 뱀발 길을 걸어 36번국도 옛 궤적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니 남은 하루 일정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역사 앞에 다가 서야한다. 고통으로 흔미해져가는 내 의식 속에 단지 이 생각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저곳에 하방리와 중방리 옛 단양의 도시흔적들이 꼬리를 달고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우리 건축문화재 다시보기

Re-thinking about Korean Building Treasures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총화이기에 어느 문명국이건 역사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현대에 접목 발전시키는가는 바로 국가적인 자존심이며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여 존재의미(정체성)를 찾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전년의 민족문화를 지금으로 삼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깝게는 대한제국에 그 뿌리가 있음을 천명해 왔다.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불타는 남대문(승례문)을 흙은 통곡하며, 혹은 아린 기슴으로 바라보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건축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케 한 실증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 한 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한 해였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건축문화재 중 많은 생각을 하게한 대상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문화재는 고려 이후의 것이 겨우 남아있고, 그나마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조선말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桎梏)기에 우리 전통건축은 질식되고 말아. 우리보다 다소 먼저 서양문화를 수용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 땅에도 일본적 반안(聯案) 형태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이 난무하였으며, 우리의 건축은 도시의 주택에 그것도 상업적 이유로 오랜 건축적 품위를 끊어버린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아마도 6.25동란은 전국을 피



(그림 1) 불타기 전의 남대문과 화재로 전소된 후의 남대문 모습 (필자촬영)

목 차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2. 원구단과 조선호텔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3. 한옥 문화재_한규설 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마을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폐하게 하였고, 실용적인 이유로 소위 신식 문화주택 등 국적불명의 주거문화가 판치게 되었고, 고도(古都) 서울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의 난립으로 숨막히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숨자기 모방해온 서양건축의 밀물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다소 정리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복판에도 온통 유리와 철로 뒤덮인 몰개성의 대형건물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북촌한옥마을을 보존하게 하였고, 가구 하나 변변히 남지 않은 궁궐들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요즈음 껌데기 나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인의 끈기를 새삼 기대하게 한다.

부디 이 땅의 건축사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의 건축에서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기를 손 모아 기다려 본다.



(그림 2) 100년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 모습 (사진출처_국립문화재연구소 승례문복원자료집, 서울학연구소)

필자 : 홍대현,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ong, Dea-hyun

홍대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했고, 인임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교수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현재까지 교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에 미국 MIT에 Visiting Scholar로 재류하여 미국의 건축교과서 두부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활동이사, 외에 한국건축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교육사설학회, 그리고 한중건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건축문화재 1. 서울편, 2. 경기편」이 있다.



3. 한옥 문화재- 한규설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마을

-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서울의 대표적 반가(班家)_한규설(韓圭高) 대감 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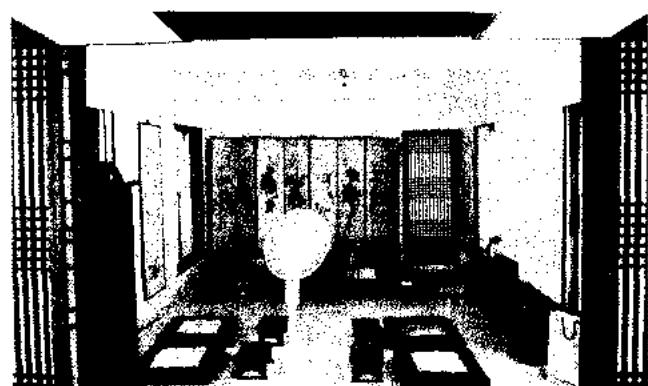
오백년 조선의 도읍이었던 지금의 서울에는 우리의 전통건축물이 하나 가득 있어야 마땅하나 신식 문물을 추구하며 도시 개발에 몰두해온 60여년 만에 우리의 전통 살림집이 거의 밀살되어 극히 소수의 한옥이 문화재로 보호되어 남아있다. 이런 형편에 한말의 충신이셨던 한규설 대감의 저택이 우여곡절 끝에 원래의 도심 자리에서 뚝 떨어진 정릉 골짜기로 옮겨져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한 대감댁으로서 서울의 반가로는 드물게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예이다.

정릉길 따라 국민대학교에 거의 갈 즈음 북쪽으로 국민대 담장을 끼고 난 쭈 작은 포장 언덕길을 들어서면 이 길 남쪽에 한옥 지붕이 보이는데, 이 집이 국민대 기정과에서 다도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한규설(韓圭高) 대감댁이다.

이 집은 원래 중구 장교동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으로 성곡 김성곤 선생의 부인 명원(馨園) 김미희(金美熙) 여사의 기증으로 약 1,476평의 대지에 원래의 구성대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서울의 번듯한 반가가 이렇게 보존되어 학생들과 답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체 배치는 위계에 따라 대문채, 사랑채, 안채와 별당채, 그리고 사당으로 구성되어있고 대문채 안쪽으로 행랑채도 남아있다. 행랑마당 사랑마당-안마당-사당마당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공간구성을 볼 수 있고, 각각의 건물이 모두 녹립된 건물로 되어 각 채를 사이에 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솟을대문에 붙어있는 문간채에 행랑이 붙어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혼자 남아있지 않다.

대문간을 들어서면 'ㄱ' 자로 꺾인 중문채가 있어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된 동행문이 있다. 이렇게 사랑채가 중문채와 담장으로 안채



와는 완전히 분리된 것은 한규설 대감이 조선말에 한성 판윤을 지냈고 이어 의정부 참정으로 내각을 조작하였으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반대하여 파직된 당시의 뛰어난 상류계층의 정치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에 의한 구성으로 여겨진다. 또 안채 뒤면의 사당은 전면 2칸의 작은 규모이나 전면에 퇴를 두었고 동서 측면은 사고석과 벽돌로 단정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 집의 원래 터에서는 청계천 쪽으로 통하는 작은 협문이 있어서 좁은 골목으로 청계천에 이를 수 있었다.

이 집의 건물에는 잘 다듬어진 화강석 장대석이 기단에 쓰였고 초석 또한 반듯하게 다듬어 썼으며, 부연을 단 겹처마이며, 전면은 굽도리로 하고 후면은 납도리로 짜였는데, 여기에 모두 소로발침이 쓰인 것은 조선말 대갓집의 풍모이라라.

이 집에서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창호가 현대식으로 개조되었고, 조경 식재가 어색한 점이다. 또 목조 한옥이 오랜 시간 손때로 가꾸어져 반짝이는 광택이 있어야 하건만, 내화도료가 목재에 침투되어 시커멓게 변색된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현재의 이집을 답사할 때 주의 할 것은 사랑채 남쪽 협문 밖 경사지에 조성 해 놓은 정자와 조경 마당이 눈길을 끄나, 한 대감댁과는 상관없이 꾸며진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 선비의 멋_독락당(獨樂堂)

선비의 나라 조선에서 오현(五賢)의 한 분으로 문묘에 향사(享祀)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은 선비로써 많은 글곡과 광영의 삶을 사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전통건축에 사랑과 연민을 품고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건축문화를 아끼고 자랑하고 즐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뛰어난 건축 유산을 남겨주신 선각이자 멋쟁이로 살아있다.

회재 선생은 어릴 때 정든 외숙 손중돈(孫仲敦) 선생의 서백당(書百堂; 손씨 가문의 대종가_한때 손동만 가옥으로 불림)이 자리 잡고 있는 양동마을에 그의 학문의 깊이와 인간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뛰어난 한옥을 남겼으니, 오늘날 이씨 가문의 대종가가 된 무첨당(無添堂)과 이에 뜻지 않은 향단(香壇) 등의 보물을 남기셨다. 이것은 물론 기름진 안강평야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겠으나, 회재 선생의 뛰어난 건축적 안목이 덧붙여졌기에 이를 수 있는 성과일 것이다. 아울러 회재 선생은 자연의 풍치 속에서 자신의 관물관(觀物觀)에 따른, 너무나도 부려운 말년의 생활을 위해 양동의 본가 외에 또 한 채의 보물을 만드셨으니, 옥산리(玉山里)의 독락당(獨樂堂) 별서(別墅)가 그것이다.

이곳은 잘 알려진 옥산서원(玉山書院)이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건너에 보이고, 북으로 들어가는 고즈넉한 시골길로 잠시 더 들어가면 앞에 채전을 두고 당당하게 선 한옥 대문채가 보이니, 이 곳이 바로 독락당이다.

주위에는 다른 승경지와는 다르게 우리들 속인의 눈으로 돌아보아야 승경의 자태를 가졌을 법한 아름다운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맑은 계곡물을 자랑할 만해 보이는 계곡수(溪谷水)도 감잡히지 않는 그저 우리나라 시골모습만 보일 뿐이다.

대문채를 들어서면 문간마당 오른편에는 담장으로 쌓여있는 작은집이 있으니, 일꾼들의 거처인 공수간이 있다. 이 공수간 담장이 꺾여있어 자연스레 왼쪽으로 빗겨 마당을 보면 정면에 보통은 늘 열려있는 중문간이 있다.

이곳이 이 집의 첫 번째 묘미이니, 얼핏 보아 미로 같아 보이나 교묘하게 이 집의 주인네와 초대받은 손님네와, 그리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늘 무시로 들이 닦쳐 집 구경 하겠다는 부산스런 구경꾼들을 교묘히 분류하고 정리해 주는 공간이다. 즉 이곳 중문간에 들어서면 처음 왼쪽에는 안채로 통하는 샛마당이 보통 담혀있는 판자문사 이로 보이는데, 이쪽은 조용하고 조금은 엄숙해서 함부로 들어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 맞은편에는 양편이 단정한 흙담으로 된 좁지만 터진 골목길이 있어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동시키니 안 가볼 수 없게 만들고, 골목 끝에 다다르면 드디어 꽁꽁 숨어 있던 아름다운 계곡과 건너편 숲이 보이고, 계곡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시선주면 사랑채 담장 끝 즈음에 계곡의 너른 바위에 허약해 보이는 가늘고도 상당히 긴 몇 개의 장대 같은 나무기둥 위에 올라앉아 너른 계곡을 몽땅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계정(溪亭)이 기대보다는 훨씬 조그맣게, 그래서 일견 검소해 보이기까지 한 숨은 모습을 보인다. 이곳의 멋은 역시 물이 넉넉한 여름철이 제격이다.

다시 중문간으로 돌아오려다 무심코 계곡에 면한 담장 중간에 나무 한그루 섰는데 그 바로 옆에 큼직하게 뚫어놓은 살창이 보이니, 이 또한 이 집 사랑채에서 계곡을 만끽하고자 한 선비 회재 선생의 욕심이자 너무나 부려운 멋이다. 다시 중문간에 서면, 대문간 맞은편이 마치 막힌 골목처럼 보이는데, 오른편에 작은 협문처럼 보이는 문의 옆모습이 보이니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진다. 이곳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90도 꺾어 북향하면 반듯한 앞마당을 정남하고 흐트려짐 없이 정좌한 너른 대청과 원편에 온돌방을 합쳐 정면 네 칸에 큼직하고 흰 찬 글씨로 옥산정사(玉山精舍)라 한 현판을 내걸고, 대청 안쪽에 다시 독락당(獨樂堂)이라 옥호를 걸어놓았으니, 바로 이집 주인인 대감님의 거처인 사랑채이다.

사랑채는 정면이 네 칸에 측면은 두 칸으로 된 반듯한 건물로 안채 쪽에 정면 한 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 정면 세 칸에 측면 두 칸은 마루방이다. 이 마루방 안쪽 독락당 현판이 걸린 곳 쯤이 아마도



주인 대감자리 일 것으로 짐작 되는데, 그쯤에 멀지 쌓인 바닥을 손으로 썩 문지르고 앉아 보면, 마당 건너 과히 높지 않은 담장과 아담한 정원수 몇 그루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담하고 고즈넉한 정경으로 다가온다. 특히 이곳 마당 한 쪽의 출입문이 마당 한쪽에 옆으로 있어 마주보지 않고 돌아 선 듯한 구성이 돋보인다. 이 곳 대청에서는 언제나 동편의 계곡수(회재는 이곳을 紫溪라 했다.)의 물소리가 밝게 들린다.

이곳 대청에서 좋은 벗과 마주했다면 물소리에 끌려 함께 바라보고 싶어 졌을 터이고, 이런 때를 대비해 회재는 사랑채 동편 흙담장에 름지막한 실장을 내었으니, 이 얼마나 넉넉한 호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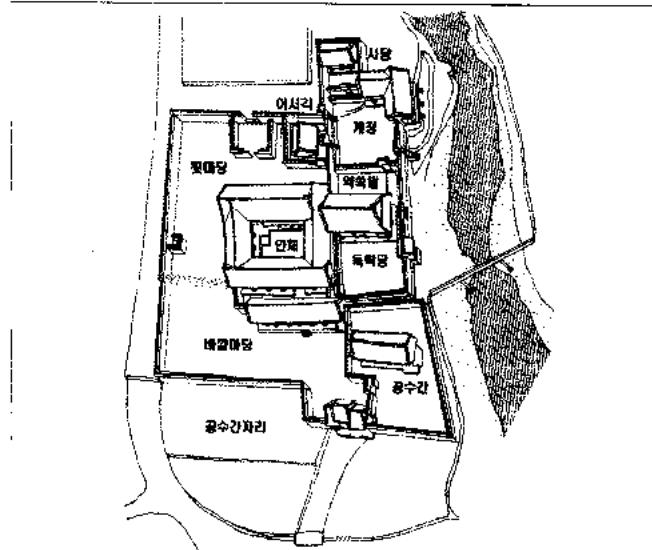
사랑채 북쪽에는 다시 낮은 담장이 있고 작은 협문이 달려있어 이를 밀고 들어서면 자그마한 'ㄱ' 자집이 계곡 쪽에 붙어있으니 이곳이 이집 독락당의 비밀스러운 보배인 계정(溪亭)이다. 이곳은 손바닥 보다 그저 조금 큰 판자에 조출하게 계정 두 글자를 써 걸어놓았는데, 마당에 접한 마루는 그냥 뒤 계곡 쪽이 열려있어 그 작은 현판이 없어도 그냥 계곡의 일부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한다. 더구나 이 계정은 마루가 높지 않아 어찌 보면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나, 막상 마루에 올라 조금은 약해보이는 계자 난간에 가볍게 기대어 계곡을 볼라치면 계곡 속에 들어앉고 싶은 집주인의 욕심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계정 안쪽의 온돌방이나, 계정 뒤편의 사당, 안채쪽 어서각 등은 기웃해 보고픈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이렇게 계정에서 자계의 정취에 잠시 빠져있다 보면 요즈음 같은 으스스한 봄이라도 빨리 계곡에 내려가 보고픈 유혹이 절로 들어 들어올 때 잠시 보았던 계곡 물가로 서둘러 내려서게 되고, 찬 물에 손 적셔보고, 다시 쳐다보게 되는 계정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가슴 벅찬 감흥으로 느껴지게 되고, 잠시 후 그 운치에서 깨어나면 다시 부리움과 함께 집주인의 안목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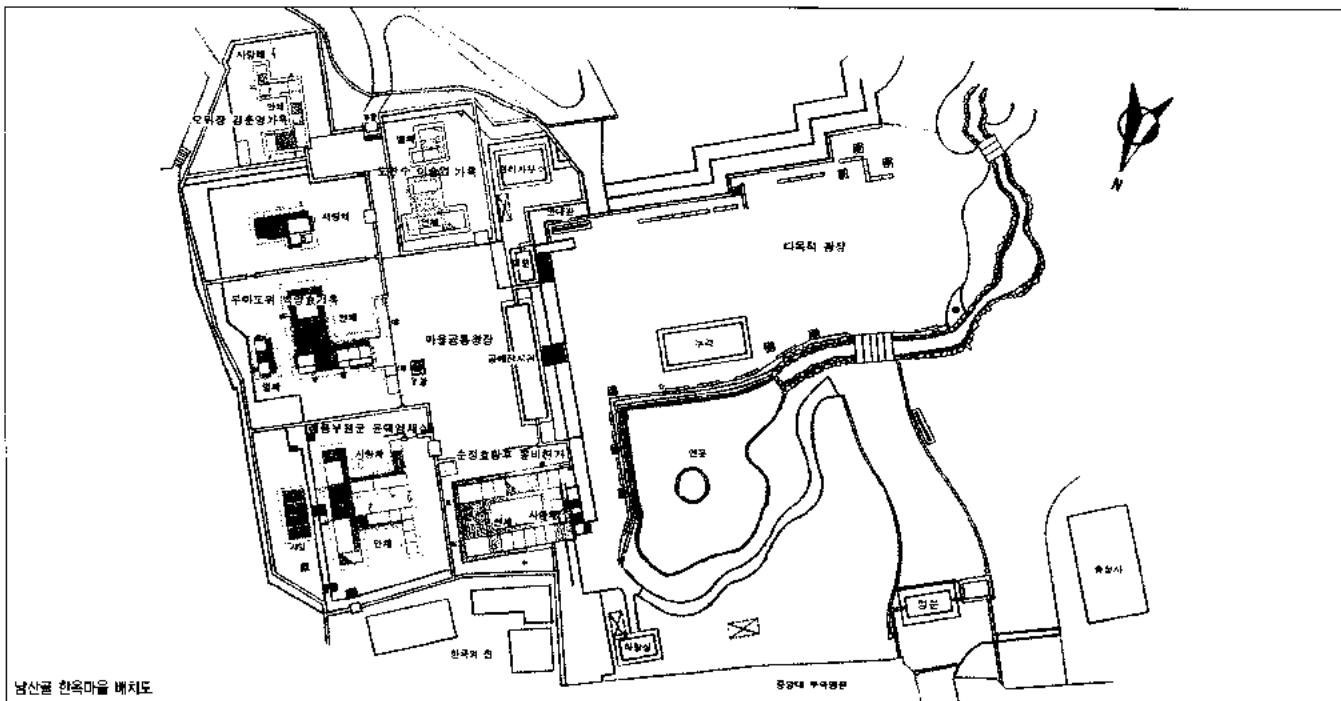
회재는 이 집터 주위 산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 북쪽 주산을 도덕산(道德山), 남쪽 인산은 좀 멀리보이는 봉우리에 무학산(舞鶴山)이라 했고, 동편 봉우리를 화개산(華蓋山), 서편 봉우리를 자옥산(紫玉山)이라 했다. 또 계곡에 있는 바위에 이름을 붙여 즐겼으니, 계정이 올라 앉은 넓은 바위를 관여대(觀漁臺), 목욕하고 시 읊는 자리로 영귀대(鶯歸臺), 갓 풀고 땀 삭히는 탁영대(濯纓臺)와 마음을 평정하는 징심대(澄心臺), 잡념을 씻어 버린다는 세심대(洗心臺)라 하였고, 4산 5대의 계곡 전체를 자계(紫溪)라 하고, 스스로를 자계옹(紫溪翁)이라 자처하였다니, 오늘날 어떤 갑부가 있어 이를 흉내 내어 볼 수 있을까 싶다.



독락당 /월과 삶의 공간2_김동렬 p93 도면 재작성)

한옥마을

오늘의 우리 땅에는 몇 개의 중요한 한옥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서애 유흥룡 선생의 충효당과 유씨네 큰 종가인 양진당이 남아있어 대표적인 반가 집성촌인 하회마을은 영국 여왕 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경북 월성의 양동마을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그의 외가로 알려져 있는 월성 손씨에 의해 규모 큰 대표적인 반가들이 모여 있는 한옥의 보고이다. 즉 이씨네의 향단, 무첨당 등과 손씨네의 대종가(서백당) 뿐 아니라 많은 좋



은 한옥들이 있으나 많은 집들이 비어 관리가 잘 안 되는 점이 몹시 아쉽다. 이들 외에도 아산에는 외암리마을이 있다. 이곳은 마을 구성이 대부분 일제 통치기간에 이루어졌고, 높은 고관들의 집이 아닌 향반들이 당시 일식 조경 등을 도입한 독특한 마을이나 마을 안길이 모두 돌담길로 조성되어 포근한 우리네 마을 정서를 느낄 수 있어 좋은 곳이다. 이들 외에도 강원도의 왕곡마을은 그곳만의 독특한 한옥들이 모여 있는 소중한 곳이며, 이렇게 좋은 한옥들이 남아있는 곳은 전통마을로 지정되어있는 곳 외에도 아직은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종갓집들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우리의 전통 살림집의 멋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방에는 좋은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는 한옥의 보존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서울시에서 흘러져 훼손되어가는 서울의 한옥들을 모아 한옥마을을 조성한 곳이 남산골 한옥촌이다.

남산골 한옥촌은 퇴계로 3가 교차로에서 정남으로 난 막다른 골목 안 남산의 북사면에 조성되었다. 이곳에 모여진 한옥들은 모두 5채로, 오위장 김춘영가옥,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도편수 이승업가옥, 순정효 황후 친가, 해풍부원군 윤택영재실이 이들이다. 이번에는 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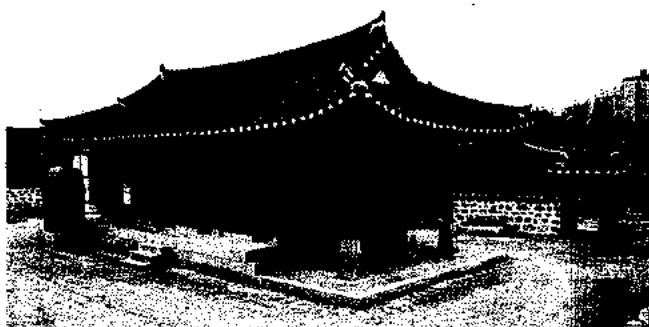
오위장(五衛將) 김춘영(金春榮) 가옥 (옛이름: 삼청동 김홍기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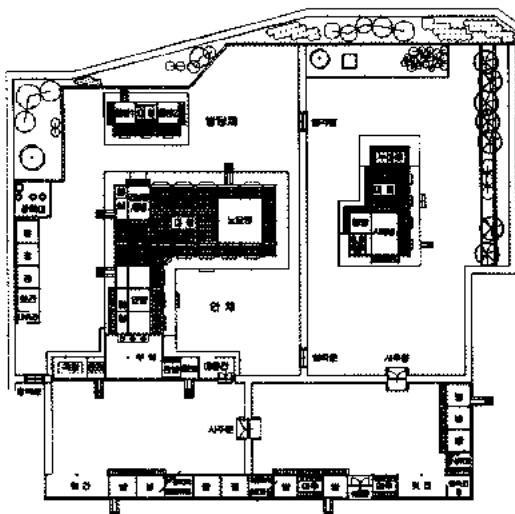
이 집은 1890년대에 지어진 조선말기 중류주택이다. 이 집은 당시 서울의 전형적인 'ㄷ' 자 집에 사랑채를 'ㅁ' 자로 붙이지 않고 대문간에서 밖으로 붙여 조성한 것이 특이하다. 대청은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으로 하고 내부에 기둥 없이 긴 대들보가 5개의 도리를 받치고 있다. 정면 2칸의 대청

에 서편에 안방, 동편에 건넌방을 두었고, 안방 남쪽에 달 있는 부엌, 찬방, 광이 연이어 있으며 그 남쪽에 깎인 대문간이 연결되고 대문간의 동쪽 끝에 다시 깎여 사랑채를 두었는데 사랑채는 다시 가운데 작은 대청이 있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대문간 동편에 힘문이 있어 사랑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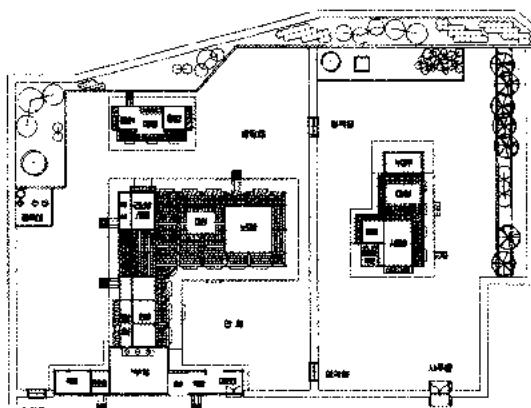
부마도위(駙馬都尉) 박영효(朴泳孝) 가옥 (옛이름: 판훈동 이진승 가옥)



남산 한옥촌으로 이전된 모습(위)과 인사동의 옛 터(아래)



멸실 이전 평면도



현재의 평면도

이 집은 철종의 영혜옹주 부마 박영효의 주택으로 속칭 서울의 8대가 중의 하나로 알려진 집이었다. 뒤에 다소 개축되기도 하였으나 대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집이다. 안채의 대청이 주택에서 보기 드물게 7량 구조로 웅장하고, 사랑채가 안채와는 긴 담장으로 구획되어 독립된 사랑마당을 비교적 넓게 갖추었고, 정교한 난간 뿐 아니라 기둥과 보 밑에 파련각(彼蓮閣)한 낙양각(洛陽閣)을 일부 붙이는 등 궁집의 면모를 보인다. 이 집은 지금의 인사동 길 안쪽에 있던 것으로 옮겨 올 때 대문간(골목 입구에 초석 2개가 남아있었음.)과 여기 연결된 행랑간과 광채가 모두 빠져버려 현재의 대문은 원래의 종문으로, 바깥채가 없어진 몹시 어색한 모습이 되었다.

현재 원래 자리인 인사동에는 남아있는 건물과 새로 들어선 건물로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 옛 정취를 일부나마 느낄 수 있다.

도편수(都片手) 이승업(李承業) 가옥 (옛이름: 삼각동 조홍운행관리가)

이 집은 180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ㄱ' 자 집으로 경기도 지방의 곱은자집 형태로 중앙에 두 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쪽에 두칸의 안방이 있고 그 앞에 남북으로 길게 두칸의 부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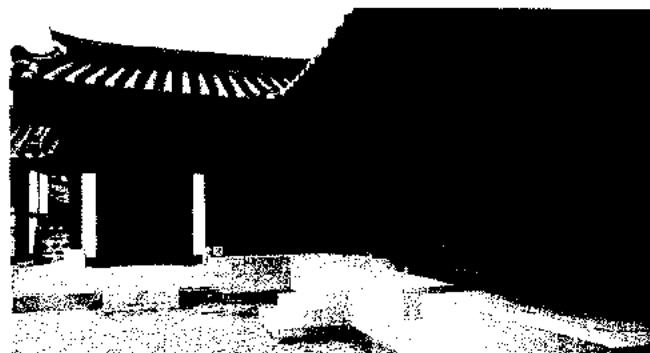
기단은 화강석을 잘 다듬어 썼고, 네모기둥에 굴도리를 얹었는

데 장여를 덧달고 보와 사과맞춤하였으며 보머리 앞을 빗자르고 옆에 문양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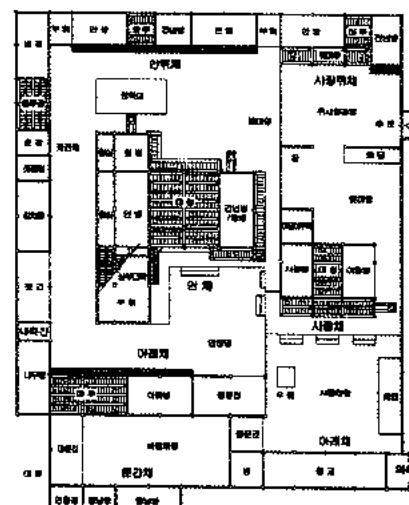
이 집은 부엌 앞 완자장, 듬직한 박공판 그리고 대청 앞 하방에 새긴 문양, 건넌방 앞 난간 등의 상세가 정교하고 재미있다.

이 집도 원래 있었던 문간채와 많은 부속채가 생략되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담장 등이 빠져 원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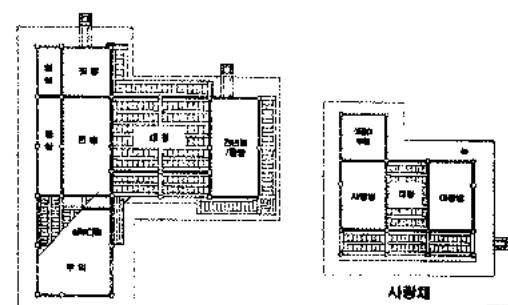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친가 (옛이름: 옥인동 서용택 가옥)



남선 한옥从中式传统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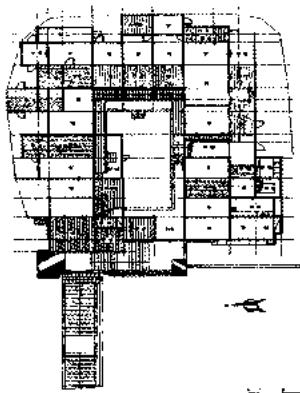
멸실 이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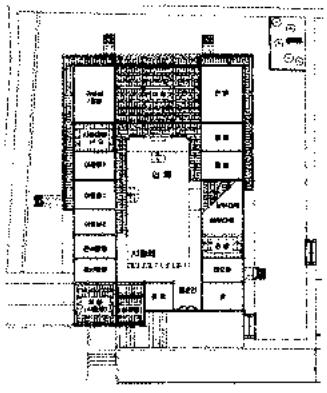
현재의 평면도

이 집은 윤비 저택으로 불리던 집으로 상류주택이라기 보다 별궁에 비견할 만한 집이었다. 조선 말 고종 12년(1875)에 지어진 집으로 인왕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여 전체가 'ㄷ' 자 형으로 동향 대문을 하였고,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누각으로 되어 사랑방 아래는 관리인실로 쓰였던 것 같다.

이 집은 팔작지붕의 합각면을 전돌쌓기 하였으며 기등은 모두 네모기둥에 외사로 모를 접었고 각 면의 중앙에 쌍사로 장식하였다. 창호는 살덧문에 완자창을 달았고, 사랑채 고정 들판의 의장이 불만하다. 대청마루는 깊이가 2칸, 전면 3칸의 6칸 대청으로 전면에 'ㄴ' 자 형태의 비교적 넓은 뒷마루를 두었다. 대청 중간에 고주를 놓았고 기등 위에 주두를 두어 장여와 보아지를 받쳤다. 부엌의 박공벽에는 행랑채 지붕 위로 사룡살(환기용 수직살)을 대어 자연 환기가 되게 하였는데 새김질이 좋고 박공 끝 조각도 전형적인 쇠 시리를 썼으며, 기등의 모서리 치기와 중방의 면치기 등도 면밀하게 꾸며졌다. 전면부 기둥에는 쇠서가 없는 물익공(勿翼工)을 놓고 기둥 간마다 운공(雲工)을 세 개씩 놓아 굳도리를 받치게 한 간소한 초익공 형식에 조각을 넣어 장식하였다. 또 종량 위에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놓아 종도리를 받쳤다. 이 집에서는 주요부에는 굳도리를 쓰고 뒤쪽에는 납도리를 쓰고 있다.



현 세종택가 평면도



현재의 평면도

해풍부원군(海豐府院君) 윤택영(尹澤榮) 재실(齋室) (옛이름: 제기동 정규업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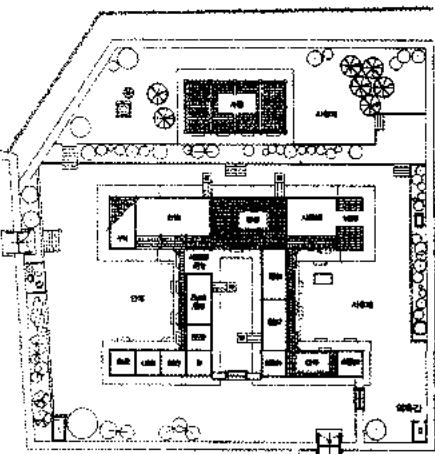
이 집은 보통의 살림집이 아니고 임금이 제사지내려 올 때 불편함을 덜기 위해 지은 재실(齋室)이다. 순종의 장인 윤덕영이 1900년대에 지은 것으로 특별한 '元' 자형으로 구성되었다.

사당은 4.19 때 불타 초석만 남은 것을 남산으로 옮겨질 때 복원한 것이다. 이 집은 사당이 '元' 자의 북측 머리에 해당하며 안채와 사랑채가 다음 'ㄴ' 자를 이루고 그 앞에 동서 행랑채가 나머지 글자체를 이룬 길상문자형(吉祥文字形)을 완성한 유일한 평면구성을 한다. 이 집의 안채와 사랑채는 장대석 기단 위에 네모뿔대의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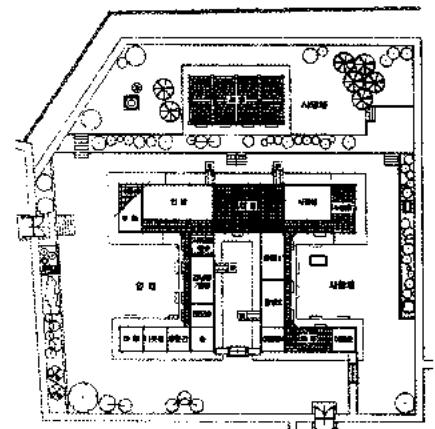
을 놓고 네모기등을 세웠고, 가구는 1고주 5량으로 전면 평주와 고주에 뱃보를 걸고 고주 후면의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고주머리와 대들보 안쪽에 세운 등자기등에 종량을 걸고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전면의 처마도리와 종도리는 굳도리이고 나머지는 납도리이며, 종도리 밑에 장여와 소로반침을 두어 판대공의 도리방향 첨차를 받쳤고 이것은 다시 뜬창방으로 받친다.

사랑채만 부연을 단 겹처마이며 나머지는 훌처마이다. 행랑채는 3량 가구의 맞배지붕으로, 위계의 표현을 확실하게 하였다.

이곳 남산골 한옥촌은 세밀한 실측을 하지 못한 채 공사되었다고 공사보고서에 기록될 만큼 성급히 시공된 점과 원래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어 제대로의 한옥모습을 갖추어 전통한옥의 멋스러운 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열실 이전 평면도



현재의 평면도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3회 이사회

2010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행사기획에 관한 건과 「아이티」지진피해 모금액 지원방안에 관한 건이 협의 됐으며, 부의안건으로 2010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과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추대회원 추가 추대의 건,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이 논의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행사기획에 관한 건
 - 협의체(T/F 등)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논의한 후 이사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 제2호 : 「아이티」지진피해 모금액 지원방안에 관한 건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FIH)에 전달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0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회 조직과 담당이사,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담당이사 추가 : 건축사지편찬위원회(장양순), 신문편집위원회(이각표)

- ▷ 위원회 추가 : 회관관리위원회(담당이사 : 김의중, 위원장 : 이영호)
- ▷ 위원회 존치 :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김영수)

- 제2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비상근부회장(1인)에 이장을 이사를 선임함.
 - 임기가 남아있는 비상근부회장(3인)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자문위원(유임) : 김주덕(변호사), 황용현(회계사)
- ▷ 자문위원(추가) : 무보수 자문 : 임양운(변호사), 이기재(세무사)
- 제4호의안 : 추대회원 추가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강원도건축사회 : 1인)
- 제5호의안 :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 타업체에 임대했을 경우와 친환경건축 설계 이카데미 또는 건축사등록원 등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했을 경우 등 세부내용을 회관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
 - [1안]으로 승인함. (1안 : 친환경건축연구원을 상근이사 직속으로 두는 병안)

2010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5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돼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 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5(목)
- ▷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 ▷ 참석인원 : 재직회원 2,377명 중 47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회계년도 수지결산서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이사 8인의 개선은 각 구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 감사 1인의 개선은 후보자로 등록한 2인 중 3월 18일 한상우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정동혁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함.
- 제4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 개선 대상자의 30%는 신임회장에게, 70%는 지역건축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키로 결의함.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4(수)
-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69명 중 449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FY-2009 수지 결산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업무대행특별회계 폐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거죽물미관자문특별회계 폐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원인센티브 부여제도 폐지(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일부 수정 승인.(제22조 제2항 협회 외 역대회장 및 임원 → 협회 역대회장 및 협회 임원으로)
 - 제6호의안 : FY-2010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선출(이사 7인, 감사 1인)의 건
 - 감사 1인 : 감사후보자로 능복한 김동수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를 만

장일치로 선출함.

- 이사 7인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8호의안 : 대의원 선출(14인)의 건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기 1년)

- 이사(8인) : 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12인) : 회장에게 위임.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5(목)
- ▷ 개최장소 : 로얄호텔 2층 영빈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37명 중 24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승인하되 고문회의 의견을 반영 키로 함.
 - 제2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감사(1인) : 이제식 건축사(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선출
 - 이사(5인) : 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9인) : 회장에게 위임
 - 기타사항
 - 설계 · 감리 분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 실시된 설문지의 회신비율이 70~80% 이상이 되면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도입하기로 결정될 경우 제반 업무를 추진할 TF팀을 빠른 시간 내에 구성 · 운영키로 함.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5(금)
- ▷ 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64명 중 18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문화사랑 특별회계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이사(5인) : 강석훈, 강필서, 강현구, 박홍근, 차은영
- 감사(1인) : 임경희
- 대의원(7인) : 강남구, 강필서, 문출성, 심상봉, 안태경, 이광천, 최경양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25(목)

▷ 개최장소 : 둔산동 오페라웨딩 4층 컨벤션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36명 중 212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이사(3인) : 박규용(유임), 양광직(유임), 정장희(신임)
- 감사(1인) : 권아원(유임)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2인)
- 이기수(유임), 최진(유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7(수)

▷ 개최장소 : 울산MBC 컨벤션웨딩 2층 아모레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2명 중 162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축문화발전기금 설치(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인건비는 차기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검

토하여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감사(1인) : 권상수 회원
- 이사(9인) 및 대의원(9인) :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 및 추천을 받아 집행부에서 선출하되,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자 회의를 소집하여 소견 발표 등을 듣고 선출하기로 함.

■경기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8(목)

▷ 개최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970명 중 538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사업 및 일반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감사(1인) : 송기선 회원

■강원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23(화)

▷ 개최장소 : 원주 인터불고호텔 1층 장미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07명 중 149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결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임원(7인) : 이강섭, 서교하, 한진석, 이호준, 박준영, 유성호, 김재중
- 감사(1인) : 전태후
- 대의원(5인) : 하금현, 배동환(2인 신임), 홍영배, 고호동(2인 유임), 정병거(잔여임기 1년)

■충청북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2(금)

▷ 개최장소 : 명암타워 크리스탈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74명 중 107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재산(임의적립금) 처리방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감사(1인) : 조현경 회원(신임)

-이사(4인) : 회장에게 위임되어 윤경룡(유임), 장영신(신임), 정치훈(신임), 최용오(신임) 회원

-대의원(9인) : 회장에게 위임되어 박성인, 손수일, 지경택(3명 유임) / 최동철, 정의현, 조성미, 이진희, 한재희, 김성진 회원(6명 신임)

■충청남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1(목)

▷ 개최장소 :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90명 중 173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감사(1인) : 박병규(연임)

-이사(5인) : 안광석, 김윤영, 박진만,

이재영(4명 신임)/홍원기(1명 연임)

-대의원(10인) : 권백순, 조상연(2명 연임)/안영식, 한만중, 최종욱, 이종철, 박종배, 김규원, 김기용(8명 신임)

■ 전라북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9(금)

▷ 개최장소 : 전주 코아리비라호텔 백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61명 중 127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총회자료 66쪽 밑에서 4째줄 "2009회계년도"를 "2010회계년도"로 수정)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감사(1인) : 이진희(유임)
이사 및 대의원은 회장과 자문위원회가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토록 함.

[이사 및 대의원 지역건축사회 회장 선임 결과]	
이 사	김성수, 한병진(2명 유임) 한주익, 이준수, 이동연, 이길환, 이태일(5명 신임)
대의원	이정호, 김성수, 한병진(3명 유임), 장기종, 현주역, 제준식(3명 신임)
지역회장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장 : 현수역(신임) 남원지역건축사회 회장 : 한병진(유임)

■ 전라남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6(화)

▷ 개최장소 : 농성동 삼복회관 4층 연회장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0명 중 107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세출 항목간 조정 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이사(2인) : 김기호, 이혜구(2명 신임)
- 감사(1인) : 김복환(유임)
- 제5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김정, 탁기봉, 조도인(3명 유임)/이환영, 박종호(2명 신임) 선출

■ 경상북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19(금)

▷ 개최장소 : 경주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99명 중 283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경북회칙 개정(안)의 건
- 제8조(임회) 제7조 제2항의 회원은 본회 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회칙을 이 회 이사회도 거치도록 변경

- 제18조(임원) 현재 이사 18인에서 3인을 추가하여 21인으로 개정하고 명예이사(2인) 제도 신설

- 명예이사도 감사와 동일하게 의결권 없이 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신임부회장 : 제2회 이사회(2010.4.15 예정)를 개최 후 결과를 통보드림.
- 신임감사 : 최요명(포항지역, 티엠 종합건축사사무소)

※ 본회회 대의원 및 이사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됨.

■ 경상남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23(화)

▷ 개최장소 :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46명 중 313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의 회칙 개정(안)은 일부 수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 일부 수정 부분 : 회칙 개정(안) 중 제19조 ③항은→④항으로, ④항은→③항으로 수정
- 제2호의안 :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경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09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09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10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감사(1인) : 김종석(신임)

- 이사(6인) 및 대의원(15인)은 회장에게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 23(화)

▷ 개최장소 : 제주KAI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22명 중 64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9년도 수지결산(안)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본회회 월정회비 선납제도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가. 임원

“이사 : 김도영, 김영환, 김용식, 임태근 /
감사 : 양창용”

- 나. 대의원 : 김만호, 김한진, 백형철

위원회 개최 현황

■제2회 사업위원회

제2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 주제 선정 및 전시방향 기획의 건
- 공모된 주제 및 협의된 주제를 차기 회의에서 최종 선정키로 함
- 동시행사 개최일정은 담당부서(위원회)와 조율키로 함
- 국내·외 유명한 건축사를 초청하여 대형 세미나(1,000석 규모) 개최를 추진키로 함
-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중국과 MOU체결 을 추진키로 함

▲ 기타사항

- 공동주최(전시업무대행)사업무협약
- 이상네트웍스(경향하우징페어) 및 리드엑스포(하우징브랜드페어)와 협의중이며 차기 회의까지 업무계약 체결을 추진키로 함
- 이사회에서 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봉회 위원이 선임됨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4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 실천방안
-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의 방향성(대국민 홍보를 통한 건축문화 이해 및 건축사 위상 제고 vs 건축문화 60년 기록 보존) 설정 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제2호: 당초 정책위 검토 사업과 2010년 사업 제안
-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과 '겸임 교수협의회'를 2010년도 정책위 사업으로 제안함

■제1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노인주거복지사업 추진방향
- "저출산 고령화와 21세기주거복지" 주제를 선정하고 현재 연구 가능한 시설물 답사 및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함
- 제2호 : 2010년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 본협회 제44회 정기총회(10. 2. 25)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및 행사 업무를 지원키로 협의함
- ▷ 행사개최(안)
- 일정 : 2010. 5. 13(목) ~ 14(금), (1박 2일)
- 지역 : 서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시 주택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4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10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명사특강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 주택정책 설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심이 많은 건축사 및 관련 실무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특별시 2010년도 시정계획에서 "앞으로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향후 건축행정의 중심은 건축물 생애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후 명사특강은 '신바람 박사'로 유명한 황수관 교수(연세대)의 강연이 이어졌다.

서울시건축사동산동호회, 한라산 3월 정기산행



우리 협회,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 성금 전달



좌에서 세번째부터 우리 협회 전영철 상근이사, 장양순 이사, 이각표 이사, 최영길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철수 총재, 재단 관계자들

우리 협회는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을 모금하여 지난 3월 23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방문해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 협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향후 건축 관련 협조사항이 필요할 시, 인력 및 기술지원에 대해 실무진과 논의하기로 했다.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건축사동산동호회는 3월 정기산행으로, 지난 12일 2박 3일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한 눈덮힌 한라산(돈내코 코스) 백록담 남벽을 등정하고, 거문오름, 섭지코지의 올레2길을 다녀왔다.

금번 산행에는 제주도건축사회에서 이동준 회장과 회원이 합류, 친선을 도모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로 19회 째를 맞이하는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는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리모델링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 가능,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은 제외)

응모자격은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이다. 또한 계획부문의 올해 주제는 "회귀: 본연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이며,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물을 제출하면 된다. 계획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공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6월 7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6월 9일(수)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포트폴리오 1부(A4), 작품사진·기본도면·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등이다. 준공부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추후 2차 현장심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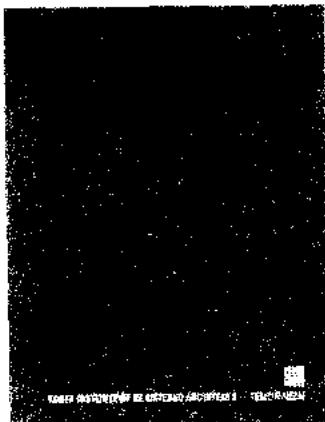
계획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10일(목)부터 6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작품계획안(A2/가로

42.0cm×세로59.4cm/종방향 구성) 1부와 작품설명서 1부(A4 1매)이다.

대상 사무국은 해마다 1차 심사 내용 제출 시 마감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을 방침으로, 신청자들이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 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 문의: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02-3415-6862~4 / kaa.kira.or.kr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이연구 교수,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 당선



이연구 교수가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건축학회는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했으며, 전체 유권자 3,346명 중 2,419명(투표율 72.3%)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3번 이연구 교수(중앙대)가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인터넷이 능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안내 후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부회장은 총 6명으로, 서울대 이현수 교수, 광운대 이원호 교수, 단국대 김희서 교수, 호남대 이세준 교수, 강원대 박경립 교수, ITM Group ITM Corporation 양지수 사장이 당선 됐다.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며, 4월 23일 정기총회(장소: 서울산업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www.aik.or.kr

금호 화요아카데미 건축 강좌

금호미술관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을 통해 고전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10년 화요아카데미 강좌는 한국화 이야기, 도니제티의 오페라로 본 오페라의 이해,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 그리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장 이야기까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는 건축 평론가 이용재가 총 4회(4월27일_단종, 5월4일_송사열 유배지, 5월11일_추사고택, 5월18일_송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화와 현대미술, 클래식음악, 현대건축 등 미술, 건축 음악을 아우르는 수요아카데미에서의 건축 강좌는 김현(스튜디오 어싸일럼)씨가 2회(4월21일_현대문화와 건축1, 4월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로 19회 째를 맞이하는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는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리모델링 건축물을 중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 가능,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은 응모불가)

응모자격은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이다. 또한 계획부문의 올해 주제는 “회귀: 본연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이며,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물을 제출하면 된다. 계획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공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6월 7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6월 9일(수)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포트폴리오 1부(A4), 작품사진·기본도면·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등이다. 준공부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추후 2차 현장조사 실시한다.

계획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10(목)부터 6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작품계획안(A2/가로

42.0cm × 세로59.4cm/종방향 구성) 1부와 작품설명서 1부(A4 1매)이다.

대상 사무국은 해마다 1차 심사내용 제출 시 미감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미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을 방침으로, 신청자들이 미감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 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 문의: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02-3415-6862~4 / kaa.kira.or.kr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이연구 교수,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 당선



이연구 교수가 대한건축학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건축학회는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했으며, 전체 유권자 3,346명 중 2,419명 (투표율 72.3%)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3번 이연구 교수(중앙대)가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인터넷이 농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안내 후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부회장은 총 6명으로, 서울대 이현수 교수, 광운대 이원호 교수, 단국대 김희서 교수, 호남대 이세준 교수, 강원대 박경립 교수, ITM Group ITM Corporation 양지수 사장이 당선 됐다.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며, 4월 23일 정기총회(장소: 서울산업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www.aik.or.kr

금호 화요아카데미 건축 강좌

금호미술관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을 통해 고전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10년 화요아카데미 강좌는 한국화 이야기, 도니제티의 오페라로 본 오페라의 이해,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 그리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장 이야기까지 문화예술의 전반적 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는 건축 평론가 이용재가 총 4회(4월27일_단종, 5월4일_송시열 유배지, 5월11일_추사고택, 5월18일_종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화와 현대미술, 클래식음악, 현대건축 등 미술, 건축 음악을 아우르는 수요아카데미에서의 건축 강좌는 김현(스튜디오 어싸일럼)씨가 2회(4월21일_현대문화와 건축1, 4월

28일_현대문화와건축2)에 걸쳐 준비 중이다.

• 문의 02-720-5114

2010 제2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 공모

제2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접수 가 시작됐다.

올해는 '소통의 도시'라는 주제이며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5월 14일(금)일까지며, 1차 작품접수는 6월 21일(심사 발표: 6월 25일), 2차 작품접수는 9월 13일(심사 발표: 9월 14일)이고, 9월 16일 3차 공개심사를 통해 9월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시상에는 대상 1점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상장, 상패,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 3점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이, 특선(약간점)에는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100만 원이, 입선(다수)에는 상장 및 상패가 주어진다.

신청은 한국건축가협회 공모전 홈페이지 (<http://convention.ki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KCC, 폴리실리콘 양산 본격화발



KCC가 연산 6,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KCC는 2월 23일 오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산업단지에서 정봉진 KCC그룹회장 및 김성수(주)케이에이엠(KAM)사장, 국내외 협력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식을 갖고, 태양광 및 반도체용 웨이퍼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에 본격나섰다. KCC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은 지난 2008년 7월 착공돼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지난 2008년 2월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선언한 KCC는 이미 같은 해 7월, 독자기술로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에 성공해 장기 공급계약처인 미국 SPI(Solar Power Industries)사 등에 공급해 왔다. KCC는 이번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으로 안정적인 제품공급 기반을 갖춰 생산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품질 면에서도 일례븐-나인(99.99999999%) 수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생산기술력을 갖추고,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KCC는 세계적인 품질과 생산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세계 메이저기업들이 과정 해오던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도약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KCC는 미국 SPI사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 주요업체들과 대규모 장기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화석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성장으로 폴리실리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폴리실리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봉진 KCC그룹 회장은 "KCC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실리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화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첨단 신소재산업인 실리콘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투자를 집중해 왔다" 라며, "이번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으로 유기실리콘 분야에 이어 세계 주요메이저기업들이 주도하는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도 생산규모와 제품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세계 TOP 업체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KO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KCC,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스포필드' 개발



KCC가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KCC 스포필드'를 개발했다. 스포필드는 단일구조섬유의 형태로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극대화 했으며, 탁월한 파イル 복원력으로 슬라이딩과 스파이크 회전시 부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경기력을 확보해 준다. 여기에 특수 이중구조의 기포사용으로 배수가 탁월하고 친환경 칩 사용 등으로 '인조잔디 신뢰성 평가 기준(RSM 0041)'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조잔디는 잔디 모양을 하고 있는 파일과 잔디 사이에 삽입된 충진재로 나눌 수 있다. 파일 소재로는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틸렌(PE)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경기장의 용도에 따라 폴리프로필렌(PP), 나일론과 같은 소재가 사용되기도 한다. 충진재로는 스틸렌-에틸렌-부틸렌-스틸렌(SEBS) 소재의 친환경 사출 성형된 칩이 사용되고 있고,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칩은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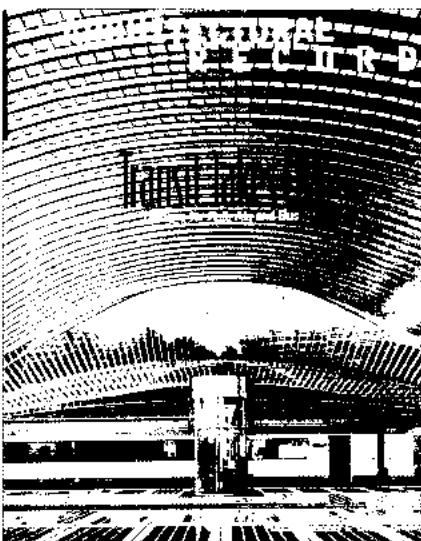
아름듯 인조잔디는 여러 번의 진화를 거쳐 이제는 화상 위험과 환경오염, 유해성과 같은 각종 논란을 벗어버리고 학교 운동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시장 규모도 2009년 기준으로 약 2,000 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포필드가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KCC의 관련 제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조잔디는 주로 운동장에 많이 적용되는데, 그 주변은 주로 육상 트랙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에 KCC에서 생산하고 있는 육상 트랙과 각종 코트용 우레탄 바닥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면 인조잔디 또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상 트랙용 우레탄, 칩 바인더를 이용한 각종 포장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자전거 전용 도로용 아크릴 도료 등과 접목하여, KCC는 생활체육시설용 종합 자재 브랜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KO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Julian Harrap과 함께 한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의 Neues Museum, Will Bruder + Partners의 Agave Library, Studio Fuksas의 Mainz Markthäuser 11-13, 그리고 Kennedy & Violich Architecture의 Sculpture Studio and Barn을 다루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Critical Discourse'라는 주제 하에 Hearts of the City : The Selected Writing of Herbert Muschamp, Why Architecture Matters, 그리고 Building Up and Tearing Down : Reflections on the Age of Architecture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Santiago Calatrava의 Liège-Guillemain TGV Railway, Otak and Architekton의 Tempe Transportation, Wilkinson Eyre의 Both Spa Bus Station, 그리고 Bettisworth North의 Fairbanks International Airport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 Books

- Hearts of the City : The Selected Writing of Herbert Muschamp. Knopf, 2009

Herbert Muschamp는 건축 비평에 있어

서 참회하는 듯 한 시인이었다. 그의 엄청난 인간적이고 진정으로 서정적인 에세이로 그는 뉴욕 타임즈의 건축 비평 책임자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재직하였다. 그의 에세이는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조언이며 이는 실제로 예술적인 열정이었다. 2007년 59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한 Muschamp의 이 신간은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건축이 예술이라면 건축은 또한 정치며, 부동산 그리고 공학이다. 이러한 주제들, 혹은 건축 계획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Muschamp가 강력하게 쓰고 있기를 바란다면 그렇지는 않다. 1990년대 말 건축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할 때 Muschamp의 글은 매우 적합하였다.

Bilbao에 있는 Frank Gehry의 Guggenheim 미술관에 대한 그의 열광적인 찬양은 건물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건축이 다시금 중요시 여겨야 할 감각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 책은 그의 주옥같은 비평들을 담고 있다.

● Why Architecture Matters : by Paul Goldberger. Yale University Press, 2009

● Building Up and Tearing Down : Reflections on the Age of Architecture: by Paul Goldberger. Monacelli, 2009

30년간 New York Times에서 건축비평 가로 활약한 Paul Goldberger에게 잘 디자인되어진 건축은 피카소의 게르니카나 램블란트의 자화상과 마찬가지로 마음 속으로부터 느끼는 감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Paul Goldberger에게 건축이 중요한 이유 였다.

실제로 이 책, 'Why Artchitecture matters to me(건축이 내게 중요한 이유)'는 2003년 발간된 Blair Kamin의 같은 이름의 책과 비교했을 때 좀더 정확하고 특히 보다 많은 객관적인 용어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으며 특히 Goldberger의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담고 있다. 반면 Building Up and Tearing Down은 건축을 구속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소들이 건물 및 도시를 어떻게 이루

여가고 있는가에 대해 쓰고 있다. Koolhaas의 Seattle Central Library에 대해서, 혹은 New York시에 알맞은 건축을 하지 못하는 Gehry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쓴던지 Goldberger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건물이 장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Project

Neues Museum, Berlin /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with Julian Harrap

Julian Harrap과 함께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는 Berlin의 Neues Museum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Berlin에 지난 가을 Neues Museum이 다시 오픈하기까지, 1843~1859년 사이에 지어져 조용히 있는 이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건축물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Karl Friedrich Schinkel의 어마어마한 Neoclassical Atres Museum(1821~1930)의 북쪽에 위치한 이 전통있고 위엄있는 4층의 박물관은 Schinkel의 중요한 제자들의 하나인 Friedrich August Stüler에 의해 원시시대,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전시대의 고

고학적 유물을 교훈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Stüler의 클라이언트는 좋은 사람이었다: 1840년 프러시안 왕국을 지배했던 Frederick William IV로 그와 함께 Schinkel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Berlin 중앙을 흐르는 Spree 강에 의해 둘러싸인 섬의 한 부분을 녹일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의 발달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들을 세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보려 노력한 왕의 아이디어였다.

불행히도 Neues Museum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폭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독일이 통일 되는 1990년전까지 동독 정부에 의해 성의없이 복구되었다. 폐기된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복구전문 건축사 Julian Harrap과 함께 Chipperfield에 의해 복원되어 보존되고 리모델링되었다.

2009년 8월 오픈한 아래 Neues는 이 섬에 있는 19세기에 지어졌던 나머지 네 개의 박물관 the Bode, the Pergamon, the Alte Nationalgalerie(Old Gallery), 그리고 Schinkel의 Alte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2013년 Chipperfield가 디자인한 자료관, the James Simon Center가 건축사의 마스터 플랜의 한 일부로서 Neues의 서쪽에 오픈될 예정이다.

Chipperfield와 Harrap이 Neues에 끼친 공로는 엄청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Chipperfield와 Harrap은 무너진 건물을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벽, 천장, 바닥, 그리고 기둥과 같이 고문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기 힘든 역사의 허술한 흔적들이 맨 앞에 놓이는 전혀 뜻밖의 잊을 수 없는 셋팅이 이루어졌다. 이 두 건축사는 이 건물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층으로 넓고, 그리고 때때로 전혀 꾸밈이 없는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Neues와 그 소장품들은 처음 오픈한 이래, 1920년에 있던 갤러리 현대화 작업을 포함하여, 대단히 충격적인 1943년과 1945년의 폭탄투하 등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전쟁으로 인해 큰 구멍같은 계단실, 북쪽 건물, 그리고 반구형의 남쪽 코너는 완전히 난장판으로 남아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복구와 구조에 지지대를 세우는 것은 이 건물

을 폐허인 채로 남아 있게 하였다.

갤러리는 Chipperfield가 재건축한 중앙의 계단실 양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건축사는 Chipperfield의 새로운 것과 Harrap의 넓은 것이 뚜렷한 경계를 이루지 않도록 하였다.

이 건물을 복원하는 데 있어 수많은 새로운 벽과 천정이 재건축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전 유럽을 통해 1,340,000개의 벽돌을 구해야 했으며 새롭게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서 지지하도록 해야했다. 가장 멋진 벽돌의 사용은 계단실인데 거기에는 불그스름한 공업용 벽돌로 되어 있으며 벽의 위쪽은 타라코타 타일로 역사적인 주제로 만들어 진 벽화에 의해 움직이듯 보인다.

새로운 것(너무나 소박하여 가끔은 차가워 보이는)과 오래된 것(지적이고 로맨틱하며 역사로 충분히 여려층으로 된)의 대조는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정말 방문하는 사람들을 예상시키는 것은 오래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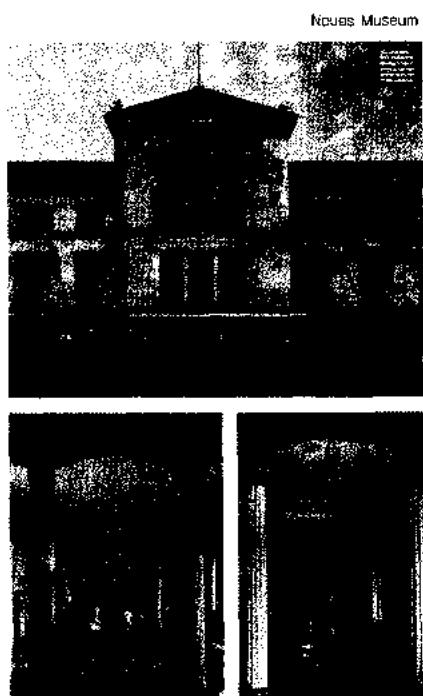
Agave Library, Arizona / Will Bruder +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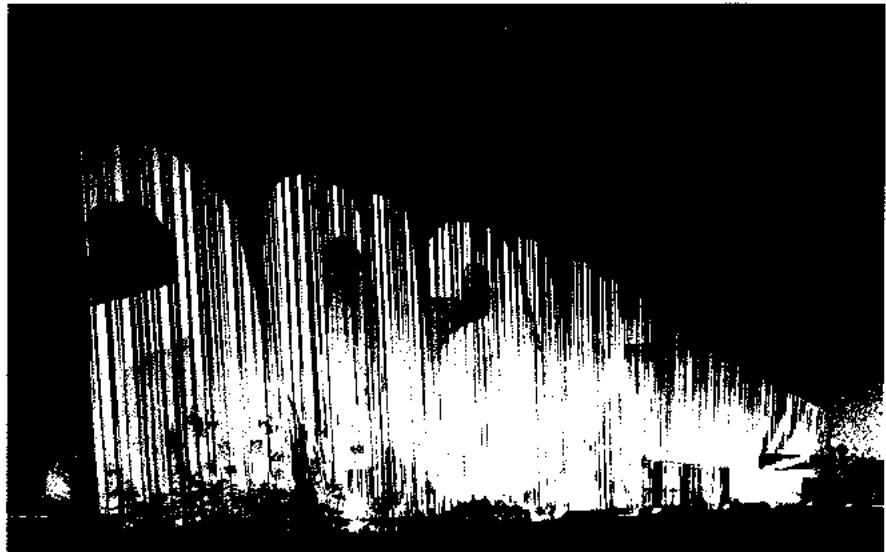
Will Bruder는 첨단의 도서관의 디자인에서 서부 개척시대의 미국 서부와 세차장을 끌어 들인다.

Phoenix에 기묘함과 멋짐의 두 느낌이 섞인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건축적인 매시엄이 창조되었다. 35 여년전 Milwaukee에서 이곳으로 이사해 온 Will Bruder는 이 곳을 잘 알고 사랑한다.

그의 작품은 그 지역의 지질학적이고 고고학적이며 멋진 유산을 깨낸 후 이를 초라하거나 화려하거나 간에 건물로 변형시킨다. 그의 디자인은 우리에게 사막골짜기, Frank Lloyd Wright를 소개시켜준다.

Bruder가 Poenix 시 외곽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Agave Library를 계획하면서 세 차장과 최초로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던 샌드위치 체인점, Blimpie의 디자인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아연도금을 한 금속의 hat channel이 금속 I-기둥과 튜브 형태의 범에 부착되어 수직적인 선 요소들로 이루어져 서 있는 구조물은 마치 도서관으로 들어





Mainz Markthäuser, Germany /
Studio Fuksas

Massimiliano Fuksas의 과감한 디자인
은 모조품을 새로운 건물로 바꾸어 놓는다.



Agave Library

가는 입구인 것처럼 보인다.

금속 채널과 agave라고 글자를 쓰기 위해 사용한 반짝이는 필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고 나면 건축가가 만든 거대한 사이즈의 “튼튼한 막”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낮에는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밤에는 차로 인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막아준다.

예산이 빠듯하였기 때문에 Bruder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쪽에 저렴한 벽돌로 벽을 쌓았다.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날렵해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블록으로된 구조물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서적인 콘크리트 블록쌓기가 아닌 미묘하고 특이하게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블록들은 약간의 각을 주어 쌓음으로서 이로인해 생기는 그림자로 인하여 수직적인 선이 만들어지고 또한 파사드에 질감도 주게 된다.

Bruder는 이 콘크리트 블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질서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도서관의 내부에 Bruder는 천공이 있는

낮은 금속의 파티션을 사용하였고 책꽂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분할하였다. 어떤 장소에서는 천장을 아주 낮게 만들어 태양광을 이색적으로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도서관의 일부로부터 컴퓨터 트레이닝을 위한 공간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반투명 오렌지 색의 플라스틱을 천장에서 내려뜨렸다.

시멘트 바닥 위에 놓인 형형색색의 카펫타일은 공간을 구분하는 카펫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파티션으로 다시 분리를 하지 않아도 공간의 구획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Phoenix와 같은 외곽지역에서는 건축적인 컨테스트는 지적인 통찰을 통해 읽어내는 것은 더구나 힘들고 정확히 읽어내기 조차 힘들다.

이 Agave Library 프로젝트는 적절한 규모로써 쇼핑센터, 사구아로 선인장, 그리고 지그재그 모양의 산세 사이에서 일맞고 쉽게 눈에 띄도록 만들어져 근대적인 남서부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좋지 않은 많은 건물들은 파사드로 그 결점을 감춘다. 종이처럼 얕게 칠을 한 거리의 풍경을 쓰는 아마추어 무대 디자인이 엄청난 세팅을 한 것과 같은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유망한 건물의 외관도 평범하고 불편한 공간을 상당히 많이 가려준다. 그러나 가끔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독일의 Mainz에 있는 역사적인 시장광장에 들어선 새로운 건물의 그다지 좋지 않은 파사드는 멋진 디자인을 감추고 있다. 이것을 만든 마술사, Massimiliano Fuksas는 우리를 기만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로마 출신의 이 건축사는 역사라는 부담 이전에 자신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많은 고민을 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사성을 가진 파사드를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병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건축사에게 소개되었다.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자 그렇게 아름다웠던 기존의 파사드는 기만되었다. 1945년 공습으로 인해 Mainz 건축의 80%가 파괴되었고 1955년 아주 심풀한 형태, 단지 원형의 복제품으로 새로운 부품을 장착한 형태—1890년 대 고딕 건축 스타일로 재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골치아픈 질문들이 다른 결과(앞서 설명한 Berlin의 Neues Museum)와 비교가 되면서 독일 전체에서 쏟아져 나왔다. 2003년 설계경기에서 우승한 Fuksas는 이 새로운 ‘낡은’ 파사드에 다른 목적 이용을 위한 디자인을 책임지게 되었다. 건물은 황폐한 극장과 아파트들 사이에 있었으며 새로운 쇼핑센터와 아파트를 만들기에는 거의 폐허가 되어있었다.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없애기로 한 반면 파사드는 그냥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랜드마크가 될 파사드는 비록 아닐지라도 재건축된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었다.

사적 보존운동가들은 심지어 근거가 있는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였다.

돌로 된 창문 멀리언이 바닥의 위쪽에 몇



Mainz Markthausen

붙여지고 1층에는 아차형의 출입구가 놓여졌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Fuksas의 스튜디오는 1979년 버전보다 파사드와 보다 정확하게 어울리는 내부 바닥을 디자인했으며 특히, 건축사들은 광장 위에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마주하고 있는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Mainz는 종세의 그라드를 간직하고 있는 몇 안되는 독일의 재건된 도시 중 하나이다)

건축사는 지붕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기존에 있던 지붕을 이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해체된 건물을보다 이 새로운 하나의 건물이 더 규모가 크지만 Fuksas는 비슷한 비례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확한 비례가 아니고서는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Fuksas는 이야기하고 있다.

내부에는 2층과 지하층에 걸쳐서 상업공간이 들어섰으며 아트리움 중앙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이 계단과 위로 19층에 이르는 아파트 사이에 사무 공간이 있다. 4층에 만들어진 개방된 파티오는 거주자들이 쇼핑센터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공간은 이 건물을 매우 공적 공간을 가진 사적건물이며 아주 사적인 공간을 가진 공적건물로 만들어 준다.

'나는 컨텍스트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도시의 중심에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현대적인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소 과거의 모습도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재창조가 무엇인가라는 거창한 질문을 넘어서 이 프로젝트는 독일 미래 건축 프로젝트를 위하여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 할 것이다.

Sculpture Studio and Barn, Massachusetts / Kennedy & Violich Architecture

Kennedy & Violich는 부부의 다양한 관심을 한 지붕 아래로 합하여 놓는다.

가족의 축사와 용접실이 작은 건물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훈할 일이 아니다.

복제 프레임의 작업장 겸 마구간이 있는 이 쉽지 않은 공간 프로그래밍의 결합은 Massachusetts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년 전, Boston 출신의 Kennedy & Violich Architecture는 도시의 북서 쪽에 성장한 어리이들과 함께 살 부부를 위해 목재로 집을 지었다. 부부의 각각 다르지만 서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은 사적인 공간인 아트 갤러리와 거실 사이에 수영장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이 집에 살았던 클라이언트가 다시 그들을 찾아와 이번에는 부인의 말들과 남편의 금속공방이 모두 있는 집을 짓기 위해 새로운 바꾸어 주기를 바랬다. 그들의 오래된 주택은 낡아서 거의 사용할 수 없었고 특히 안전성이나 안락함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랬다. 조각이 취미인 남편은 새롭고 큰 스튜디오와 그가 상상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을 요구했다. 그는 기증기가 있을 수 있고 날씨에 관계없이 무거운 짐을 내릴 수 있는 옥외 작업장을 요구했다. 부인의 경우 수년간 임시변통으로 된 시설에서 말들을 길러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굿간 같다는 느낌을 주는 마굿간을 만들어 주기를 바렸다. 또한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공간의 융통성을 요구했다: 나중에 변화가 필요할 때 쉽게 집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건축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작업장처럼 다루었다. 재료는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재료와 간단하게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리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사들은 하나의 긴 박공지붕을 가진 건물을 디자인 했다. 이웃 집과 평행하



Sculpture Studio and Barn

게 놓여진 이 집의 지붕은 종이접기처럼 접 었다 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집에서 이 작업장 건물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클라이언트는 낡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벽체를 그대로 두기를 희망했지만 이미 너무 낡아서 건축사들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아주 심플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부는 다이나믹한 3층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1층은 목자작업장이, 2층에는 스튜디오가, 3층에는 큰 금속가게가 있다. 내부의 동쪽 벽은 남편이 구조팀과 함께 작업한 물결 형태의 금속 조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과 조각이 서로의 공유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숲 속에 있는 이 작은 마굿간을 위해 Kennedy & Violich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주 평범한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건축사들은 상이한 공간 프로그램 사이의 긴장을 강조하기보다 그 차이를 드러나지 않게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한 사람의 요구가 다른 사람의 해결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가 공간 간의 연관성을 좋게 만들기 위한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u



특집 : 20세기 명건축의 재생 (Reinvigorating 20th Century Masterpieces)

20세기에 세워진 건축물의 존속이 불안해지고 있다.

시대의 상징으로 명건축이라 불리는 건축물조차, 끊임없이 헐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소재나 기술이 개발되어 50년 전, 10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모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 형태도 자유도(自由度)가 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본 호에서는 복원·보존, 개축, 증축 등을 거친 20세기 명건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의 TWA 터미널 빌딩(1962년)은 복원을 거쳐 증축 등(棟)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명을 불어넣었고, 플루돌프의 예일대학 건축예술학부 등(棟)(1963년)은 복원되어 신중하게 새로운 증축부분과 통합되었다. 루이스 칸의 예일 아트 갤러리(1953년)와 미스 반 더 로예의 IIT 크라운 툴(1956년)은 거듭된 보수와 개축으로 전면적으로 오리지널로의 개수(改修)가 이루어졌다. 또, 월터 그로피우스의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빌딩(1926년)

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1959년)은 현재의 기술을 이용하여 준공 당시의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장래적으로 보전하게 되었다. 또, 요른 옷손(Jorn Utzon)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1973년)는 BIM테크놀로지를 채용하여 미래의 복원에 대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건물 보전과 개수의 방법은 다양하고, 오리지널 디자인의 견고한 유지부터 플렉시블한 확장계획까지 하나하나의 건축물에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다. 재생 형태는 어떻든, 그 건축물과 대연할 때 우리들은 그곳에 이어내려 온 비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Yale University Art Gallery

-Louis Kahn-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사였던 루이스 칸의 설계로 1953년에 개관한 예일대학 아트 갤러리 (a+u 83:11 임시증간)에는 전면적인 개수(改修)가 시행되었다. 이 갤러리는 칸이 객원평론가로서 예일대학 건축학부에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설계된 것으로 그 후 예일대학 캠퍼스에 계속 건설된 뛰어난 근대주의 건축군(群)의 힘사가 되었다.

개수는 뉴욕시에 거점을 둔 풀湘西 파트너십 아키텍츠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팀은 던컨 헤저드를 중심으로 제임스 플렉과 리차드 올코트가 지휘하였다. 이 작품은 헤저드가 주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임 건축 플래너를 맡은 예일 아트 에리어의 전체 계획의 일부가 되는 부분이다.

벽돌과 콘크리트, 유리, 스텔로 건설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는 피사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면으로, 한 칸의 디자인은 그 아름다움이나 형태, 빛뿐만 아니라 구조 및 공학적인 혁신성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이를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머리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정을 구성하는 가운데가 들어간 사면체모양의 콘크리트 안에 전기와 공조 설비를 넣은 것이다. 개수는 예술작품전시와 보존을 위한 환경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넓게 하고, 정연(整然)한 전시 공간을 갖는 칸의 당초의 컨셉트로 되돌렸다.

이것은 이전에 오픈 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있었던 파티션을 제거하고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칸의 독창적인 가동벽 포고 월(Pogo wall) 유닛을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보다 명쾌한 전시실의 배치, 로비의 대기 공간 확장, 또 충실한 미디어 프로그래밍으로의 대응을 실현한 개수로 견학자는 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었고, 보다 자주 찾게 되었다. 또, 4층 및 5층 높이를 가진 유리 커튼 월의 전면적인 교체를 포함한 건물 개구부 및 내벽, 외벽에 대한 보수가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붕, 공조, 전력 및 데이터회선, 방화, 엘리베이터, 반입장, 보안 시스템도 바꿔 업그레이드 되었다.

예일대학에 새로운 아이스하키 링크 설계 를 의뢰받은 편란드 출신의 건축사 애로 사리넨은 직원 한 사람을 시찰을 위해 파견했다. 파견된 데이빗 포와리는 미국의 남북으로 둘러싸인 동해안에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작품을 찾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포와리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스하키 링크를 시찰하였고, 그 중 예일대학의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 배워 두어야 할 것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포와리는 주목할 만한 링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아이스하키 링크의 대부분은 조잡하고 황폐한 정도였다.

예일대학은 특징 없는 건물을 짓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학장인 A 위트니 그리스워드는 1717년에 대학을 뉴헤븐으로 이전, 한층 끊임없이 계속 위엄에 찬 건축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18세기 예일대학의 캠퍼스에는 뉴잉글랜드의 기풍에 상응하

는 전통적인 빨간 벽돌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대학 고딕 양식의 드미트리, 그리고 옥스브리지(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의 전통을 생각나게 하는 도서관이나 아카데미 빌딩이 건립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그리스워드의 리더쉽 하에 캠퍼스 내의 중요한 구획의 몇 곳에 근대 건작이 세워지게 되었다.

예일대학 잉겔즈 아이스하키 링크 ('a+u 84:04 임시증간)뿐만 아니라 루이스 칸의 예일대학 아트 갤러리(본지 게재)의 증축, 폴 루돌프 건축예술학부건물(본지 게재)을 포함하여 이들 건물은 세월이 흘러 상당히 낡은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래서 예일대학은 이 10년 동안 이들 건물에만 1억 달러(약 90억엔) 이상을 투자해 왔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귀중한 미국 건축작품이 혈리거나, 황폐해진 그대로 방치되어 가는 중에 예일대학은 학내의 건축을 단지 개수만이 아닌 그것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길을 선택했다.

세 개의 건물 중 처음에 세워진- 그리고 후년 처음 복원된 것-은 칸에 의한 예일대학 아트 갤러리의 증축동(棟)이었다. 1953년에 완성된 이 건물은 칸에게 있어 본격적인 첫 작품이고 여러 의미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다.

칸에게 주어진 문제는 에가튼 스와트우트의 설계로 1928년에 개관한 기존 아트 갤러리를 증축하는 것이었다. 스와트우트의 당당한 이탈리안 고딕 양식의 건물은 블럭 구역 전체로 확장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의 계획의 반반 건설되었다. 시설의 확장계획은 거듭되어 어느 시점에서 뉴욕 근대미술관의 공동설계자인 필립 구드원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워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구드원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필립 존슨에게 증축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사리넨도 후보에 있었으나 많은 일로 바쁜 상황이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존슨은 그 일에 흥미를 나타냈으나 당시 예일대학건축 학부의 학부장이었던 조지 하우와 학부내의 평론가의 몇 명이 이 일을 칸에게 의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하여 한 명의 건축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Essay : 예일대학의 재생(Restoring Yale)
-Paul Needham-

아트 갤러리를 설계할 당시 칸은 50세였다. 그는 그 때까지 극히 제한된 건물 만지를 수 있었고, 그의 젊은 감각으로 이 작품을 설계하는 것과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작품은 건축사가 처음으로 다른 작품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칸은 스와트우트의 건물과 직접 경합하는 것이 아닌 증축동의 파시드를 차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전혀 장식을 하지 않는 벽면을 사용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증축동의 서쪽과 북쪽의 파시드를 전면 유리로 했다. 이것으로 이 갤러리는 미국 국내에서 유리의 커튼 월을 이용하여 건설된 초기 건물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건물의 특징이 되고 있는 계단 하나하나의 선이나 보양, 갤러리를 비춰주는 한 줄기의 빛, 천정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면체에 진심으로 만족을 느꼈다. 칸은 그 후 거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지어진 예일대학 영국미술연구센터 ('a+u 83:11 임시증간)를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을 다루었는데, 아트 갤러리가 그의 캐리어로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음을 확실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각 정원에 자봉이 만들어지고 4층의 오픈 스튜디오가 오피스로 전용되는 등 건물에 여러 변화가 가해졌다. 또, 유리면 사이에 습기와 오염이 축적됨에 따라 커튼 월도 열화(劣化)하기 시작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건물 전체를 손질 할 필요가 있었다.

복원계획은 1998년에 시작되어 폴렉 파트너십 아키텍츠가 감리를 담당했던 공사는 2003년에 시작되었다.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갤러리는 2006년에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그 건물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훌륭한 건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일대학 외 많은 개수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대부분은 충분한 배려가 결여된 개수로 오랜 세월 동안 발생한 데미지를 단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조각 공원에 세워진 지봉은 철거되었고, 커튼 월 유리는 교체되었다. 로비는 이 갤러리를 위해 조엘 샌더스 아키텍츠가 디자인한 가구로 개장되

었고, 밝은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갤러리 공간이다. 그 공간은 큐레이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지 하우와 칸이 설계하였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포고월을 새롭게 하였고, 플렉시블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 패티션은 큐레이터의 희망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벽면에는 고호나 모네, 폴락 작품이 걸려있고, 그 그림 작품으로 채워져 더욱 매력적인 건물이 되었다.

칸이 예일대학에서 작품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리스워드는 예일대학의 졸업생인 사리넨과 함께 뛰어나 업적을 남기고 있다. 처음 사리넨은 잉글스 아이스하키 링크를 위해, 후에는 예일대학 예스라 스타일즈 학교 기숙사 및 사무엘 모스 학교 기숙사 (Ta+u84:04 임시증간)을 위해 초대되었다. 사리넨의 설계로 1958년에 완성한 링크는 그리스워드에게 있어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일대학의 재무담당자가 비용이 상당히 초과된다고 불만을 나타냈을 때, 그리스워드는 친히 그 디자인을 옹호했다.

그리스워드는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일률적으로 획 그림을 그린 듯한 링크 지붕은 선수와 팩의 움직임에 호응하듯이 3,486석의 규모는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 건축은 분명히 예일대학 캠퍼스는 원래 세계 어디에 있는 어떠한 건물과도 달랐다. 이 링크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유일한 점이라고 하면 이 작품을 바이킹 쉽(해적선), 거북, 또는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던 ‘예일 웨일(예일의 고래)’의 어느 이름으로 부를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한층 눈에 띠는 것에 비례하듯이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건물은 다른 건물 이상으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예일대학은 1969년에 처음으로 여성 학부생을 받아 들였고, 드디어 여자 하키팀이 결성되었다. 이와 함께 남자팀 멤버도 늘어나 일상적으로 잉글스 아이스하키 링크를 사용하는 선수의 수는 배로 증가했다. 또, 남녀 구분없이 현대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실시하는 전디셔닝이나 트레이닝은 1958년 당시에 사리넨이 상상한 것보다 매우 자주 실시되었다. 얼음도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링크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리넨의 보좌역을 맡아 후에 그의 계승자가 되었고 또, 자신도 프리츠상 수상자인 케빈 로치가 복원계획을 감수(監修)할 수 있었던 것은 예일 대학에 있어 행운이었다. 사리넨은 프로젝트 첫 단계에서 신뢰를 얻은 로치에게 여러 일을 맡겼고, 그 의미에서는 50년 후에 복원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그 이상으로 어울리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복원된 건물 외관에 로치의 손자국을 볼 수는 없다. 외관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내부도 오염만 제거하였고, 지하에 약 13,000평방 퍼트(약 1,208m²)의 새로운 럭커와 트레이닝 룸, 그 외 보조적인 시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아이스하키 팀이 임시로 설치된 시설에서 연습할 필요가 없도록 복원계획은 2기(期)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링크에서 폭탄이 폭발한 동란의 1970년대 당시 낙서를 포함한 건물 역사도 보전되었다.

풀 루돌프의 아트 앤 아키텍처 빌딩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에는 1963년 개관한 이래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1969년 윤인불명의 화재와 그 후의 개수에 의해 가장 중요한 많은 특징이 건물에서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이 건물은 한 번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아홉 개의 플로어에 37개의 레벨을 가지고, 몹시 거친 코듀로이와 같은 벽면으로 알려진 이 브루탈리즘의 랜드마크에 보수의 손길이 더해졌으나 임시 방편의 대책은 건물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해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로버트 A.M 스턴이 예일대학 건축학부의 학부장으로 취임하자 그는 예일대학의 현(現) 학장 리차드 레빈으로부터 아트 앤 아키텍처 빌딩을 복원해 이전의 당당했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에 약속을 얻어냈다. 이것은 물론 간단한 과제가 아니었다. 예일 대학의 통창생으로 예전에 루돌프 밑에서 일한 적이 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찰스 괴스메이는 이 건물을 복원하고, 동시에 예술사 학부를 위한 증축동을 설계하도록 의뢰받았다. 증축은 이 프로젝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 왜냐하면 괴스메이

는 엘리 베이터 등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를 현재는 루돌프 홀이라 불리는 건물로부터 새로운 증축동으로 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축동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으나, 괴스메이의 복원은 이 종류의 일로서는 모델이 될 만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었다. 루돌프의 오리지널 디자인 다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 더해져 변경된 곳은 제거되었다. 이전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Sustainability)이라는 현대의 필요성에 비추어 재고(再考)되고 있다. 그 중, 이전에는 석면이 사용된 천정 뒷면의 공조 시스템을, 특허를 취득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과 에너지 효율이 나쁜 조명기를 효율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보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루돌프의 오리지널의 오렌지색 카페트가 부활되어, 콘크리트를 한층 빛내주고 있다.

현재에서는 루돌프 홀은 매우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2000년에 예술학부가 새로운 등(棟)으로 이전한 이후, 건축학부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루돌프 디자인은 그 의도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하게 구성된 각각의 레벨과 방은 그의 디자인 그 대로이다. 전체로서의 건물은 단지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닌 건축학부의 캠퍼스 그 자체로 느껴진다.

아트 갤러리와 루돌프 홀의 공사를 거쳐 예일대학의 캠퍼스에 ‘아트 애리어’라 불리는 구획이 탄생했다. 1990년대 중반 예일대학은 아트 갤러리, 영국미술연구센터, 루돌프 홀이 늘어선 채로 거리를 따라 1.5 거리에 이르는 구획의 마스터 플랜 책정을 풀湘西 트너십 아키텍츠에 의뢰했다. 이 계획은 테보라 벨케 앤 파트너즈 아키텍츠에 의해 개수된 건물로 예술학부의 이전, 키어렌 범버레이크에 의해 설계된 스컬쳐 빌딩 및 예일대학의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스프라그 앤 슈퍼걸 홀의 개수의 개요를 정하고 있었다. 계획되어 있었던 음악학부의 헨드리 홀의 개수는 경제위기로 인해 보류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예일대학은 모든 예술시설의 개수 또는 새로운 건설은 끝나게 된다.

아트 갤러리와 아트 앤 아키텍처 빌딩 등 사업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그리스워드 학장

은 '자부심이 있는 대학은 건축이 대학의 기품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스워드가 형태로 만든 것은 사례에 충만한 모더니즘이다. 그는 캘리트가 높은 건물을 중요한 장소로 배치하고, 그것들을 기준의 건물에 대치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 예일대학은 그 존재를 지금까지는 없었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예일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새롭게 건축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아트 에리어'라는 컨셉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예일대학은 아트 갤러리에 소장된 수많은 명작에 대해 죄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옥 같은 건축작품에 대해 짚어져야만 하는 관리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매우 오래된 것부터 극히 근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내의 건축을 개수해 가는 중에 예일대학은 역사를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건축상의 멋진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폴 라미니는 예일대학에 재직 중에 있다. 그는 동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예일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건축학부장인 로버트 스텀과 다른 2명과 함께 2011년에 출판예정인 교외계획에 대한 책 저작에 종사하고 있다.

Le Corbusier and Jose Oubrerie Firminy Church



통상의 노틀담 듀오 예배당(*a+u*03:11 임시증간)과 피르미니성당은 르 고르뷔제가 설계한 종교건축 중에서도 카테고리로서의 분류가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는 완전하게 '오리지널적'인 작품이고, 그곳에서는 카톨릭성당의 전통양식과의 관련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느 쪽도 그러한 유형학적 진화의 결과와는 무관하고, 역사적인 전통에 따른 형태는 예식의 양식과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즉 제단이나 십자가, 설교단 등-에 제한되어 있다. 또, 피르미니 성당과 롬산의 예배당은 어느 쪽도 다른 성당과는 커녕 상호간에서도 비교할 수 조차 없다. 즉, 이것들은 유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독자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정반대의 예로, 라 투레트(*a Tourette*)수도원 (*a+u*03:11 임시증간)은 종세의 유형에 뿌리내리고 있고, 거기에서는 길게 펼쳐진 '순수한 상자'의 측벽에 하얀 한 줄기 빛을 창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에 의거한 다이어그램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으로 건물 팬족의 제단 중앙을 긴 방향으로 횡단하는 축선상에 있는 신랑(nave, 身廊)에 성구실의 벽이 나와있고, 반대측에서는 그 바닥의 나온 부분이 발코니로서 제2의 제단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피르미니 성당과 롬산의 예배당은 르 고르뷔제에 자신이 만들어낸 도미노형식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한다. 피터 아이젠만은 도미노형식이 가진 '형태와 용도 그리고 의미의 합치' 하여, 순수한 '자기참조의 증명'으로 평가했다. 분명히 르 고르뷔제의 여러 작품은 언제나 도미노형식을 근거로 발전해온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우선 Villa Savoye (*a+u*01:06)에서 근대건축 5원칙과 '순수한 상자'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추가한 형태의 도미노형식을 볼 수 있다.

거기에 Ahmadabad의 섬유업회관 (*a+u*01:05)에서는 그가 마지막까지 남긴 명확한 형식이 여러 요소의 집적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성심껏 완전하게 통합되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카펜터 시각예술센터 (*a+u*87:12)야말로 그 궁극적인 표현이고, 더욱 그의 마니에리스트가 되고 있다. 피르미니 성당이 동일한 시기에 설계된 베네치

아병원이나 Strasbourg 국제회의장과 다른 점은 롬산의 예배당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롬산의 예배당은 형태와 재료의 소재감, 그리고 빛과 색채에 의한 공간적인 긴장관계의 집적이 탄생시킨 소위 거주할 수 있는 조각작품이고 완전한 '지(知)의 구축물'이다.

피르미니 성당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쪽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보다 자의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곳에는 라토렛 수도원에 Chandigharh의 의사당 (*a+u*99:05)의 한 편을 추가하여 압축한 결과 탄생한 것 같은 인상이 있다.

르 고르뷔제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피르미니 성당의 평면도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통상 그 형태상의 성격인 방향성이 없음을 근거로 그 내부에서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피르미니 성당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부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사각형은 내측으로 향해 폭발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고, 중간에 끊기면서 소용돌이를 감는 바닥이 발코니를 계속 이루고, 외부통로의 연속성과 함께 교회당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통로의 전개는 Strasbourg 국제회의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부통로는 내쪽으로 향하고 내부가 공간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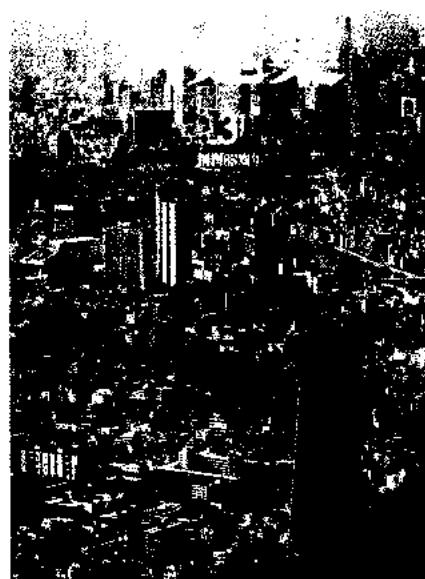
입구의 축선을 따른 제단 배치는 정사각형에 대해 방향성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베루니니가 Sant'Andrea al Quirinale 성당의 타원형의 플랜에서 만든 방법과 비슷하다. 그곳은 입구 포치에 대면하여 타원의 짧은 축에 제단을 두고 산 피에토로 광장으로 면한 매인 파사드를 타원모양의 주랑(柱廊)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Sant'Andrea al Quirinale 성당에서는 타원의 중심축선은 둠 수직요소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피르미니 성당도 마찬가지로 입구 문과 제단이 수평한 축선에 의해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직인 축선은 나타내지 않고, 월을 구성하는 수직인 곡선은 앞 문과 제단을 연결하는 축선을 강조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고, 그 움직임은 Sant'Andrea al Quirinale 성당에서의 방법이라고 하기 보다 이미 봇로미니에 의한 Sant'Ivo alla Sapienza 교회당으로 통하는 것이라 해도 좋다. 피르미니 성당에는 그 외

에도 기둥이 주(主)제단의 아래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으로 지면과의 연결이 상징되어 있거나 또는 상승하는 바닥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외벽 구멍을 통한 채광창-‘채광포(砲)’가 설치되어 있거나, 많은 상징적 요소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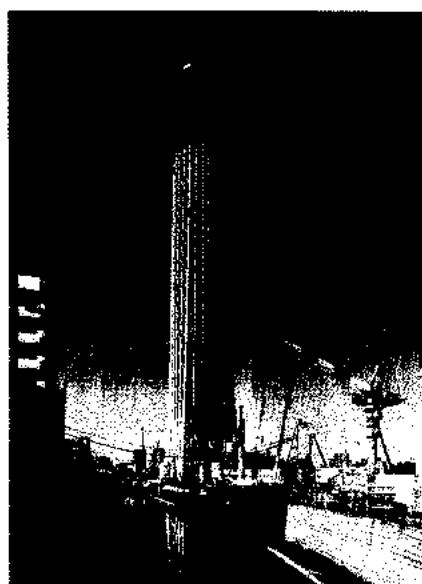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두드러지게 특징짓는 것은 수평·수직방향에서 건물의 형태의 변화이고, 내부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소용돌이를 감는 성역의 형태를 만드는 바닥면이고, 그리고 외부로 펼쳐지는 도로, 또 ‘자유로운 형태로’ 상공으로 춤추면 올라가는 지붕 구조이다. 이것들을 예감하게 만드는 새로운 공간성과 새로운 형태로의 가능성에는 분명히 현대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전 세기와 금세기의 절목(節目)에 태어난 것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거기에 우리들이 느끼는 공감이야말로 이 작품을 ‘건축에 대한 건축’답게 해 주고 있다.

新建築



Tokyo Skytree

-Nikken Sekkei-



두 개의 야경

도쿄 스카이트리에서는 ‘틀’과 ‘우아함’이라는 일본인의 기상과 미의식을 표현한 두 개의 야경 모습이 매일 번갈아 등장한다. ‘틀’은 물과 같은 투명감이 있는 연한 블루로 심주(心柱·중심 기둥) 주변을 비추는 디자인, 구조체의 강인함과 기풍의 멋짐을 표현하고 있다.

‘우아함’은 보랏빛을 테마로 해서 구조체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비추고, 우아함과 기

품을 표현한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으로 강한 인상으로 기억되고, 도쿄 스카이트리와 사람들과의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타워 주요 부분은 통상 라이트 업과는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향해 비추고 있다. 정상부가 하얗게 빛나면서 지면을 향해 펼쳐지면서 사라져가는 빛의 음영에 도쿄에서 바라보는 후지산의 모습과 겹쳐진다. 음영을 잘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시대에 맞춘 매력적인 라이팅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



최고 높이 634m

2003년 말 재경(在京)방송사업자 6사(NIKK 민방기 국)로부터 새로운 타워를 요구 받아 프로젝트를 발족, 매년 증가하는 초고층 빌딩의 영향저감(低減)이나 휴대단말용 디지털 방송 서비스 ‘원세그’ 지역 확대를 목표로 600m급 높이에서의 송신이 요구되었다.

2004년에 스미다구·지방관계자가 도부 철도에 이 새 타워 유치협력을 요청하고 동부철도가 2005년 2월에 입후보한 후 ‘높이 약 610m’라고 공표하였다.

입후보와 함께 스터디 안을 공개한 직후 인터넷상에서는 고층건축 랭킹사이트의 티에 SUMIDA타워로 게재되었고, 그 후 고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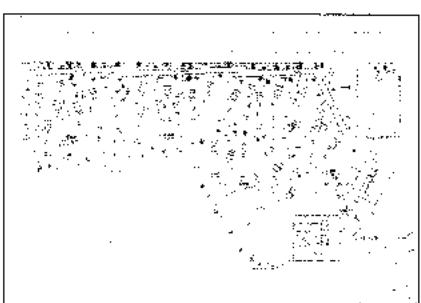
타워와 시카고타워 계획안이 높이 610m로 업되어 갔다. 각국에서 타워 높이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느낀 시기였다.

동경 스카이트리는 일본의 문화·기술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완성될 경우 세계를 목표로 하고, 당초보다 세계를 목표로 한 높이를 상정하여 구조 등의 대응을 했으나, 공사 착공 후 약 1년이 지난 2009년 10월에 그 높이가 634로 결정되었다. 설계 시작시점, 부지 조건의 난항이 거듭되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남북으로 좁은 부지에 약 1:10이라는 비율을 성립시켜야 했고, 지하의 도영지하철, 지상의 구(舊) 동부본사 빌딩을 피하면서 배치를 보색하는 날들이었다. 또, 300m를 초과하는 높이의 기상조건, 바람에 의한 기류 상태, 연약한 지반으로 각 단층으로부터의 지진파의 영향, 디지털방송 안테나의 협용 가속도, 철골부의 유지방법, 고소에서의 설비기기 간섭 등 사례가 없었던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사내뿐만 아니라 각 방면에서의 전문가로부터도 정보를 수입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지금 현재 약 300m의 높이로 시공되었고 드디어 미지의 높이가 다가오고 있다.

Bayside Marina Hotel Yokohama -Yasutaka Yoshimura Architects-

분동(分棟) 형의 컨테이너건축



부지는 요코하마의 교외, 관동최대규모의 마리나에 근접하는 상업 지역의 일각에 있다. 해안 쪽에 공원과 마리나, 옆에 아울렛몰과 그 주차장이 있고 육지 쪽에는 공장이 늘어져 있다. 용도는 호텔로 엔트ランス동(棟)과 전체 31실의 객실이 있다. 이 객실부분에 모듈공법을 채용했다. 각 유닛은 해군 컨테이너의 보급규모의 치수를 빌려 수송비용을 줄여, 해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건재를 넣어 옮기는 것이 아닌 내외장을 완성한 객실을 직접 컨테이너선에 실어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그것들은 혼모루후토에서 하역한 후 트레일러로 부지 까지 옮겨 미리 실시하여 타설된 기초에 연결된다. 일부 설비공사나 외구공사가 뒤에 남으나, 그것도 현장공기(工期)의 압도적인 단축을 실현할 수 있다. 공기도 그렇지만 비용절감의 열쇠는 특히 일본국내에서의 작업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실은 현장에서의 수평연결이 불필요한 분동형, 결국 코티지형으로 한다. 분동화하면 외벽량이 증가하지만 어찌하든 운송 시에 각 유닛을 방수(防水)사양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증액요인이 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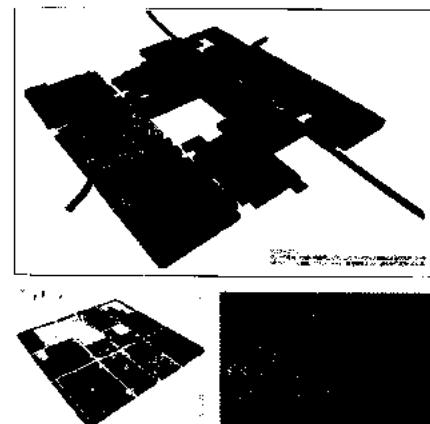
한편, 모듈공법이 원래 골치였던 소음차단 등의 면에서 호텔로서의 주거성을 높이기에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다. 플랫타입 7동, 메조네트타입 24동 분동형으로 한 이상 해안 쪽의 액티비티로의 시선 집중을 막기 위해 서로 이웃하는 객실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했다. 바다로의 조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웃하는 객실은 기분 좋게 파도 사이를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지만 동시에 현대에서의 합리적인 선택폭이 넓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심양시 방역(方域) 지구계획

-Yuusuke Karasawa Architects-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증 네트워크

중국 심양시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고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다. 개발면적은 사방 1.2km의 옛시가지 전체, 약 120만m²에 이른다. 중심에 위치한 고궁은 저층이고, 경관보전을 위해 옛시가지



전체에 높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본 개발계획에서는 그 제한이 보다 한층 강조되어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 각 도시에서 전개하는 고층건축을 주체로 한 수직형의 도시개발모델이 아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지하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계획되었다.

계획을 총괄하는 큰 축으로 대규모 개발을 단순히 연속적인 공간으로 되어 버리지 않기 위해 다양한 차이를 가진 피보나치 수열의 지오메트리가 입체적으로 섞이면서 이루어간다는 알고리즘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이것이 지증을 회유하기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 통선으로서 활용되고, 그 주위에 상점가, 오피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이 배치된다.

「관수(閑數)」와 「변수(變數)」

전체 계획을 총괄하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지증 네트워크를 이 계획에서는 「관수」라 부르고, 또 이번 계획에서 요구받은 상업 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조건에 의거 각 용적을 「변수(變數)」로서 위치했다. 대규모 계획에 있어서는 건설기간이 장기적인 span에 미치게 되고, 또 계획 자체의 내용변경 요구를 받는다. 그러한 장기에 걸친 계획의 미래와의 유동성을 「변수」로서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 어떠한 변경이 발생한다 해도 그 변수를 정리하는 「관수」인 피보나치 수열의 지증 네트워크의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그 과정 주변에는 다양한 유동적인 조건이 도입되도록 계획을 책정했다.

우선은 「관수」 자체의 실시계획 전에 환경 시뮬레이션, 교통 시뮬레이션, 에너지효율 조

사 등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후 장기적인 유동성을 수반하는 「변수」가 투입된다.

scale를 횡단하는 알고리즘 방법

-가라자와 유스케 (건축사)-

알고리즘의 가능성이라 무엇인가? 그것이 건축에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대답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여러 건축사에 의해 시행착오가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의 한 부분에 대해 본인 나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알고리즘에 의한「폼」생성

알고리즘이란 단어의 정의에서는 「산술」이다.

그것이 건축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의외이지만, 예전에 루이스 칸이 말한 유명한 「Order/Form/Shape」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칸은 건축의 배후에 내재된 이론을 「Form」라 말하고 있고, 표층적인 건축의 모습(Shape)과 구별 짓고, 건축 가는 눈에 보이는 건축 배후에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품 그 자체를 컴퓨터에서 선택해 의식적으로 제어하려는 사고가 알고리즘 건축의 최대 특징이다. 칸이 설명한 것처럼 품은 추상적인 이론이지만, 그 자체는 Scal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구, 주택에서부터 도시계획까지도 횡단하는 광범위한 창작 이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종래에서는 단절되기 쉬웠던 주택과 대형공공건축, 또 도시까지를 포괄하여 디자인하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 품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것으로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품이란 전적으로 기하학으로서 채택할 수 있으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하학은 칸 시대의 기하학, 종래의 고전적인 기하학과는 달리 보다 자연적인 형태에 가까운 복잡한 것의 질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Scale을 계속 횡단하면서 새로운 형식성을 창조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알고리즘은 커다란 가능성과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

Context (여건)의 연산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Context과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알고리즘은 건축을 확실히 「관수」와 「변수」의 2개 레벨로 나뉘고, 그 양쪽을 조작할 수 있다. 앞서 칸의 품은 확실히 「관수」이지만, 그 관수에 투입되는 변수라는 요소를 알고리즘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주위의 부지환경을 파악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감안한보다 Context하게 적합한 건축을 창조해낸다.

여기서 필자가 설계한 작품을 예로 설명한다면, 「Villa Kanousan」에서는 주위 자연 부지의 경사각이 회전하는 큐브의 연산의 초기값에 변수로서 이용되었고, 또 「심양시 방역지구계획」에서는 9자리 그리드 내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지오메토리가 이번 경우 변수가 되어 보전해야만 하는 역사적 거리에 맞추어 변형한다.

말하자면, 알고리즘적인 사고는 건축을 「관수」와 「변수」라는 두 개의 범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또, 그 시점의 변경에 따라 건축의 창작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관수」의 측면에 주목한다면 그것은 임의로 정의할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탐구하기 위한 돌파구가 된다. 또, 살이 붙여진 「변수」에 주목하면 외부환경이나 사회상황과 대응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건축에 적용하여 주어진 조건과 적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보다 세분화된다. 구성이나 형식 레벨의 진화와 Context 와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알고리즘은 건축을 진화시키기 위한 커다란 측면이 될 것이다.

메타볼리즘 재부상

이미 1960년대 초기에 메타볼리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쿠타케 키요노리는 창작방법을 「か, かた, かたち-가(可) · 가타(型) ·

가타치(形)」 3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타」를 메가 스트럭처와 인공지반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 흐르는 여러 상황을 신진대사 시킨다는 생각으로 메타볼리즘의 이론적인 기반을 정비하였다. 알고리즘이란 사실 장소의 정보화 사회에 의해 가능하게 된 새로운 메타볼리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메가 스트럭처 대신에 보다 유연한 비선형의 품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가타」로서 이용되었다. 그것은 중국이나 아시아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요구되는 세계에서는 개발을 총괄하는 플레임 웍크로서 유효한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보다 주변환경이나 장소와 호응한 건축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신체성(「가타」가 만들어내는 공간적 효과)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형 공간을 목표로 중국 등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종래의 대형개발 방법론에서는 불가피하게 좋은 공간을 메가스케일로 만들어내 버린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것에 대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은 복합하고 질서있는 품을 던지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을 다양한 휴먼스케일의 장으로 채우고, 거기에서 단순한 카오스가 아닌 상황(차이를 가진 장소성이 네트워크되는 상황)으로 한다. 이 다양성과 질서의 양립된 상황은 주택 Scale에서도 전개할 수 있고, 그것은 새로운 신체성획득으로 연결된다. 알고리즘은 근대 건축의 규범성을 넘어선 정보화 사회에 있어 계속 변화하는 우리들의 신체감각, 커뮤니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건축공간을 물리적으로 창조해내기 위한 커다란 방법론이 될 것이다.

근대의 일정한 상황이 아닌 또 포스트모던의 카오스도 아닌 현재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건축이 알고리즘 방법으로 지금 다시 부상하려고 하고 있다. ■

김동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by Kim, Dongbum